
'26년도 전북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

2025. 11.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Jeonbuk Regional Skills Council



목 차



I. 전북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현황	1
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 현황	1
2. 전북특별자치도 주축산업 현황	8
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집중도 분석	15
4. 전북지역 노동시장 현황	36
5.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시사점	51
II.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조사 분석 결과	53
1. 기초조사 분석 결과	53
2. 심층조사 분석 결과	118
3. 인력 및 훈련 공급조사 분석 결과	130
4.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분석 결과	163
III. 전북지역 인력양성 기본방향	168

표 차례

〈 표 1 〉 전국 및 전북지역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1
〈 표 2 〉 전국 및 전북지역 연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2
〈 표 3 〉 전국 및 전북지역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3
〈 표 4 〉 최근 5년 간 제조업 주요업종 부가가치	4
〈 표 5 〉 전국 및 전북지역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4
〈 표 6 〉 전국 및 전북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5
〈 표 7 〉 전국 및 전북지역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3)	6
〈 표 8 〉 전북 산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KSIC 대분류 기준)	7
〈 표 9 〉 전북 주축산업 현황	8
〈 표 10 〉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산업분류	9
〈 표 11 〉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9
〈 표 12 〉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피보험자 현황	10
〈 표 13 〉 전북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 산업분류	11
〈 표 14 〉 전북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11
〈 표 15 〉 전북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 피보험자 현황	12
〈 표 16 〉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 산업분류	13
〈 표 17 〉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13
〈 표 18 〉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 피보험자 현황	14
〈 표 19 〉 전북지역 5대 권역 구분 기준	17
〈 표 20 〉 전북 상대집중지수(NOHI) - 주요업종	17
〈 표 21 〉 전북 권역별 상대집중지수(산업집중도) TOP5	19
〈 표 22 〉 전북지역 권역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20
〈 표 23 〉 중추도시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22
〈 표 24 〉 중추도시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23
〈 표 25 〉 새만금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25
〈 표 26 〉 새만금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25
〈 표 27 〉 동북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27
〈 표 28 〉 동북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28
〈 표 29 〉 서남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30
〈 표 30 〉 서남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30
〈 표 31 〉 동남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32
〈 표 32 〉 동남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32
〈 표 33 〉 전국 및 전북지역 인구수 현황	36
〈 표 34 〉 전북 성별 인구수 현황	37
〈 표 35 〉 전북 연령대별 인구수 현황 (2024년 기준)	38

〈 표 36 〉 전북지역 인구 추이	39
〈 표 37 〉 전북지역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40
〈 표 38 〉 전북지역 연령별 인구이동	41
〈 표 39 〉 전북지역 고용지표 총괄	43
〈 표 40 〉 2025년 상반기 전북 시군별 고용지표 총괄	44
〈 표 41 〉 전북 월평균 임금액	44
〈 표 42 〉 전북 제조업 월평균 임금액	45
〈 표 43 〉 전북지역 구인구직 동향	46
〈 표 44 〉 전북지역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KECO 중분류)	48
〈 표 45 〉 전북지역 산업별 인력부족 및 채용예정인원	48
〈 표 46 〉 전북지역 산업별 인력부족 및 채용예정인원 (2024년 하반기 기준)	49
〈 표 47 〉 「지역훈련수요조사」 조사 설계 개요	53
〈 표 48 〉 전북지역 사업체 규모별 조사성공 사업체 수	53
〈 표 49 〉 조사대상 산업 중분류 현황	54
〈 표 50 〉 2025년 지역훈련수요조사 주요 조사 내용	55
〈 표 51 〉 2024년 전북지역 현원 및 퇴직인원 - 업종별	60
〈 표 52 〉 2024년 전북지역 현원 및 퇴직인원 - 직종별	62
〈 표 53 〉 2024년 전북지역 구인인원, 채용인원 현황 - 산업(업종)별	65
〈 표 54 〉 2024년 전북지역 구인인원, 채용인원 현황 - 직종별	68
〈 표 55 〉 인력 유입, 유출 현황 - 업종별	70
〈 표 56 〉 2024년 전북지역 구인인원, 채용인원 현황 - 직종별	72
〈 표 57 〉 채용예정인원 - 업종별	75
〈 표 58 〉 채용예정인원 - 직종별	77
〈 표 59 〉 업종별 경력 유무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81
〈 표 60 〉 직종별 경력 유무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83
〈 표 61 〉 직종별 경력 유무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KECO 소분류)	85
〈 표 62 〉 업종별 경력 유무별 양성훈련 수요 전망 결과	91
〈 표 63 〉 직종별 경력 유무별 양성훈련 수요 전망 결과	93
〈 표 64 〉 직종별 경력 유무별 양성훈련 수요 전망 결과(KECO 소분류)	95
〈 표 65 〉 업종별 종사자 수 전망 결과	99
〈 표 66 〉 직종별 종사자 수 전망 결과 - KECO 중분류	101
〈 표 67 〉 직종별 종사자 수 전망 결과 - KECO 소분류	103
〈 표 68 〉 업종별 향상훈련 수요 전망 결과	107
〈 표 69 〉 직종별 향상훈련 수요 전망 결과 - KECO 중분류	110
〈 표 70 〉 직종별 향상훈련 전망 결과 - KECO 소분류	111
〈 표 71 〉 2025년도 심층 수요조사 추진 현황	119
〈 표 72 〉 전국 및 전북지역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120
〈 표 73 〉 전북지역 이차전지 관련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치	123
〈 표 74 〉 전북지역 이차전지 관련 직업별 향상훈련수요 전망치	125
〈 표 75 〉 최근 3개년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현황	131
〈 표 76 〉 최근 3개년 전북지역 훈련유형별 훈련과정 현황	132
〈 표 77 〉 2024년 NCS 대분류별 주요 훈련과정 현황	133

〈 표 78 〉 최근 3개년 양성훈련 주요 훈련과정별 공급량(2022-2024년)	134
〈 표 79 〉 최근 3개년 직종별 양성훈련 공급 현황	135
〈 표 80 〉 제조업 최근 3개년 양성훈련 공급 현황	136
〈 표 81 〉 2024년 전북지역 양성훈련 공급량 전체	137
〈 표 82 〉 2024년 전북지역 양성훈련 공급량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137
〈 표 83 〉 2024년 전북지역 양성훈련 공급량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 상위 20개	139
〈 표 84 〉 2024년 전북지역 양성훈련 공급량 - NCS 소분류 상위 50개	140
〈 표 85 〉 2024년 성별에 따른 양성훈련 참여 현황	142
〈 표 86 〉 연령층에 따른 양성훈련 참여 현황	144
〈 표 87 〉 2024년 연령별 양성훈련생의 타 지역 교육훈련 참여 현황	146
〈 표 88 〉 2024년 직종별 양성훈련생의 타 지역 교육훈련 참여 현황	147
〈 표 89 〉 최근 3개년 향상훈련 주요 훈련과정별 공급량(2022-2024년)	148
〈 표 90 〉 최근 3개년 직종별 향상훈련 공급 현황	149
〈 표 91 〉 제조업 관련 최근 3개년 향상훈련 공급 현황	151
〈 표 92 〉 2024년 전북지역 향상훈련 공급량 -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152
〈 표 93 〉 2024년 전북지역 향상훈련 공급량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상위 20개)	153
〈 표 94 〉 2024년 NCS기준 상위 50개 향상훈련 공급량	154
〈 표 95 〉 2024년 성별에 따른 향상훈련 참여 현황	156
〈 표 96 〉 2024년 연령에 따른 향상훈련 참여 현황	158
〈 표 97 〉 2024년 학력 수준에 따른 향상훈련 실시 현황	159
〈 표 98 〉 2024년 전북 거주자의 훈련 참여 지역	161
〈 표 99 〉 훈련수급조정 판단 기준	163
〈 표 100 〉 양성훈련 수급 조정(안)	164
〈 표 101 〉 향상훈련 수급 조정(안)	166

그림 차례

〈 그림 1 〉 전북지역 지역내총생산 추이	1
〈 그림 2 〉 전북 세부지역별 지역내총생산 추이(2022년 기준)	2
〈 그림 3 〉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 변화	39
〈 그림 4 〉 도 단위 인구순이동률 추이	40
〈 그림 5 〉 연도별 전북 실업률 추이	42
〈 그림 6 〉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액(2024년 기준)	45
〈 그림 7 〉 전북지역 구인구직 현황	46
〈 그림 8 〉 양성훈련 수요 도출	56
〈 그림 9 〉 향상훈련 수요 도출	56
〈 그림 10 〉 지역훈련수요조사 절차 및 방법	57
〈 그림 11 〉 2024년 전북지역 인력 현황	58
〈 그림 12 〉 2024년 기준 전북지역 인력 현황(제조업/비제조업)	59
〈 그림 13 〉 구인인원, 채용인원 변화(2023년, 2024년)	65
〈 그림 14 〉 채용예정인원 변화	74
〈 그림 15 〉 양성훈련 수요 추정 절차	79
〈 그림 16 〉 경력 유무별 양성훈련수요 비중 변화	90
〈 그림 17 〉 향상훈련 수요 추정 절차	98
〈 그림 18 〉 심층 수요조사 추진 체계	118
〈 그림 19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피라미드(2000~2050)	127
〈 그림 20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도 체계	131
〈 그림 21 〉 최근 3개년 양성훈련 실시 인원 및 취업률	134
〈 그림 22 〉 2024년 양성훈련 연령대별 훈련 참여 현황	143
〈 그림 23 〉 2024년 양성훈련 참여자의 타 지역 교육참여 현황	145
〈 그림 24 〉 최근 3개년 향상훈련 공급 현황	148
〈 그림 25 〉 2024년 향상훈련 연령대 훈련 참여 현황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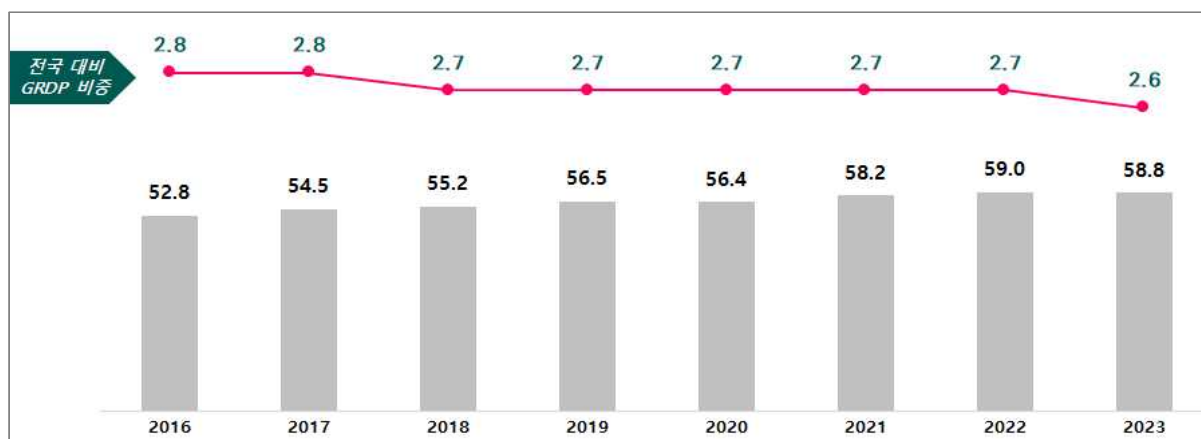
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 현황

가.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 전북지역의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58.8조 원으로 전국 대비 2.6% 수준임
 - 전북의 GRDP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나, 2020년과 202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016년 2.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이후 전북의 GRDP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전국(2.4%)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임

〈 그림 1 〉 전북지역 지역내총생산 추이

(단위 : 조원, %)



〈 표 1 〉 전국 및 전북지역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단위 : 조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16~23)
전국	1,901.2	1,965.9	2,026.5	2,075.3	2,062.5	2,156.0	2,214.9	2,246.6	2.4
전북	52.8	54.5	55.2	56.5	56.4	58.2	59.0	58.8	1.5
전국 대비 전북 비중	2.8	2.8	2.7	2.7	2.7	2.7	2.7	2.6	-

※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당해년가계)

- 한편, 전북의 1인당 GRDP(2023년 기준)는 약 36.3백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대비 78.0% 수준임
 - 전국 단위 타 광역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하며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높은 1인당 GRDP와 대비되나 전북과 유사한 농업·제조업 중심 구조를 지닌 전남, 강원 등 지역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북은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 중 하나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서, 1인당 GRDP가 전국 대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표 2 〉 전국 및 전북지역 연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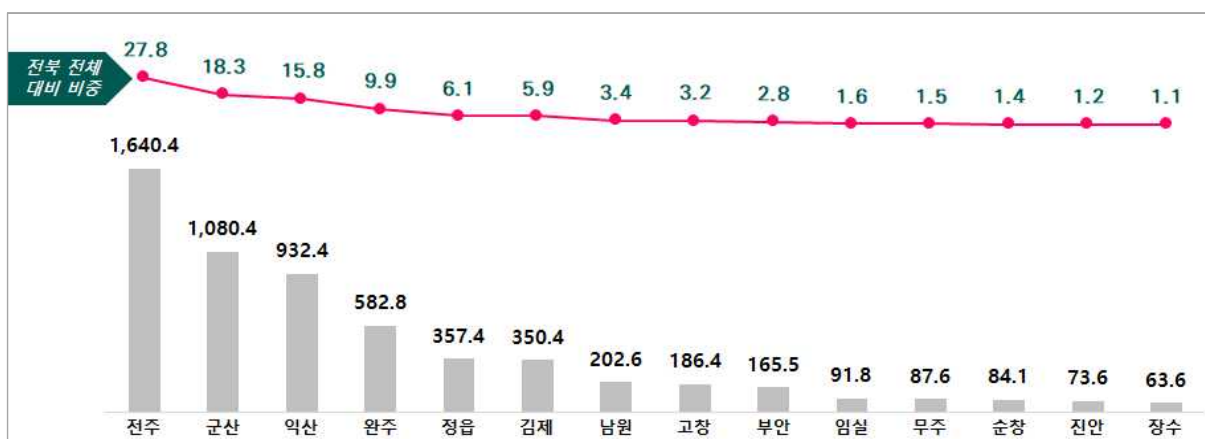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19~`23)
전국	39,467	39,789	42,963	45,045	46,491	4.2
전북	30,400	31,213	33,164	34,484	36,283	4.5

※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 1인당 GRDP(시도)

- 전북의 세부지역별 GRDP를 보면, 전주의 GRDP가 전북의 총 27.8%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면, 군산, 익산, 완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지역이 전북의 대부분의 산업과 인구가 집중됨을 고려할 때, 전북 GRDP의 약 71.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2 〉 전북 세부지역별 지역내총생산 추이(2022년 기준)

(단위: 백억 원, %)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통계시스템- 지역내총생산 (시군별 자료는 2022년 자료가 최신 자료임)

- 2021~2023년 기간 동안 전국의 총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북지역 역시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전북의 총부가가치는 2021년 5조 4,870억 원에서 2023년 5조 9,385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약 4.0%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북은 제조업, 공공행정·국방, 사업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서 안정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특히 제조업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전북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여전히 핵심 성장 기반임을 알 수 있음

〈 표 3 〉 전국 및 전북지역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단위 : 십억 원)

구 분	전국			전북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총부가가치(기초가격)	2,040,076	2,142,317	2,232,788	54,870	56,294	59,385
농업, 임업 및 어업	36,930	33,763	34,629	3,811	3,602	3,431
광업	2,017	1,925	2,336	102	96	101
제조업	583,609	616,195	615,360	13,113	13,677	13,87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4,509	3,131	27,821	835	19	842
건설업	113,427	121,187	129,979	3,939	3,954	4,136
도매 및 소매업	185,233	196,173	205,443	3,348	3,356	3,530
운수 및 창고업	80,212	93,100	92,238	1,777	1,847	2,209
숙박 및 음식점업	44,510	55,054	63,157	1,265	1,555	1,756
정보통신업	104,832	106,130	108,300	1,007	1,003	1,000
금융 및 보험업	124,008	136,423	138,608	2,870	3,179	3,289
부동산업	162,609	158,266	159,975	3,372	3,373	3,612
사업서비스업	167,024	179,005	190,418	2,627	2,697	2,93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8,026	148,486	155,611	6,618	7,172	7,462
교육 서비스업	96,693	102,160	104,385	3,854	4,063	4,1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4,963	123,970	132,217	4,319	4,597	4,8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61,475	67,347	72,309	2,013	2,104	2,246

※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명목)

-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전국 제조업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북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업종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전국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 섬유·의복 제조업, 비금속·금속제품 제조업 등 전반적인 성장세가 나타났으나, 전북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은 연평균 -2.5% 감소하며 전국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표 4 〉 최근 5년 간 제조업 주요업종 부가가치

(단위 : 십억 원, %)

구 분	전국			전북		
	2019	2023	증가율 (‘19년 대비)	2019	2023	증가율 (‘19년 대비)
식료품 제조업	26,045	34,515	7.3	2,321	2,099	-2.5
섬유 의복 제조업	17,603	19,819	3.0	229	234	0.5
비금속, 금속제품 제조업	81,973	94,405	3.6	2,304	2,369	0.7
전기, 전자, 정밀기기 제조업	177,084	182,632	0.8	868	908	1.1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23,994	146,608	4.3	3,128	3,338	1.6

※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 최근 3년간의 전북의 광업·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중 산업별 비중 차이를 보면 대부분 1%p 내외 수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 5 〉 전국 및 전북지역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단위 : %, %p)

구 분	전북 전체 대비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2020년	2023년	GAP (2023-2020)
광업 및 제조업	100.0	100.0	-
광 업(05~08)	1.2	0.9	-0.3
제 조 업(10~34)	98.8	99.1	0.3
식료품 제조업	18.5	19.1	0.6
음료 제조업	3.4	3.0	-0.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	0.7	-0.7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5	0.4	-0.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1	0.9	-0.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6	3.2	-0.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1	0.1	0.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6.6	15.4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9	3.5	0.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	3.2	-0.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5	5.8	0.3
1차 금속 제조업	9.7	7.8	-1.9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0	3.7	-0.3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5	1.9	-0.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0.5	0.5	0.0
전기장비 제조업	3.1	3.0	-0.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2	6.5	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7	18.6	4.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0	-0.1
가구 제조업	0.2	0.2	0.0
기타 제품 제조업	0.7	0.4	-0.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2	0.2	0.0

※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나. 전북지역 사업체 현황

- 2023년 기준 전북 사업체 수는 239,757개사, 종사자 수는 799,091명으로 나타남
 - 전북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국 대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각각 2023년 기준 3.8%, 3.1%로 유지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전주의 사업체 수가 77,92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익산, 군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 또한 동일한 추이를 보임
 - 최근 3개년 사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고창군(5.9%)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순창군(4.8%), 진안군(3.9%), 장수군(3.6%)으로 나타남
 - 최근 3개년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정읍시(2.2%), 고창군(2.2%)으로 나타나며 임실군의 경우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6 〉 전국 및 전북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사, 명)

구 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전국		6,079,702	6,139,899	6,246,489	24,931,600	25,217,123	25,445,897
전북 전체		231,380	232,695	239,757	791,096	795,273	799,091
전국 대비 비중		3.8	3.8	3.8	3.2	3.2	3.1
지역별	전주시	76,227	76,634	77,923	265,378	268,534	270,250
	군산시	33,592	32,870	33,811	116,443	117,057	115,264
	익산시	35,427	36,147	36,734	123,241	123,756	123,933
	정읍시	15,625	16,311	16,500	47,020	47,995	49,099
	남원시	11,634	10,807	12,207	31,403	31,024	32,638
	김제시	13,001	13,019	13,461	43,550	44,145	44,761
	완주군	12,843	13,046	13,569	61,502	61,098	61,540
	진안군	3,716	4,185	4,014	10,752	11,264	11,052
	무주군	3,462	3,581	3,703	11,383	11,646	11,474
	장수군	3,170	3,098	3,403	9,865	9,170	9,781
	임실군	4,275	4,295	4,528	15,318	13,644	12,460
	순창군	3,358	3,306	3,686	10,377	10,383	10,604
	고창군	7,374	7,746	8,262	22,195	22,246	23,173
	부안군	7,676	7,650	7,956	22,669	23,313	23,062

※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4인 규모 사업체 비중이 88.9%로 전국(86.4%)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북지역 사업체가 대체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1-4인 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경우,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기업은 102개사로 매우 적음
- 이는 전북의 산업 구조가 영세 자영업 및 소규모 제조·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내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냄
 - 전북은 농생명 제조, 음식료품, 전통 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중소·영세 기반 산업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의 본사 또는 대형 제조업 사업장의 집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 표 7 〉 전국 및 전북지역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3)

(단위 : 개사, %)

구 분		전국		전북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전 체		6,246,489	100.0	239,757	100.0
종사자 규모	1-4명	5,395,505	86.4	213,223	88.9
	5-9명	485,839	7.8	14,987	6.3
	10-19명	200,594	3.2	6,257	2.6
	20-49명	110,170	1.8	3,670	1.5
	50-99명	33,944	0.5	1,066	0.4
	100-299명	15,817	0.3	452	0.2
	300-499명	2,288	0.0	51	0.0
	500-999명	1,438	0.0	31	0.0
	1,000명 이상	894	0.0	20	0.0

※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52,432개사(2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년 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17.4%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광업은 14.7%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함
-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를 보면 제조업이 120,105명(1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년 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15.4%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광업은 9.7%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함

〈 표 8 〉 전북 산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KSIC 대분류 기준)

(단위 : 개사, 명, %)

구 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21	2023	증감률	2021	2023	증감률
전체	231,380	239,757	3.6	791,096	799,091	1.0
농업, 임업 및 어업	1,509	1,413	-6.4	6,348	5,996	-5.5
광업	116	99	-14.7	834	753	-9.7
제조업	16,384	15,570	-5.0	121,697	120,105	-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1,774	25,570	17.4	24,390	28,140	15.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13	639	4.2	5,794	5,929	2.3
건설업	22,623	23,170	2.4	71,806	68,448	-4.7
도매 및 소매업	53,139	52,432	-1.3	105,497	99,833	-5.4
운수 및 창고업	20,718	22,586	9.0	38,984	40,099	2.9
숙박 및 음식점업	31,328	31,373	0.1	69,834	74,778	7.1
정보통신업	1,629	1,815	11.4	8,135	8,535	4.9
금융 및 보험업	2,126	2,151	1.2	24,528	24,292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7,110	6,970	-2.0	16,346	15,553	-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27	5,380	2.9	26,374	28,266	7.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4,327	4,145	-4.2	24,024	22,595	-5.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99	905	0.7	38,862	41,284	6.2
교육서비스업	9,061	9,383	3.6	60,935	59,913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783	7,041	3.8	97,263	102,573	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857	5,037	3.7	13,645	14,752	8.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157	24,078	13.8	35,800	37,247	4.0

※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 전북특별자치도 주축산업 현황

가. 전북 주축산업

-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는 “주축산업 대전환과 협력생태계 주도”를 비전으로, 산업 DX/GX 전환 대응·기업의 친환경·지능화 기술융합·전주기(Pre&Post-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창출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추진 중임
- 주축산업 체계는 2023년 개편을 통해 4개에서 3개로 재편되어 ① 농생명바이오산업, ②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 ③ 탄소융합소재 산업으로 구성됨
 - 조선해양·에너지 산업은 주축산업에서 제외되었는데, ‘특수목적선’ 관련 육성은 기계 부품 분야 내에서 친환경·스마트 전환과 연계해 지원(품질·신뢰성·국제표준 대응, 수출 활성화 등)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음
-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정책 방향도 주축 3대 분야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기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주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기반 확충(R&D-비R&D 패키지, 성장사다리 개편)으로 대표기업군(잠재-예비-선도) 중심의 생태계 강화를 추진함
- 본 분석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축산업은 「202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산업, 수전해 수소생산산업 및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의 미래신산업을 포함함

〈 표 9 〉 전북 주축산업 현황

산업명	사업 정의 및 개요
농생명바이오	인간 및 동물의 건강·면역 증진을 위하여 동식물, 미생물 등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고기능/고부가가치 원료·소재·제품(건강기능성식품/동물용 의약품·사료/발효·미생물 소재)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 부품	특수목적용 기계(상용/특장차/농·건설기계/특수목적선 등)의 ICT 기술 융합을 통한 자동화/무인화/자율화 등 기술이 탑재된 기계부품/모듈/제품을 포함하는 산업
탄소융합소재	탄소소재(탄소섬유/인조흑연/활성탄소/카본블랙/CNT/그래핀)의 고기능·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송기기/에너지/토목·건축/안전/생활·레저 등 전방산업에서 요구하는 첨단소재/부품/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산업
수전해 수소생산산업	무탄소에너지(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력을 사용하여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의 가압화, 고효율화, 저가화, 변동 안정성 확보, 수소생산밀도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단위셀 부품과 스택 및 운전장치 모듈을 포함하는 산업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친환경·전동화 등 산업변화에 따른 EV/ESS/IT·전자기기 등의 핵심동력원으로 활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의 사용량 증가 대응 및 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 구현을 위한 핵심 매개체인 전해질과 이를 구성하는 리튬염/유기용매/첨가제 개발 및 제조 관련 산업

※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1) 농생명바이오산업

-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AI 접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내 농생명 관련 공공·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기능성 식품·메디/케어 푸드·동물용 의약품/사료 등 고부가 분야로의 전환 잠재력이 큰 산업임
- 기능성 식품·메디/케어 푸드·동물용 의약품/기능성 사료 등 핵심 품목은 전국 대비 특화(특화도, 집적도)가 확인되며, 기업성장 단계별(초기-잠재-예비-선도)로 혁신창출(기술선도) 경로와 시장지배력(시장선도) 경로를 병행하는 지원이 설계되어 있어 타깃시장 대응형 상용화 R&D와 전·후단 사업화 패키지(Pre & Post R&D)가 결합된 형태로 제시됨

〈 표 10 〉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산업분류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 제외)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743	장류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2022년 기준 사업체 수 1,839개사, 종사자 수 14,956명, 2023년에는 사업체 수 1,734개사로 소폭 감소했으나, 종사자 수는 15,302명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즉, 기업 수는 소폭 조정되었지만 고용 규모는 확대되는 국면으로 자동화·스케일업 기업 중심의 고용 흡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 11 〉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단위 : 개사,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체 수	1,477	1,543	1,782	1,839	1,734
종사자 수	12,823	13,603	14,590	14,956	15,302

※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최근 3개년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피보험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실자의 규모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취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인력은 이탈 중이며 이탈의 폭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표 12 〉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피보험자 현황

(단위 : 개사,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피보험자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수	상실자 수
식품가공 관련직	11,920	229	9,736	131	8,266	123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69	22	1,352	19	1,247	9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931	34	1,643	19	1,393	21
식품 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6,826	144	5,372	82	4,512	70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1,594	29	1,369	11	1,114	23

※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 월별 피보험자 현황

*해당 조사는 직종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농생명바이오산업 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은 디지털 전환·AI 접목 확산 속에서 기능성 식품, 메디/케어 푸드, 동물용 의약품·기능성 사료 등 고부가 분야로 전환을 가속 중이며 지역에는 한국식품연구원·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혁신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 2단계 후보지 '23.3) 등 거점이 집적되어 기업 유치·성장 거점화를 뒷받침함
- 2024년 계획은 주축산업 육성과 기업성장단계(잠재-예비-선도)별 전주기 지원을 결합한 구조로, 농생명바이오 분야에 대해 ① 고기능성 농생명 소재 기반의 타깃시장 진출형 제품 개발, ② 시장변화/신시장 진출 대응을 위한 기술-사업화 연계(All-Set: Pre-R&D → R&D 간접 → Post-R&D), ③ 수출유망기업 단계별 수출 패키지를 중점 추진함

2)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 전북의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은 상용·특장차, 농·건설기계, 특수목적선 등 특수목적용 기계에 ICT 융복합(자동화·무인화·자율화) 기술이 탑재된 부품/모듈/제품을 포괄함
- 전북지역은 관련 기업·연구인프라가 다수 분포하고, 친환경·전동화·지능화 전환을 축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는 품목군이 명확함(상용·특장차 자율운행/운송부품, 지능형 농기계·시스템·부품, 건설기계용 지능형 부품, 특수목적선 기계부품)
- 전북 제조업 내에서 본 산업은 종사자·생산액·부가가치 비중이 20% 초과 수준이며, 기업당 생산성이 전국 대비 높게 제시되며 세부 품목별로 집적도·특화도가 확인되고 환경규제 강화·디지털 전환 가속에 대응한 지능화 대전환과 실증기반·혁신자원 연계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

〈 표 13 〉 전북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 산업분류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행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2022년 사업체 1,444개사, 종사자 27,968명, 2023년에는 사업체 1,346개사, 종사자 27,245명으로 완만한 감소가 나타남
 - 양적 조정 국면이나, 전환 수요(전동화·지능화)와 수출시장 확대로 질적 고도화 필요성이 커진 흐름으로 해석됨

〈 표 14 〉 전북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단위 : 개사,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체 수	955	1,009	1,367	1,444	1,346
종사자 수	19,757	19,669	26,713	27,968	27,245

※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최근 3개년 전북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 관련 피보험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실자의 규모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취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북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의 인력은 이탈 중이며 이탈의 폭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표 15 〉 전북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 피보험자 현황

(단위 : 개사,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피보험자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수	상실자 수
기계관련직 전체	48,859	555	43,769	359	40,035	283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3,996	44	3,448	38	3,197	2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6,837	93	5,920	83	4,831	76
운송장비정비원 (자동차 제외)	647	7	568	5	518	5
자동차 정비원	7,690	118	6,559	86	5,677	61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용	4,713	92	4,023	36	3,522	43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용	1,117	21	892	19	750	10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용	764	20	666	1	659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조립원	21,375	145	20,187	73	19,494	55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1,720	15	1,506	18	1,387	8

※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 월별 피보험자 현황

*해당 조사는 직종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 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전북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은 상용·특장차·농·건설기계·특수목적선 등을 대상으로 전동화·자율주행·원격진단이 구현되는 지능형 파워트레인·새시/제동·전장 모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지역 내 시험·인증·신뢰성 평가 장비와 파일럿 라인, 실증 테스트베드가 밀집해 고난도 부품의 양산성 검증과 품질 고도화를 뒷받침함
- 2024년 계획은 주축산업 육성과 기업성장단계(잠재-예비-선도)별 전주기 지원을 결합한 구조로,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분야에 대해 ① 전동화/자율화 핵심부품(모터·감속기·인버터·ADAS/센서 등) 집중 개발, ② 실증-품질-양산을 잇는 상용화 연계(Pre-R&D→R&D 간접→Post-R&D)로 규제·표준 대응 및 신뢰성 확보, ③ 수요처 연계 수출 패키지로 특장·농건기계·선박 전방시장 진입을 중점 추진함

3) 탄소융복합소재

-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은 탄소섬유·인조흑연·활성탄소·카본블랙·CNT·그래핀 등 탄소소재의 고기능·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송기기·에너지·건설/토목·안전·레저 전방수요에 맞는 첨단 소재·부품·제품을 개발·상용화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 지역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ECO융합섬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혁신기관과 탄소융복합 산업 규제자유특구·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등 거점이 집적되어 수요지향 상용화 개발을 뒷받침함

〈 표 16 〉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 산업분류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2022년 사업체 376개사, 종사자 6,660명, 2023년에는 사업체 341개사, 종사자 5,990명으로 완만한 감소가 나타남

〈 표 17 〉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단위 : 개사,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체 수	266	278	359	376	341
종사자 수	6,897	7,040	6,320	6,660	5,990

※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최근 3개년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 관련 피보험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실자의 규모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취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의 인력은 이탈 중이며 이탈의 폭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표 18 〉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 피보험자 현황

(단위 : 개사,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피보험자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수	상실자 수
재료관련직 전체	17,674	315	14,694	180	13,156	132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238	14	1,036	15	931	11
판금, 제관 및 새시 관련 종사자	355	5	313	1	279	4
단조원 및 주조원	2,604	86	2,233	10	2,034	21
용접원	2,456	74	1,998	21	1,757	26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용	1,439	17	1,229	12	1,071	13
금속가공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용	5,880	74	5,155	41	4,717	39
비금속제조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용	3,702	45	2,730	80	2,367	18

※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 월별 피보험자 현황

*해당 조사는 직종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탄소융복합소재산업 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전북 탄소융복합소재산업은 탄소섬유·인조흑연·활성탄소·CNT·그래핀 등 고기능·경량 소재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에너지·건설 전방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KIST 전북분원·ECO융합섬유연구원과 규제자유특구·소부장 특화단지·탄소소재 국가산단 등 거점이 집적되어 수요지향 상용화 기반을 뒷받침함
- 2024년 계획은 주축산업 육성과 기업성장단계(잠재-예비-선도)별 전주기 지원을 결합한 구조로, 탄소융복합소재 분야에 대해 ① 경량·고기능 핵심소재/부품(프리프레그·복합재, 전극·차폐·흡착 소재 등) 집중 개발, ② 실증·표준·인증을 잇는 기술·사업화 연계(All-Set: Pre-R&D → R&D 간접 → Post-R&D)로 품질·신뢰성 확보, ③ 수요처 연계 수출 패키지 (모빌리티·에너지·건설)로 전방시장 진입을 중점 추진함

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집중도 분석

가.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배경

- 노동시장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특정 산업 및 직종별 노동인력의 형성 정도, 혹은 지역 내 산업별 노동력 집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중도(index of concentration)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집중과 관련한 지수 혹은 지표는 크게 2가지 종류, 첫 번째는 각 항목값을 부여하는 방식인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와 다양성 지수(DI : Diversity Index) 등이 있으며, 두 번째는 전체 집단에 대하여 집중의 정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위 m기업 집중률(CRm : m-firm seller concentration ratio), 허쉬만-허판달 지수(HIH : Hirschman-Herfindahl Index), 엔트로피(Entropy) 지수 등이 있음
- 기존 개발된 집중도 관련 지표는 특정 산업의 집중도 파악을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지역 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각 지표의 특정 개발목표와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지표 활용의 이점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입지계수의 경우, 지역간 특화 정도 혹은 집중 정도만을 관심 대상으로 함에 따라 해당 산업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전북지역에서는 기존 입지계수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시장의 특성 중 특정산업의 지역 간 특화정도와 해당산업의 지역 내 비중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산업집중도(Nam-Oh-Hong Index)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산업 특화도를 분석하고자 함
 - 전북지역의 5대 권역별 분포된 산업의 권역별 특화 정도와 해당 산업의 권역 내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산업별 특화도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북의 지역특화 산업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구조 분석이 가능할 것임. 또한 최근 3개년의 산업집중도 지수 변화를 통해 특화/쇠퇴산업 등 지역별 산업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나.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개요

- 산업집중도(Nam-Oh-Hong Index)는 기존 입지계수(LQ)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내 노동시장의 특성 중, 특성 산업의 지역 간 특화도와 해당 산업의 지역 내 비중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대집중지수임
 - 산업집중도 지수는 산업별 지역 내 비중을 고려하지 못하는 LQ의 한계를 보완해 ‘산업의 지역간·지역 내 특화도’를 동시에 나타냄
 - 통계학의 기대빈도를 적용하여 이론적 확률을 도입함으로써, 종사자 비중에 따른 집중도 측정이 가능하며, 지역 내 총 고용량 중 특정 산업 종사자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산업 간 배율 측정이 가능함

n_{ij} : i지역에서 j산업의 빈도 $E_{ij} = n_{pi} \cdot p_{.j}$, $p_{i.} = n_{i.}/n$, $p_{.j} = n_{.j}/n$

$$NOHI_{ij} = \frac{n_{ij} - E_{ij}}{n_{ij}} \cdot \frac{n_{ij}}{n_j} \times 100$$

- 산업집중도 지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3)」의 지역 내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 종사자 수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모두 포함함
- 산업집중도 지수의 해석은 ‘0’보다 크면 지역 내에서 해당 산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0’보다 작으면 지역 내에서 해당 산업이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산업의 지역 내 비중을 고려하지 못하는 입지계수(LQ)의 한계를 보완해 산업의 지역 간 특화도 뿐 아니라 지역 내 특화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산업별·지역별 상대지수로 활용할 수 있음
- 분석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 산업집중도 지수 산출
(전북 전체, 권역별, 시군별)
 - 최근 3개년(2021-2023) 지역 내 산업집중도 지수 변화
 - 전북 산업집중도 지수 및 지역 내 훈련수급량 교차 분석
 - 종사자 기준 산업집중도 지수와 지역 내 훈련 수요량과 비교 분석을 통해 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훈련수요량 및 공급차에 따른 훈련 필요성을 도출함

- 본 분석 상에서 활용한 권역 구분은 다음과 같음

〈 표 19 〉 전북지역 5대 권역 구분 기준

권역구분	세부 지역
중추도시권	전주, 익산, 완주
새만금권	군산, 김제, 부안
동북권	진안, 무주, 장수
서남권	정읍, 고창
동남권	남원, 임실, 순창

다.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결과(2023년 말 기준)

1) 전북 전체

- 전북 전체 산업중분류 기준 산업집중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산업구조 대비 전북에 집중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2.91), 농업(8.17), 음료 제조업(4.34) 등의 순임
- 2022년 기준 산업집중도 지수와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농업, 식음료 제조업 등 1차 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한편, 임업(전년 11위→18위), 펄프·종이 제조업(20위→22위),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3위→25위), 교육 서비스업(25위→27위) 등은 2022년 대비 상대집중지수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0 〉 전북 상대집중지수(NOHI) - 주요업종

(단위 : 개, 명)

순위	산업분류명칭	총사업체수	총종사자수	NOHI	전년도 순위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5,570	28,140	12.91	1
2	농업	1,272	5,359	8.17	2
3	음료 제조업	159	1,564	4.34	4
4	식료품 제조업	4,383	27,367	4.20	3
5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94	748	3.55	5
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40	6,818	2.66	6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53	2,025	2.11	7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75	18,804	2.01	8
9	수도업	47	1,000	1.91	9
1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62	1,072	1.79	12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08	9,262	1.69	10

순위	산업분류명칭	총사업체수	총종사자수	NOHI	전년도 순위
12	협회 및 단체	8,344	13,232	1.67	13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05	41,284	1.45	14
1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25	3,827	1.18	17
15	보험 및 연금업	334	8,767	1.14	15
16	사회복지 서비스업	3,928	58,387	1.07	16
17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14	5,281	1.00	18
18	임업	92	480	0.94	11
19	1차 금속 제조업	245	6,749	0.84	19
20	종합 건설업	2,014	17,404	0.66	28
21	숙박업	2,907	6,879	0.64	22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4	3,176	0.62	20
23	보건업	3,113	44,186	0.60	21
24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813	16,029	0.58	26
2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921	7,986	0.51	23
26	우편 및 통신업	294	3,307	0.47	24
27	교육 서비스업	9,383	59,913	0.35	25
28	전문직별 공사업	21,156	51,044	0.34	27
29	기타 제품 제조업	976	2,467	0.16	34
30	소매업; 자동차 제외	36,907	64,413	0.09	29
31	음식점 및 주점업	28,466	67,899	0.07	30

2) 권역별 전체

- 전북지역 권역별 전 산업에 대한 산업집중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추도시권(전주·익산·완주)의 경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2.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료 제조업(2.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58) 등의 순으로 산업 집중도는 전년과 유사한 순위로 나타남
-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의 경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3.6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업(2.69), 식료품 제조업(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북권(진안·무주·장수)의 경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1.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업(1.31), 농업(0.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남권(정읍·고창)의 경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2.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업(2.43), 어업(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남권(남원·임실·순창)의 경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2.4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업(1.13), 비금속광물 광업(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21 〉 전북 권역별 상대집중지수(산업집중도) TOP 5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2022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순위	중분류	NOHI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96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92
2	음료 제조업	1.54	2	음료 제조업	2.04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3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8
4	농업	1.43	4	보험 및 연금업	1.30
5	보험 및 연금업	1.34	5	농업	1.24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2022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순위	중분류	NOHI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87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6
2	농업	2.95	2	농업	2.69
3	식료품 제조업	1.76	3	식료품 제조업	1.76
4	1차 금속 제조업	1.73	4	1차 금속 제조업	1.71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7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4

동북권(진안, 무주, 장수)					
2022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순위	중분류	NOHI
1	임업	1.67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45
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7	2	임업	1.31
3	농업	1.10	3	농업	0.96
4	숙박업	0.61	4	숙박업	0.61
5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42	5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40

서남권(정읍, 고창)					
2022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순위	중분류	NOHI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59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49
2	농업	2.39	2	농업	2.43
3	어업	1.08	3	어업	1.24
4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9	4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91
5	식료품 제조업	0.79	5	식료품 제조업	0.77

동남권(남원, 임실, 순창)					
2022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순위	중분류	NOHI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5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40
2	임업	1.60	2	임업	1.13
3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05	3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12
4	농업	0.88	4	농업	0.85
5	식료품 제조업	0.66	5	식료품 제조업	0.61

〈 표 22 〉 전북지역 권역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구 분	산업(중분류)	권역별				
		중추도시권	새만금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A01	농업	1.24	2.69	0.96	2.43	0.85
A02	임업	-1.20	-0.66	1.31	0.33	1.13
A03	어업	-1.51	-0.19		1.24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B06	금속 광업					
B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9	0.39	0.04	0.91	1.12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10	식료품 제조업	0.76	1.76	0.30	0.77	0.61
C11	음료 제조업	2.04	0.92	0.23	0.57	0.58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71	-0.43	-0.12	-0.05	-0.06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6	-0.63		-0.27	-0.21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4	-0.69		-0.27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08	1.46	0.15	-0.06	0.49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24	0.23		0.28	-0.09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86	-0.59	-0.12	-0.22	-0.16

구 분	산업(중분류)	권역별				
		충청도시권	세만금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47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1	0.84	-0.08	-0.05	-0.03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71	-0.68		-0.18	-0.20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	-0.38	-0.11	0.05	-0.19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57	1.54	0.04	0.25	0.27
C24	1차 금속 제조업	-1.12	1.71		0.34	-0.16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92	0.25	-0.11	-0.16	-0.15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5	-0.64		-0.26	-0.21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0	-0.30		-0.25	-0.21
C28	전기장비 제조업	-0.75	-0.22	-0.12	-0.18	-0.19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87	-0.14	-0.12	-0.21	-0.2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8	0.85		-0.10	-0.20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2	0.18		-0.21	
C32	가구 제조업	-0.83	-0.29	-0.11	-0.11	-0.01
C33	기타 제품 제조업	0.55	-0.14	-0.04	-0.13	-0.08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75	0.21	-0.03		-0.03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92	3.66	1.45	2.49	2.40
E36	수도업	0.55	0.10	0.25	0.13	0.33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19	0.75	0.40	0.18	0.28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39	0.72	-0.02	0.11	-0.02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41	종합 건설업	0.79	-0.13	0.01	-0.05	0.05
F42	전문직별 공사업	0.11		0.06	0.05	0.13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33	-0.14	-0.10	-0.09	-0.09
G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48	-0.25	-0.07	-0.08	-0.09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0.10		-0.01	0.01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13	0.03	-0.05	-0.06	-0.05
H50	수상 운송업	-1.58	0.39			
H51	항공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66	-0.02	-0.04	-0.17	-0.08
I55	숙박업	-0.33	0.27	0.61	0.01	0.10
I56	음식점 및 주점업	0.15	-0.01	-0.02	-0.04	-0.01
J58	출판업	-1.31	-0.66	-0.12	-0.27	-0.20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94	-0.55	-0.11	-0.23	-0.19
J60	방송업	0.14		-0.11		
J61	우편 및 통신업	0.17	-0.03	0.09	0.13	0.11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4	-0.68	-0.12	-0.28	-0.21
J63	정보서비스업	-1.16	-0.66		-0.27	-0.21
K64	금융업	-0.12	-0.17	0.04	0.01	0.07
K65	보험 및 연금업	1.30	-0.06	-0.10	0.04	-0.06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63	-0.43	-0.12	-0.17	-0.16
L68	부동산업	-0.14	-0.27	-0.10	-0.17	-0.14
M70	연구개발업	0.23	-0.49	-0.06	-0.10	-0.18
M71	전문 서비스업	-0.93	-0.53	-0.11	-0.23	-0.18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05	-0.29	-0.07	-0.13	-0.06

구 분	산업(중분류)	권역별				
		충청도시권	세만금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43	-0.44	-0.07	-0.17	-0.1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26	-0.23	-0.05	-0.22	-0.17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0.85	-0.40	-0.10	-0.22	-0.18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21	-0.10	0.20	-0.11	-0.12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23	0.36	0.37	0.19	0.32
P85	교육 서비스업	0.40	-0.03	-0.01	-0.01	
Q86	보건업	0.70	-0.03	-0.05	-0.01	-0.01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0.43	0.16	0.05	0.28	0.14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45	-0.10	0.20	0.27	0.19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22	-0.18	0.04	0.05	0.06
S94	협회 및 단체	0.71	0.26	0.21	0.32	0.17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55	0.03	-0.04		-0.04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0.56	0.07	-0.05	0.01	-0.01

(1) 충청도시권

- 충청도시권에 소재한 세부 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전주시는 보험 및 연금업 (1.42), 익산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14), 완주군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29)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3 〉 충청도시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구 분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전주시	1	보험 및 연금업	1.42
	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99
	3	종합 건설업	0.95
	4	보건업	0.70
	5	방송업	0.61
익산시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14
	2	식료품 제조업	1.18
	3	농업	1.18
	4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94
	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94
완주군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9
	2	음료 제조업	1.75
	3	연구개발업	0.98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83
	5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0

〈 표 24 〉 중추도시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구 분	산업(중분류)	전주		익산		완주	
		2023	순위	2023	순위	2023	순위
A01	농업	-0.09	30	1.18	3	0.16	9
A02	임업	-0.84	56	-0.16	44	-0.20	53
A03	어업			-0.21	49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B06	금속 광업						
B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95	61	0.94	4	0.80	5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10	식료품 제조업	-0.46	41	1.18	2	0.04	18
C11	음료 제조업	-0.61	46	0.90	6	1.75	2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71	51	0.11	18	-0.10	40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5	33	0.22	14	-0.23	60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89	58	-0.41	63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58	45	0.73	8	-0.07	36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49	10	-0.08	33	-0.16	50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34	36	-0.31	59	-0.21	56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51	43	0.69	9	0.83	4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92	60	0.94	5	0.69	7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89	59	-0.09	34	-0.02	28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36	38	0.85	7	0.08	15
C24	1차 금속 제조업	-1.02	65	-0.03	28	-0.07	38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84	55	-0.24	54	0.16	10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96	63	-0.15	43	-0.04	3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75	53	-0.33	61	-0.21	57
C28	전기장비 제조업	-0.66	50	-0.16	45	0.07	16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86	57	-0.10	35	0.09	1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95	62	0.24	13	2.29	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0	64	-0.48	67	-0.05	34
C32	가구 제조업	-0.64	48	-0.22	50	0.03	21
C33	기타 제품 제조업	-0.09	31	0.63	10	0.02	25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55	44	-0.18	48	-0.02	29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5	26	2.14	1	0.72	6
E36	수도업	0.43	12	-0.07	31	0.18	8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30	35	0.40	11	0.09	12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17	21	0.37	12	-0.14	47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41	종합 건설업	0.95	3	-0.18	47	0.02	23
F42	전문직별 공사업	0.21	17	-0.03	29	-0.07	37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51	9	-0.04	30	-0.15	49
G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24	34	-0.14	41	-0.10	39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0.21	18	0.00	25	-0.11	41

구 분	산업(중분류)	전주		익산		완주	
		2023	순위	2023	순위	2023	순위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00	29	0.09	21	0.04	19
H50	수상 운송업			-0.28	57		
H51	항공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76	54	0.01	24	0.08	14
I55	숙박업	-0.14	32	-0.23	52	0.04	20
I56	음식점 및 주점업	0.22	16	-0.02	26	-0.05	35
J58	출판업	-0.64	49	-0.44	64	-0.23	59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35	37	-0.38	62	-0.21	55
J60	방송업	0.61	5	-0.23	51		
J61	우편 및 통신업	0.16	22	-0.08	32	0.09	11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73	52	-0.47	66	-0.24	61
J63	정보서비스업	-0.46	40	-0.45	65		
K64	금융업	0.12	23	-0.13	39	-0.12	42
K65	보험 및 연금업	1.42	1	0.12	17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99	2	-0.14	42	-0.21	58
L68	부동산업	0.11	24	-0.11	37	-0.15	48
M70	연구개발업	-0.63	47	-0.13	40	0.98	3
M71	전문 서비스업	-0.41	39	-0.32	60	-0.20	54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17	19	-0.25	55	0.03	22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0	28	-0.29	58	-0.14	46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17	20	-0.24	53	-0.19	52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0.50	42	-0.17	46	-0.17	51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09	25	-0.27	56	-0.04	32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23	15	-0.02	27	0.02	24
P85	교육 서비스업	0.34	13	0.06	23	0.00	26
Q86	보건업	0.70	4	0.13	16	-0.12	43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0.29	14	0.17	15	-0.03	30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61	6	-0.13	38	-0.03	31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02	27	-0.10	36	-0.13	45
S94	협회 및 단체	0.55	8	0.10	20	0.06	17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46	11	0.10	19	-0.01	27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0.60	7	0.09	22	-0.13	44

(2) 새만금권

- 새만금권에 소재한 세부 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군산시는 1차 금속 제조업 (1.77), 김제시와 부안군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5 〉 새만금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구 분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군산시	1	1차 금속 제조업	1.77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37
	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99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98
	5	음료 제조업	0.96
김제시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7
	2	농업	1.75
	3	식료품 제조업	0.90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51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47
부안군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81
	2	농업	0.69
	3	식료품 제조업	0.44
	4	수도업	0.42
	5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숙박업	0.31

〈 표 26 〉 새만금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구 분	산업(중분류)	군산		김제		부안	
		2023	순위	2023	순위	2023	순위
A01	농업	0.24	14	1.75	2	0.69	2
A02	임업	-0.39	61				
A03	어업	-0.20	49			0.19	7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B06	금속 광업						
B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25	13			0.31	5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10	식료품 제조업	0.42	11	0.90	3	0.44	3
C11	음료 제조업	0.96	5	-0.08	42	0.04	14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28	55	-0.08	39	-0.08	51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38	60	-0.17	57	-0.08	56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43	66			-0.08	48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37	2	0.15	9	-0.06	42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8	20	0.24	7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37	59	-0.15	53	-0.08	50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20	48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90	6	0.01	17	-0.06	45

구 분	산업(중분류)	군산		김제		부안	
		2023	순위	2023	순위	2023	순위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14	50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25	53	-0.07	36	-0.05	41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99	3	0.47	5	0.07	12
C24	1차 금속 제조업	1.77	1	-0.03	25	-0.03	28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23	15	0.09	11	-0.07	47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42	65	-0.13	49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13	42	-0.08	41		
C28	전기장비 제조업	-0.09	38	-0.07	35	-0.07	46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0	32	-0.05	32	-0.09	59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43	8	0.51	4	-0.09	60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42	10	-0.16	55	-0.08	55
C32	가구 제조업	-0.25	52	0.03	15	-0.06	44
C33	기타 제품 제조업	-0.03	34	-0.07	37	-0.04	32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21	16	0.00	18	0.00	22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98	4	1.87	1	0.81	1
E36	수도업	-0.14	43			0.42	4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33	12	0.28	6	0.14	10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68	7	0.05	14	-0.01	24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41	종합 건설업	-0.05	36	-0.03	23	-0.05	40
F42	전문직별 공사업	0.01	29	-0.03	22	0.02	20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06	37	-0.03	24	-0.05	36
G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19	46	-0.02	20	-0.04	33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0.02	28	-0.04	28	0.02	19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09	19	-0.04	27	-0.02	27
H50	수상 운송업	0.42	9			0.15	9
H51	항공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09	18	-0.07	38	-0.04	31
I55	숙박업	0.07	21	-0.11	45	0.31	6
I56	음식점 및 주점업	0.03	26	-0.06	33	0.01	21
J58	출판업	-0.41	63	-0.17	59	-0.08	57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32	57	-0.14	52	-0.08	53
J60	방송업						
J61	우편 및 통신업	-0.11	40	0.05	13	0.03	15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42	64	-0.17	58		
J63	정보서비스업	-0.40	62			-0.09	58
K64	금융업	-0.15	44	-0.04	29	0.03	17
K65	보험 및 연금업	0.05	25	-0.08	40	-0.03	30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22	51	-0.16	56	-0.04	35
L68	부동산업	-0.10	39	-0.12	47	-0.05	39
M70	연구개발업	-0.32	58	-0.09	44	-0.08	49
M71	전문 서비스업	-0.30	56	-0.15	54	-0.08	52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16	45	-0.08	43	-0.05	37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7	54	-0.11	46	-0.06	43

구 분	산업(중분류)	군산		김제		부안	
		2023	순위	2023	순위	2023	순위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04	35	-0.14	51	-0.05	38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0.19	47	-0.13	48	-0.08	54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02	33	-0.04	30	-0.04	34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1	30	0.18	8	0.17	8
P85	교육 서비스업	0.03	27	-0.05	31	-0.01	25
Q86	보건업	0.00	31	-0.02	21	-0.01	26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0.06	22	0.08	12	0.03	16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2	50	0.02	16	0.10	11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12	41	-0.03	26	-0.03	29
S94	협회 및 단체	0.05	23	0.15	10	0.06	13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05	24	-0.02	19	0.00	23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0.11	17	-0.06	34	0.02	18

(3) 동북권

- 동북권에 소재한 세부 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진안군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장수군은 임업(0.74), 무주군은 숙박업(0.55)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7 〉 동북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구 분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진안군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61
	2	농업	0.43
	3	수도업	0.24
	4	식료품 제조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15
	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2
무주군	1	숙박업	0.55
	2	임업	0.46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27
	4	임대업; 부동산 제외	0.26
	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7
장수군	1	임업	0.74
	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57
	3	농업	0.43
	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4
	5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13

〈 표 28 〉 동북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구 분	산업(중분류)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2023	순위	2023	순위	2023	순위
A01	농업	0.43	2	0.10	9	0.43	3
A02	임업	0.11	7	0.46	2	0.74	1
A03	어업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B06	금속 광업						
B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13	5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10	식료품 제조업	0.15	4	0.06	11	0.08	7
C11	음료 제조업	0.04	12	0.13	7	0.06	9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04	50			-0.04	46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07	9	0.00	20	0.07	8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4	44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03	39	-0.04	43	-0.01	21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3	41			-0.03	42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02	15	0.00	24	0.02	13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3	42	-0.04	40	-0.04	45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0.04	46	-0.03	38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4	43			-0.04	48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0.03	36				
C33	기타 제품 제조업	-0.01	25	-0.01	28	-0.01	26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01	22	-0.01	26	-0.02	29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61	1	0.27	3	0.57	2
E36	수도업	0.24	3	0.04	12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15	5	0.15	6	0.10	6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02	17	-0.03	38	0.00	20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41	종합 건설업	-0.01	24	0.00	19	0.01	17
F42	전문직별 공사업	0.02	16	0.02	14	0.02	14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03	38	-0.03	34	-0.03	43

구 분	산업(중분류)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2023	순위	2023	순위	2023	순위
G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02	33	-0.03	33	-0.02	32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0.00	21	0.00	21	-0.01	22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01	30	-0.01	27	-0.02	34
H50	수상 운송업						
H51	항공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01	28	0.00	18	-0.03	39
I55	숙박업	0.05	10	0.55	1	0.00	18
I56	음식점 및 주점업	-0.01	23	0.00	22	-0.01	24
J58	출판업	-0.04	52	-0.04	45	-0.03	44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03	40	-0.04	42		
J60	방송업			-0.03	36		
J61	우편 및 통신업	0.05	11	0.02	13	0.03	12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04	51				
J63	정보서비스업						
K64	금융업	0.03	14	0.00	23	0.02	16
K65	보험 및 연금업	-0.01	29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04	49	-0.04	44	-0.04	47
L68	부동산업	-0.04	48	-0.03	39	-0.03	40
M70	연구개발업	0.00	19	-0.04	47	-0.02	30
M71	전문 서비스업	-0.04	47	-0.04	41	-0.03	41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03	35	-0.02	32	-0.02	33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2	34	-0.03	35	-0.02	31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04	46	0.02	16	-0.03	36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0.04	45	-0.03	37	-0.03	37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03	37	0.26	4	-0.03	35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2	6	0.11	8	0.14	4
P85	교육 서비스업	0.00	20	-0.01	25	0.00	19
Q86	보건업	-0.01	26	-0.02	31	-0.01	27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0.02	18	0.02	15	0.02	15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3	13	0.17	5	-0.01	23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02	32	0.01	17	0.06	10
S94	협회 및 단체	0.08	8	0.09	10	0.04	11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01	27	-0.02	29	-0.01	25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1	31	-0.02	30	-0.01	28

(4) 서남권

- 서남권에 소재한 세부 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정읍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73), 고창군은 어업(1.43)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9 〉 서남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구 분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정읍시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3
	2	농업	1.09
	3	식료품 제조업	0.52
	4	1차 금속 제조업	0.43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37
고창군	1	어업	1.43
	2	농업	1.34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76
	4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3
	5	식료품 제조업	0.32

〈 표 30 〉 서남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구 분	산업(중분류)	정읍시		고창군	
		2023	순위	2023	순위
A01	농업	1.09	2	1.34	2
A02	임업	0.27	6	0.05	12
A03	어업			1.43	1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B06	금속 광업				
B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17	10	0.73	4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10	식료품 제조업	0.52	3	0.25	6
C11	음료 제조업	0.25	7	0.32	5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04	21	-0.09	54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8	62	-0.09	57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18	61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04	37	-0.02	29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37	5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14	55	-0.08	47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10	17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02	22	-0.07	44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09	43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9	18	-0.05	35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19	9	0.06	11
C24	1차 금속 제조업	0.43	4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13	53	-0.03	3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7	60	-0.09	58

구 분	산업(중분류)	정읍시		고창군	
		2023	순위	2023	순위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17	59	-0.08	52
C28	전기장비 제조업	-0.11	48	-0.07	4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12	51	-0.09	56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1	31	-0.09	53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1	50		
C32	가구 제조업	-0.06	40	-0.04	34
C33	기타 제품 제조업	-0.10	46	-0.03	32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00	27	0.00	21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3	1	0.76	3
E36	수도업	0.22	8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15	13	0.03	16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10	16	0.01	19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41	종합 건설업	-0.05	39	0.00	23
F42	전문직별 공사업	0.02	23	0.03	17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03	35	-0.06	39
G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07	41	-0.01	28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0.01	26	0.00	20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03	32	-0.04	33
H50	수상 운송업				
H51	항공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11	49	-0.06	42
I55	숙박업	-0.04	38	0.05	13
I56	음식점 및 주점업	-0.03	34	-0.01	24
J58	출판업	-0.18	63	-0.08	51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15	57	-0.07	46
J60	방송업				
J61	우편 및 통신업	0.11	15	0.02	18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19	65		
J63	정보서비스업	-0.18	64	-0.09	55
K64	금융업	-0.03	33	0.04	15
K65	보험 및 연금업	0.09	20	-0.05	37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09	44	-0.08	48
L68	부동산업	-0.11	47	-0.06	40
M70	연구개발업	-0.03	36	-0.07	43
M71	전문 서비스업	-0.15	56	-0.08	50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08	42	-0.05	36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12	52	-0.05	38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14	54	-0.08	49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0.16	58	-0.06	41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09	45	-0.02	30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9	19	0.10	10
P85	교육 서비스업	0.00	29	-0.01	26
Q86	보건업	-0.01	30	0.00	22

구 분	산업(중분류)	정읍시		고창군	
		2023	순위	2023	순위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0.17	11	0.11	9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4	14	0.13	8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00	28	0.04	14
S94	협회 및 단체	0.16	12	0.17	7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02	24	-0.01	27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1	25	-0.01	25

(5) 동남권

- 동남권에 소재한 세부 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남원시와 임실군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창군은 농업(0.39)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1 〉 동남권 세부시군별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구 분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순위	중분류	NOHI
남원시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3
	2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21
	3	임업	0.49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48
	5	음료 제조업	0.4
임실군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79
	2	임업	0.5
	3	농업 / 식료품 제조업	0.21
	4	수도업	0.18
	5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15
순창군	1	농업	0.39
	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31
	3	수도업	0.28
	4	음료 제조업	0.21
	5	식료품 제조업	0.17

〈 표 32 〉 동남권 산업별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구분	산업(중분류)	남원		임실		순창	
		2023	순위	2023	순위	2023	순위
A01	농업	0.25	6	0.21	4	0.39	1
A02	임업	0.49	3	0.50	2	0.14	6
A03	어업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B06	금속 광업						
B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21	2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10	식료품 제조업	0.23	7	0.21	3	0.17	5
C11	음료 제조업	0.40	5	-0.03	34	0.21	4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08	40	-0.04	43	0.06	11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2	56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48	4	0.02	16	-0.01	29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2	29	-0.03	36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10	46	-0.04	39	-0.03	41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03	16	-0.03	35	-0.03	42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11	48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11	50			-0.04	51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10	10	0.05	9	0.12	7
C24	1차 금속 제조업	-0.08	43			-0.02	35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7	38	-0.04	41	-0.04	49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2	5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12	57				
C28	전기장비 제조업	-0.12	55	-0.04	38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11	53	-0.04	48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11	49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0.08	39	0.03	12	0.04	12
C33	기타 제품 제조업	-0.07	37	-0.03	32	0.01	17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02	30	-0.01	25	0.00	24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30	1	0.79	1	0.31	2
E36	수도업			0.18	5	0.28	3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05	14	0.15	6	0.07	10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02	31	0.00	20	0.01	20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41	종합 건설업	0.02	19	0.02	14	0.00	23
F42	전문직별 공사업	0.08	12	0.01	17	0.03	14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02	28	-0.05	50	-0.03	40
G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04	34	-0.03	33	-0.02	34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0.02	21	-0.01	26	-0.01	27

구분	산업(중분류)	남원		임실		순창	
		2023	순위	2023	순위	2023	순위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03	33	0.00	18	-0.03	36
H50	수상 운송업						
H51	항공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05	35	-0.04	40	0.00	22
I55	숙박업	0.10	11	-0.01	27	0.01	18
I56	음식점 및 주점업	0.00	24	-0.01	24	0.00	26
J58	출판업	-0.12	59	-0.05	49	-0.04	48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11	52			-0.03	38
J60	방송업						
J61	우편 및 통신업	0.04	15	0.05	10	0.02	16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13	60				
J63	정보서비스업					-0.04	47
K64	금융업	0.03	17	0.02	15	0.02	15
K65	보험 및 연금업	0.00	25	-0.04	47	-0.02	32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08	41	-0.05	51	-0.04	52
L68	부동산업	-0.07	36	-0.04	45	-0.03	43
M70	연구개발업	-0.11	54	-0.04	44	-0.02	33
M71	전문 서비스업	-0.10	47	-0.04	46	-0.04	46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03	32	0.00	19	-0.03	44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8	42	-0.03	31	-0.03	37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09	45	-0.04	37	-0.04	50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0.11	51	-0.04	42	-0.03	45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09	44	0.00	21	-0.03	39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4	9	0.10	7	0.08	9
P85	교육 서비스업	0.00	26	-0.01	22	0.00	21
Q86	보건업	0.00	23	-0.01	28	0.00	25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0.08	13	0.03	11	0.03	13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1	8	-0.01	29	-0.01	28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02	18	0.03	13	0.01	19
S94	협회 및 단체	0.02	20	0.07	8	0.08	8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01	27	-0.02	30	-0.01	30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1	22	-0.01	23	-0.01	31

라. 시사점

● 전북의 산업 구조적 특징

- 전북 전체 산업집중도 지수 분석 결과, 전기·가스 공급업(12.91)이 압도적 1위로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집중도를 보임. 이는 전북의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공공적 성격의 전기·가스 공급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산업집중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특정 산업이 이 지역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발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낮아 나타나는 통계적 특성으로 볼 수 있음
- 농업(8.17) 기반도 강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음료 제조업(4.34), 식료품 제조업(4.20) 등 식음료 제조업이 연계 발달함. 새만금권(2.69), 서남권(2.43), 고창 어업(1.43) 등에서 1차 산업 특화가 두드러짐

● 제조업·서비스업 기반 취약

- 반면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전국 대비 크게 취약: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1.15), 의료·정밀기기(-1.30), 기계장비(-0.87), 전기장비(-0.75) 등 대부분 음수
- 지식기반 서비스업도 취약: 전문서비스(-0.93), 사업지원서비스(-0.85), 컴퓨터 프로그래밍(-1.44) 등은 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 중추도시권(전주)에서만 보험·연금(1.30), 보건(0.60) 등 일부 서비스업 집중도가 양수를 기록함
- 2022년 대비 주력산업(전기·가스, 농업) 집중도는 유지되나, 제조업 다각화는 진전이 더딘 상황

● 권역별 특성 및 발전 방향

- 중추도시권: 자동차(완주), 금융·보험(전주) 중심 → 첨단 제조업 유치 및 광역시 기능 강화 필요
- 새만금권: 1차 금속(군산), 농식품 복합 → 새만금 개발 연계 산업단지 고도화
- 동북권·서남권·동남권: 1차 산업+관광(무주) 중심 → 6차 산업화 및 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추진

● 정책적 시사점

- 현재 전북은 에너지·농업 특화가 명확하나, 향후 신산업 육성 및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다음 분야의 집중 육성이 필요함
 - ① 에너지 연관 산업: 신재생 인프라 활용 ESS, 수소, 이차전지 소재 등
 - ② 농생명 바이오: 스마트팜, 농생명 산업 등 농업 기반 고도화
 - ③ 첨단 제조업: 새만금·전주 거점 첨단 제조 클러스터 조성
 - ④ 지식기반 서비스: R&D, 엔지니어링, ICT 서비스 등 산업 다각화
- 전북의 주축산업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집중도가 낮은 첨단 제조·지식서비스 분야 육성을 통한 균형적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함

4.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시장 현황

가. 지역 인구구조 현황

- 2024년 기준 전북 인구수는 총 1,782,485명으로 전국 대비 3.5% 수준으로 나타남
- 전북 전체 인구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0.7%로 나타나며 세부 시·군별로 보면 2.3% 증가한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3.5% 수준으로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모든 시·군에서 인구 감소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지역 소멸 위험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주요 도시에서도 지속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무주군, 임실군 등 농촌지역의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표 33 〉 전국 및 전북지역 인구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20~’24)
전국		51,829,023	51,638,809	51,439,038	51,325,329	51,217,221	-0.3
전북 전체		1,835,392	1,817,186	1,804,548	1,794,972	1,782,485	-0.7
전국 대비 비중		3.5	3.5	3.5	3.5	3.5	-
지역별	전주시	666,177	666,170	661,259	652,807	646,172	-0.8
	군산시	273,651	271,126	269,270	268,423	267,461	-0.6
	익산시	286,990	282,572	278,815	276,043	274,396	-1.1
	정읍시	111,239	108,967	107,781	106,686	105,422	-1.3
	남원시	81,615	80,319	78,910	77,961	76,972	-1.5
	김제시	84,326	82,655	83,628	84,115	83,921	-0.1
	완주군	94,835	94,151	96,011	101,982	103,737	2.3
	진안군	25,730	25,309	24,958	24,936	24,651	-1.1
	무주군	24,252	23,940	23,781	23,578	23,366	-0.9
	장수군	22,436	22,019	21,709	21,415	21,109	-1.5
	임실군	27,604	27,003	26,849	26,361	26,003	-1.5
	순창군	28,164	27,168	27,087	27,179	27,294	-0.8
	고창군	55,424	54,200	53,440	53,267	52,683	-1.3
	부안군	52,949	51,587	51,050	50,219	49,298	-1.8

※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2024년 기준 전북 남성 인구 수는 총 891,984명, 여성 인구 수는 890,501명으로 나타나며 성비(여성 100명 당 남성 수)는 100.2로 나타남

〈 표 34 〉 전북 성별 인구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2024년		
		남성	여성	성비	남성	여성	성비
전국		25,841,029	25,987,994	99.4	25,498,324	25,718,897	99.1
전북 전체		914,168	921,224	99.2	891,984	890,501	100.2
지역별	전주시	327,719	338,458	96.8	317,152	329,020	96.4
	군산시	139,035	134,616	103.3	137,459	130,002	105.7
	익산시	143,046	143,944	99.4	136,996	137,400	99.7
	정읍시	55,497	55,742	99.6	53,141	52,281	101.6
	남원시	39,964	41,651	95.9	37,759	39,213	96.3
	김제시	42,156	42,170	100.0	42,649	41,272	103.3
	완주군	49,046	45,789	107.1	53,715	50,022	107.4
	진안군	12,966	12,764	101.6	12,603	12,048	104.6
	무주군	12,020	12,232	98.3	11,741	11,625	101.0
	장수군	11,158	11,278	98.9	10,603	10,506	100.9
	임실군	14,079	13,525	104.1	13,432	12,571	106.8
	순창군	13,655	14,509	94.1	13,466	13,828	97.4
	고창군	27,437	27,987	98.0	26,457	26,226	100.9
	부안군	26,390	26,559	99.4	24,811	24,487	101.3

※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2024년 기준 전북 연령대별 인구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북은 전반적으로 고령층 비중이 매우 높은 전형적 저출생·고령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60세 이상이 591,89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50대, 19세 이하,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인구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높은 비중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등 대부분 농촌지역은 고령층의 비중이 40% 내외 수준으로 매우 높음
- 반면, 전주시, 익산시는 전북 내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전국의 고령자 비율 대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표 35 〉 전북 연령대별 인구수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총 인구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고령층 (65세 이상)		
								인구수	비중	
전국	51,217,221	7,759,383	5,955,656	6,624,563	7,722,823	8,706,370	14,448,426	10,256,782	20.0	
전북 전체	1,738,690	256,451	181,258	172,652	234,476	301,960	591,893	439,263	25.3	
지 역 별	전주시	635,651	107,526	81,165	75,967	95,686	109,608	165,699	117,495	18.5
	군산시	258,047	40,517	25,364	26,037	39,223	45,616	81,290	59,458	23.0
	익산시	268,001	38,638	30,163	26,402	35,386	48,173	89,239	64,800	24.2
	정읍시	102,127	12,928	8,681	7,783	12,101	18,168	42,466	32,647	32.0
	남원시	75,647	9,792	5,974	5,548	8,552	13,665	32,116	24,831	32.8
	김제시	80,635	9,111	6,442	6,404	8,735	13,192	36,751	28,533	35.4
	완주군	99,279	14,697	9,052	11,018	13,437	16,743	34,332	25,240	25.4
	진안군	24,161	2,334	1,556	1,352	2,077	4,186	12,656	9,725	40.3
	무주군	23,032	2,448	1,527	1,415	2,323	4,002	11,317	8,755	38.0
	장수군	20,663	2,246	1,258	1,195	2,042	3,486	10,436	8,243	39.9
	임실군	25,577	2,414	1,612	1,618	2,247	4,158	13,528	10,617	41.5
	순창군	26,822	3,092	1,990	1,618	2,734	4,488	12,900	10,126	37.8
	고창군	50,982	5,702	3,223	3,207	4,989	8,393	25,468	20,222	39.7
	부안군	48,066	5,006	3,251	3,088	4,944	8,082	23,695	18,571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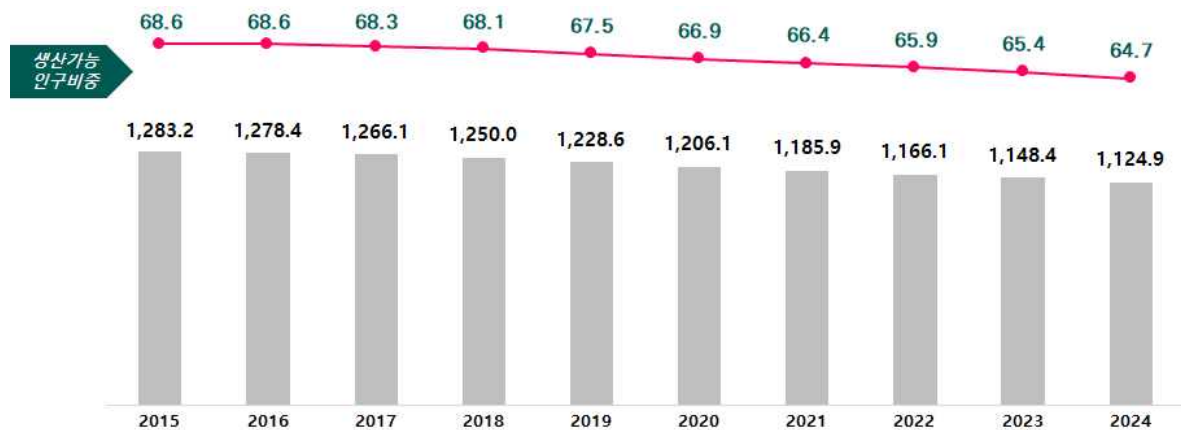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나. 경제활동 참가율

- 전북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4년 인구 수 기준 1,124,944명으로 전체 인구의 64.7% 수준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5년 128만 3천 명에서 2024년 112만 4천 명으로 감소하며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임
 - 2015-2024년 전북의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5%로 나타나며 14세 이하 인구수는 연평균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은 청년·중장년 감소와 고령층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노동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한편, 돌봄·의료 등 고령친화 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

〈 그림 3 〉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 변화

(단위 : 천 명, %)



〈 표 36 〉 전북지역 인구 추이

(단위 : 십억 원)

구 분		2015	2019	2024	연평균 증가율 ('14~'23)
전북 전체 인구수		1,869,711	1,818,917	1,738,690	-0.8
14세 이하		252,966	219,684	174,483	-4.0
15세 이상		1,616,745	1,599,233	1,564,207	-0.4
	15-64세	1,283,221	1,228,557	1,124,944	-1.5
	65세 이상	333,524	370,676	439,263	3.1

※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2024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5.4%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전국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64.5%)으로 나타나며,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0%로 매우 높은 수준임(전국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47.3%)

〈 표 37 〉 전북지역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북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61.5	62.6	63.7	64.9	65.4
15 - 64세	66.4	67.5	68.5	69.6	70.4
15 - 19세	4.3	6.2	7.2	5.3	3.9
20 - 29세	48.1	52.0	55.0	52.4	57.3
30 - 39세	79.0	76.4	76.8	79.5	81.5
40 - 49세	79.3	81.4	82.7	79.6	80.9
50 - 59세	78.1	77.0	78.4	79.6	82.9
60세 이상	51.6	53.8	54.4	54.4	56.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 단위 인구순이동률을 비교한 결과, 전북은 전 기간 동안 순유출 상태가 지속되며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2020~2022년 코로나19 등으로 인구순이동률은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2024년 다시 -0.7%로 악화되어 도외 순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 도 단위 지역과 비교하여도 전 기간 순유출 추세가 유지되는 지역으로 나타나 청년층 유출·산업경쟁력·고용기회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그림 4 〉 도 단위 인구순이동률 추이

(단위 : 명)



- 연령별 인구순이동 추이를 보면, 전북의 인구유출은 특히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에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20대의 경우 진학, 취업 등으로 타 지역을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30대 또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출이 유지되고 있음
- 반면, 40대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순유입 또는 소폭 순유출 수준을 보이며, 50대는 매년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귀농귀촌, 지역 내 정책 등의 흐름이 보임
- 즉, 청년층 순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반면, 중년·고령층 중심으로 일부 순유입이 발생하면서 전북의 인구구조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인구 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음

〈 표 38 〉 전북지역 연령별 인구이동

(단위 : 명)

구 분	순이동				시도 간 전출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전북 전체	-5,801	-5,115	-4,457	-6,060	67,279	60,626	58,422	60,546
15 - 19세	-652	-869	-585	-886	3,458	3,489	3,312	3,515
20 - 29세	-7,266	-7,518	-6,396	-6,908	24,448	23,264	21,897	23,109
30 - 39세	-653	-609	-719	-662	11,098	9,529	9,454	9,717
40 - 49세	367	713	581	522	7,923	6,742	6,478	6,510
50 - 59세	1,113	1,518	1,389	925	6,736	5,875	5,858	6,197
60세 이상	1,239	1,760	1,222	864	8,744	7,407	7,460	7,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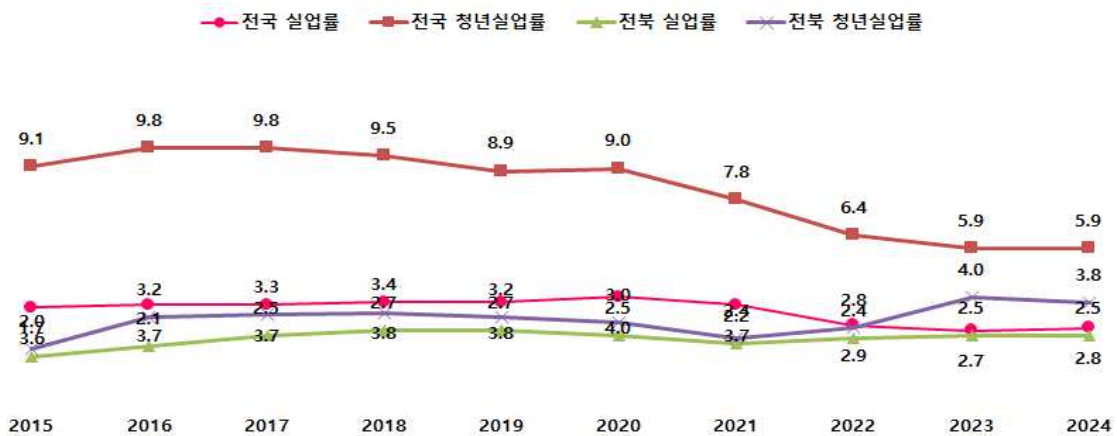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 연령별 이동자 수

다. 전북 주요 고용지표 현황

- 전북의 실업률은 2.5%로 전국 평균 2.8% 대비 0.3%p 낮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임
- 전북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8.6% 수준으로 2015년부터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전북 청년(15-29세) 실업률 : '15년 5.7%→'20년 9.1%(증가)→'24년 8.6%(감소)
- 전북 전체 실업률의 경우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청년 실업률은 전국(5.9%)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림 5 〉 연도별 전북 실업률 추이

(단위 : %)



- 최근 5년간 전북의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61.5%에서 2024년 64.5%로 약 3.0%p 상승하였으며, 동일 기간 고용률은 59.9%에서 62.7%로 증가해 지역 노동시장 참여가 서서히 확대되고 있음
 - 전북의 고용지표 총괄표를 보면 경제활동인구가 1,013천 명이며, 이 중 취업자 수가 988천 명, 실업자 수가 26천 명 수준임.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 기준 65.4%로 나타남
- 고용률은 과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2024년 기준 전북 고용률은 63.8%로 전국 대비 1.1%p 높음
 - 그러나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인구 감소 및 노동공급 축소 상황 속에서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산업 전반의 회복과 지역 내 노동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절대적인 취업자 규모는 대도시권 대비 여전히 낮고, 고령층 비중이 높아 고용지표 개선이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표 39 〉 전북지역 고용지표 총괄

(단위 : 천 명, %)

구 분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전 북	2020	956	932	24	61.5	2.5	59.9	64.6
	2021	974	953	21	63.0	2.0	61.2	66.1
	2022	992	968	24	63.7	2.4	62.2	66.8
	2023	1,008	983	25	64.9	2.5	63.3	67.8
	2024	1,013	988	26	65.4	2.5	63.8	68.7
전 국	2020	28,012	26,904	1,108	62.5	4.0	60.1	65.9
	2021	28,310	27,273	1,037	63.0	4.0	60.5	66.5
	2022	28,922	28,089	833	63.9	2.9	62.1	68.5
	2023	29,203	28,416	787	64.3	2.7	62.6	69.2
	2024	29,399	28,576	823	64.5	2.8	62.7	69.5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북 전체 고용률은 63.2%,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나타나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용 수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2025년 상반기 전북 14개 시군별 고용현황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무주군이 7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수군, 진안군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률 또한 무주군이 76.2%로 가장 높았음
 - 한편, 경제활동인구수가 가장 많은 전주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62.6%이며, 고용률은 60.7% 수준임
- 전북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면서도, 도시와 농촌 간 고용률 격차가 뚜렷한 구조를 보이는데, 도시 지역은 청년층·서비스업 중심의 노동시장 특성상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률이 낮은 반면, 농촌 지역은 고령층·자영업·농업 중심 구조로 고용률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표 40 〉 2025년 상반기 전북 시군별 고용지표 총괄

(단위 : 천 명, %)

구 분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북 전체		1,001	982	20	69.6	68.8	73.2
시 군	전주시	354	344	10	62.6	60.7	67.0
	군산시	141	139	3	60.8	59.7	66.0
	익산시	154	151	3	63.3	62.1	67.2
	정읍시	61	60	1	68.1	66.9	72.8
	남원시	45	44	1	69.0	68.3	75.5
	김제시	50	49	1	69.6	68.2	72.4
	완주군	61	60	1	65.9	64.7	66.9
	진안군	15	15	0	74.6	74.5	78.2
	무주군	15	15	0	76.3	76.2	79.7
	장수군	13	13	0	76.0	75.6	75.6
	임실군	15	15	0	71.0	70.2	77.6
	순창군	16	16	0	72.4	71.6	71.5
	고창군	31	31	0	70.2	70.1	74.7
	부안군	30	30	0	74.3	74.0	79.1

※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전국 대비 안정적인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질 수준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비중은 전북이 2024년 42.6%로 전국 평균(38.2%)보다 약 4.4%p 높은 수준이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44%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전북의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8.7만 원으로 전국 1인당 월평균 임금의 84.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월평균 임금액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2.8% 정도 수준으로 전국 기준 연평균 증가율(3.7%)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전북은 충북·경북·전남과 유사한 임금 수준을 보이거나, 서울, 울산 등 주요 광역시 대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 산업의 주력산업 업종 구성, 부가가치 수준과 직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재 등으로 인한 차이로 보임

〈 표 41 〉 전북 월평균 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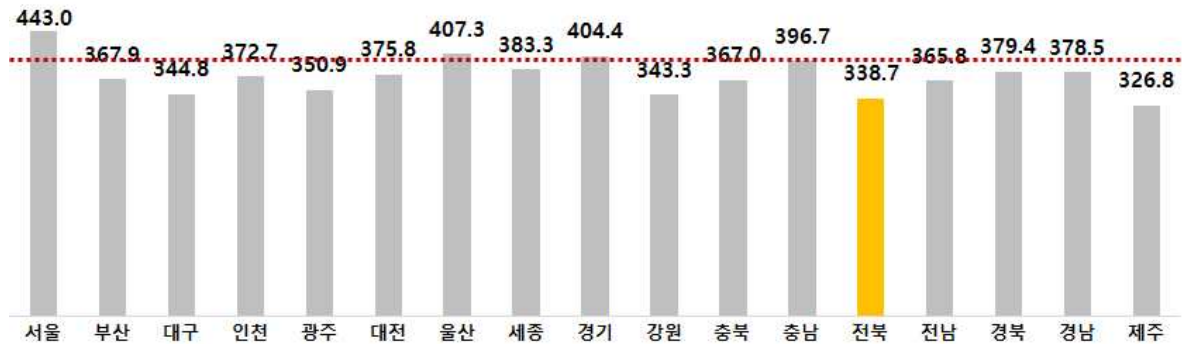
(단위 : %, 원)

구 분	비정규직 비율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6.3	38.4	37.5	37.0	38.2	3,447,287	3,581,564	3,717,328	3,843,191	3,988,724
전북	44.1	44.7	44.0	44.4	42.6	3,028,036	3,082,279	3,192,759	3,271,052	3,386,856

※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그림 6 〉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액(2024년 기준)

(단위 : 만 원)



- 지역별 고용조사 상 전국과 월평균 임금의 차이를 보면 2024년 기준 약 6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북 전 산업과 제조업의 월평균 급여수준을 보면, 제조업이 379만 원으로 전북 전체(339만 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 제조업 월평균 임금 대비 89.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전북지역 내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 거주 인력의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 표 42 〉 전북 제조업 월평균 임금액

(단위 : 원)

구 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액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447,287	3,581,564	3,717,328	3,843,191	3,988,724
제조업	3,526,827	3,687,654	3,838,347	3,993,546	4,216,533
전북	3,028,036	3,082,279	3,192,759	3,271,052	3,386,856
제조업	3,270,875	3,308,523	3,486,411	3,655,221	3,786,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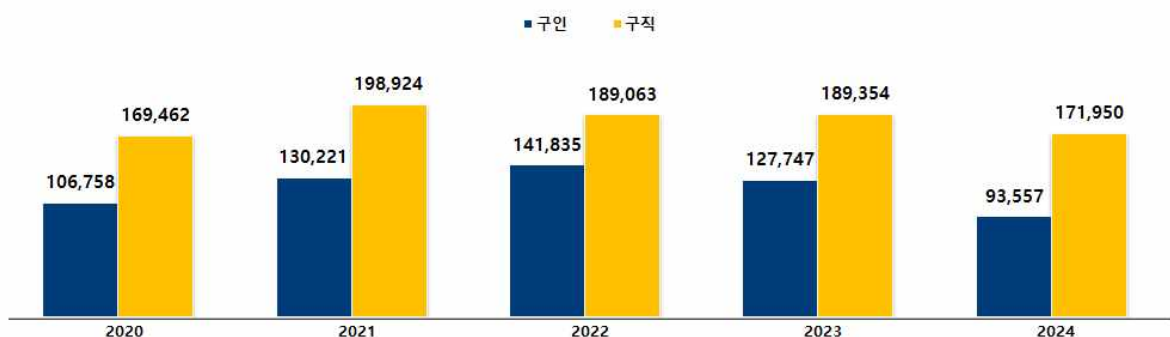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라. 구인구직 현황

- 전북의 구인·구직 추이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업의 구인인력은 93,557명으로 구직인력에 비해 54.4% 수준임
- 전북의 구인인력 추이를 보면, 2021년~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구직인원은 2021년 약 19만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7 〉 전북지역 구인구직 현황

(단위 : 건, %)



- 취업건수를 보면, 2024년 기준 60,214건으로 나타났으며 직전연도(84,757건) 대비 71.0% 수준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구인인원 대비 구직인원의 비중인 구인배수 또한 0.54로 202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직전 연도(0.67) 대비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표 43 〉 전북지역 구인구직 동향

(단위 : 건, %)

구 분		구인	구직	취업건수	구인배수
전북	2020	106,758	169,462	77,675	0.63
	2021	130,221	198,924	89,192	0.65
	2022	141,835	189,063	82,699	0.75
	2023	127,747	189,354	84,757	0.67
	2024	93,557	171,950	60,214	0.54

※ 출처- 고용노동부(2019-2023), 워크넷 구인구직DB *구인배수 : 신규 구인인원/신규 구직인원

*단, 워크넷 구인·구직현황은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 상황만을 포함하므로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구직상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2024년 기준 직종별 구인·구직현황을 보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구인인원은 경영·행정·사무직, 제조 단순직,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순으로 구인인원이 많았으며, 구직인원은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료직, 사회복지·종교직 등의 순임
- 한편, 구인배수 기준으로 보면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농림어업직의 경우 1이상으로 구직인력에 비해 구인인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표 44 〉 전북지역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KECO 중분류)

(단위 : 건, %)

구 분	구인인력	구직인력	취업건수	구인배수
전북 전체(2024)	93,557	171,950	60,214	0.54
관리직(임원·부서장)	1,026	3,482	1,010	0.29
경영·행정·사무직	11,780	31,802	9,964	0.37
금융·보험직	254	1,147	312	0.22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56	79	20	0.71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56	600	189	0.26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87	2,427	544	0.08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44	3,175	1,240	0.5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056	5,299	1,748	0.39
교육직	900	3,896	1,036	0.23
법률직	64	401	98	0.16
사회복지·종교직	8,217	13,035	5,491	0.63
경찰·소방·교도직	-	301	45	0.00
군인	-	47	4	0.00
보건·의료직	5,143	13,844	5,661	0.37
예술·디자인·방송직	732	4,512	1,043	0.16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92	717	225	0.41
미용·예식 서비스직	225	2,767	496	0.08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96	676	207	0.44
음식 서비스직	4,498	9,380	2,974	0.48
경호·경비직	1,989	3,627	1,360	0.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8,703	8,819	3,893	0.99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3,141	6,070	2,785	0.52

구 분	구인인력	구직인력	취업건수	구인배수
전북 전체(2024)	93,557	171,950	60,214	0.54
영업·판매직	2,463	4,516	1,290	0.55
운전·운송직	4,978	8,734	3,083	0.57
건설·채굴직	2,697	8,289	1,700	0.3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4,233	5,131	1,908	0.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485	2,339	809	1.49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411	5,122	1,720	0.47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96	439	123	0.67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487	970	581	1.53
섬유·의복 생산직	256	362	135	0.71
식품가공·생산직	2,144	2,359	841	0.91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734	1,330	425	0.55
제조 단순직	11,774	12,331	5,315	0.95
농림어업직	5,240	3,901	1,936	1.34

※ 출처- 고용노동부(2021), 워크넷 구인구직DB
구인배수 : 신규 구인인원/신규 구직인원

- 전북지역의 인력 부족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부족률이 2.2%로 2023년에 비해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인력 부족률(2.5%)보다 낮은 수준임
 - 미충원인원은 2020년~2022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임

〈 표 45 〉 전북지역 산업별 인력부족 및 채용예정인원

(단위 : 명, %)

구 분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예정 인원	부족률
2020	334,719	17,753	15,908	1,845	6,264	7,894	1.8
2021	346,323	22,202	19,331	2,871	10,018	11,627	2.8
2022	349,771	23,290	20,075	3,215	10,173	10,773	2.8
2023	355,205	21,243	18,447	2,796	9,205	9,370	2.5
2024	358,351	23,618	21,721	1,897	8,004	8,052	2.2

※ 출처- 통계청.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매년 하반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 2024년 하반기 기준 직종별 부족인원을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의 부족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직,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등의 순임
 - 부족률로 보면,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식품 가공·생산직 등의 순임
- 한편,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직종별 부족인원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경영·행정·사무직의 부족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직,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46 〉 전북지역 산업별 인력부족 및 채용예정인원 (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명, %)

구 분	현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 인원	채용 예정 인원	부족률
전 직 종	358,351	23,618	21,721	1,897	8,004	8,052	2.2
관리직(임원·부서장)	1,114	9	9	-	-	1	0.0
경영·행정·사무직	71,430	2,254	2,033	221	1,212	1,180	1.7
금융·보험직	8,670	275	275	-	30	30	0.3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70	16	13	3	2	2	0.5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373	66	66	-	66	32	4.6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2,371	123	98	25	78	78	3.2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6,141	888	823	65	185	185	1.1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3,493	747	658	89	303	282	2.2
교육직	13,694	1,054	1,054	-	106	314	0.8
법률직	791	28	28	-	1	1	0.1
사회복지·종교직	17,272	909	854	55	498	496	2.8
경찰·소방·교도직	-	-	-	-	-	-	0.0
군인	-	-	-	-	-	-	0.0
보건·의료직	29,568	1,617	1,317	300	1,118	1,099	3.6
예술·디자인·방송직	1,925	88	80	8	44	52	2.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953	253	199	54	91	91	3.0
미용·예식 서비스직	884	135	133	2	12	12	1.3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496	23	21	2	180	180	26.6
음식 서비스직	12,053	1,474	1,416	58	383	389	3.1
경호·경비직	5,071	362	362	-	17	21	0.37

구 분	현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 인원	채용 예정 인원	부족률
전 직 종	358,351	23,618	21,721	1,897	8,004	8,052	2.2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2,373	2,125	2,007	118	699	651	3.0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0,107	764	750	14	125	88	1.2
영업·판매직	17,331	1,132	1,077	55	215	219	1.2
운전·운송직	18,738	771	698	73	351	357	1.8
건설·채굴직	12,608	4,168	4,136	32	381	354	2.9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8,372	882	751	131	410	391	2.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9,365	464	391	73	269	298	2.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9,706	505	420	85	212	219	2.1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922	71	71	-	23	23	1.2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7,141	124	113	11	72	72	1.0
섬유·의복 생산직	1,672	87	80	7	25	25	1.5
식품 가공·생산직	7,063	581	436	145	328	328	4.4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5,456	138	129	9	72	72	1.3
제조 단순직	15,640	1,309	1,049	260	476	492	3.0
농림어업직	1,187	177	175	2	21	21	1.7

※ 자료 : 통계청,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1인 이상 사업체)

※ 자료 : 산업분류 10차 적용

5.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시사점

가. 지역산업 관점

- 전북의 2023년 GRDP는 58.8조 원(전국 대비 2.6%)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연도에 일시적 조정이 관찰됨. 1인당 GRDP는 3,628만 원으로 전국 대비 격차가 지속되며, 전주·군산·익산·완주 4개 시·군에 생산과 인구가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됨
-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건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와 서비스 비중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이나, 서비스 내부에서는 보건복지·전문기술·물류·숙박음식 등 생활·지식 집약 부문이 점진 확대되는 추세임. 제조 내부에서는 식료품, 비금속·금속제품, 기계·운송장비가 증가하는 반면, 섬유 의복·전기전자·정밀기기는 정체 또는 감소가 지속됨
- 사업체 239,757개, 종사자 799,091명으로 절대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3.8%, 3.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1-4인 영세사업체 비중이 88.9%로 높고 300인 이상은 100개 사 내외에 그쳐, 중견·대규모 기업의 부족이 부가가치와 임금 수준의 제약 요인으로 작동함
- 주축 3대 산업의 구조 고도화 필요성이 분명해짐. 농생명바이오는 기능성 식품·메디/케어 푸드·동물용 의약품/사료 등 타깃시장형 상용화로 전환이 진행되고,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은 전동화·자율화 부품과 시험·인증·신뢰성 기반의 양산 전환이 과제가 되며 이 과정에서 전주기(Pre-R&D→R&D 간접→Post-R&D) 지원과 기업 성장사다리의 결속이, 탄소융복합소재는 경량·고기능 핵심소재/부품 중심의 수요지향형 상용화가 요구됨 성과의 관건임

나. 노동시장 관점

- 2024년 인구는 178만 2천 명으로 최근 5년 연평균 -0.7% 감소, 65세 이상 비중은 25.3%로 고령화가 심화됨. 순이동률은 -0.7%로 순유출이 지속되며, 20대의 순유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순유입 경향이 확인됨
- 경제활동참가율은 65.4%, 고용률은 63.8%로 전국을 상회하나, 고용 개선을 견인하는 층은 6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연령 구조의 불균형이 존재함. 실업률은 2.5%로 낮은 수준이나, 청년층은 순유출과 초임·임금 격차로 체감 고용여건이 취약함

-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38.7만 원(전국 84.9%), 제조업은 378.7만 원(전국 제조 89.8%)으로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비정규직 비율은 42.6%로 전국 대비 높음. 임금·고용형태의 질적 격차가 정주 여건과 기업의 인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구인 93,557건, 구직 171,950건, 구인배수 0.54로 노동수급 미스매치가 확인되며, 화학·환경·금속·재료·농림어업·제조단순·돌봄 등 일부 직종은 상대적 구인 우위가 나타남. 부족률은 2.2%로 전국(2.5%)보다 낮지만, 부족 인원은 경영·행정·사무, 보건·의료, 돌봄 등 서비스 직군에 집중되고 부족률은 여행·숙박·오락, 생명과학 R&D, 식품가공 등에서 높게 나타남

다. 종합 시사점

- 전북은 총량 지표의 안정성에 비해 임금·고용형태·연령 구조 측면의 질적 격차가 크고, 산업생태는 영세 구조가 고착되어 중장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주축 3대 산업은 전주기 상용화 인프라(시험·인증·신뢰성·양산성)와 성장사다리 지원의 결속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 전환을 가속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 정주·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특화 채용트랙, 채용약정형·현장기반 훈련, 주거·문화 패키지 등 유입·정착 장치를 병행하고, 임금·고용형태의 질 개선을 위한 공정·자동화·디지털 품질 투자와 연계한 성과기반 인센티브가 요구됨
- 직무 단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화학/환경·금속/재료·전장/로봇 정비·식품가공·돌봄 등 수요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재직자 업스킬과 전환훈련을 확장하고, 시험·인증·표준 대응을 지역 테스트베드와 연동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와 인력 정착을 동시에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1. 기초조사 분석 결과

가. 기초 수요조사 개요

1)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개요

- 「기초 수요조사」는 산업의 인력 및 직업훈련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내 훈련 공급정책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인력양성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
 -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국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참여하여 수행함
- 전북지역의 「2025년 기초수요조사」는 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전화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별·직업별 훈련수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지역인력양성 기본계획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등 지역에서 실시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됨

〈 표 47 〉 「지역훈련수요조사」 조사 설계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조사대상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조사대상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52개 산업 대상 1,000개 사업체
조사대상	인사부서장 1인 (필요시 현업·기술부서장 병행)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화 컨택 후 웹, 팩스, 이메일, 방문조사 병행
조사기준시점	2024년 12월 31일
조사기간	2025년 4월 ~ 11월

- 본 조사는 표본층화 방식으로 산업별(중분류)·규모별(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하여,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구조와 일자리 특성을 반영함

〈 표 48 〉 전북지역 사업체 규모별 조사성공 사업체 수

구 분	조사성공 사업체 수						조사성공률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계
모집단	7,419	4,722	1,438	286	53	13,918	-	-	-	-	-	-
조사목표	336	317	209	99	39	1,000	-	-	-	-	-	-
조사성공	343	330	216	99	24	1,012	102.1	104.1	103.3	100.0	61.5	101.2

주: 조사성공률 = (조사성공사업체/목표표본) * 100

2) 조사 대상 산업

- 「기초 수요조사」 대상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으로 52개 산업이며, 제조업·식료품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전북지역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주요 업종을 포함하여 실시함
- 2022년~2024년 기초수요조사의 시계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틀 구축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함

〈 표 49 〉 조사대상 산업 중분류 현황

번호	산업 중분류 명칭	번호	산업 중분류 명칭
10	식료품 제조업	41	종합 건설업
11	음료 제조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0	수상 운송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5	숙박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8	출판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4	1차 금속 제조업	60	방송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1	우편 및 통신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3	정보서비스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71	전문 서비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2	가구 제조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86	보건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전북지역의 산업 특성상 농생명식품, 이차전지, 건설, 자동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의 심층분석,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3) 조사 내용

- 본 조사의 설문은 기존 2022~2024년 지역훈련수요조사의 표준 조사표를 기반으로 일관성을 유지함
- 설문지 구성은 대분류 기준으로 총 8개로 구성되며, 크게 일반현황, 인력수요, 채용인원 훈련수요, 재직자 훈련수요, 신기술 훈련수요, 외국인근로자 훈련수요, 직업교육추진 시 애로사항 등으로 구성됨
- 특히 신기술 훈련수요 항목은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TF」에서 제시한 24개 신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구성함

〈 표 50 〉 2025년 지역훈련수요조사 주요 조사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I	일반 현황	사업체현황	
		근로자 현황	전체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내국인 종사자 수, 외국인 근로자 수
II	인력수요	현재인원	종사자수, 여성 종사자 수, 종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자 수
		퇴직상황	퇴직자수,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자 수
		채용상황	구인인원, 실제 채용인원, 신입 중 직업계고 채용 인원 수
		채용예정인원	2025년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인원 신입 중 직업계고 채용, 2026년 채용예정인원
III	채용인원 훈련수요	신입직 실제 채용인원	
		신입직 채용인원 중 직업교육훈련 필요인원	
		신입직 필요역량	
		경력직 실제 채용인원	
		경력직 채용인원 중 직업교육훈련 필요인원	
		경력직 필요역량	
IV	재직자 훈련수요	기업 전체 종사자 수	
		종사자 중 직업교육훈련 필요인원(향후1년)	
		직업교육훈련 필요분야	
V	신기술 훈련수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분야 도입 여부	
		도입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 및 종사자 수와 종사자 중 훈련 필요인원, 추가 채용 필요 인력 현황	
		도입 예정 신기술 분야와 해당 분야별 필요 인력	
		신기술 분야 도입·운영 시 필요한 직무분야	
		채용 희망 신기술 분야의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신기술 도입 시 겪는 어려움	
VI	외국인근로자 훈련수요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직업교육훈련 필요인원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걸리는 기간	
		외국인근로자 채용 및 활용에 있어서 애로 정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정부지원제도	
VII	직업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		
VIII	훈련지원 및 채용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동의 요청		

4) 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체계

- 「기초 수요조사」 결과는 전북지역의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인력 양성 전략 수립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됨
- 양성훈련 수요 전망 절차 및 방법
 - (1단계) 지역별로 산업별, 직업별 신규인력 규모 전망 실시.
신규인력 전망 기간은 2025~2027년이며, 산업별(KSIC 중분류), 직업별(KECO 소분류)로 각각 전망 실시
 - (2단계) 지역별로 산업별, 직업별 신규인력에 대해 신입직 및 경력직으로 구분하여 규모를 각각 전망
 - (3단계) 전망한 신입직 및 경력직 신규인력 규모에 2023년 기준 신입직 및 경력직 직업 교육훈련 필요인원 비중을 곱하여 2025~2027년 양성훈련 수요 전망치 도출

〈 그림 8 〉 양성훈련 수요 도출



- 향상훈련 수요 전망 절차 및 방법
 - (1단계) 지역별로 산업별, 직업별 재직자 수 전망 실시. 이때 재직자 수 전망 기간은 2025~2026년이며, 산업별(KSIC 중분류), 직업별(KECO 소분류)로 각각 전망 실시
 - (2단계) 전망한 2025~2026년도 재직자수에 2024년 기준(조사 기준 시점) 종사자수 중 향후 1년 동안 직업훈련 필요인원 비중을 각각 곱하여 2025~2027년 향상훈련 수요 전망치 도출

〈 그림 9 〉 향상훈련 수요 도출



- 「기초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인력양성종합계획」을 비롯한 지역 훈련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됨
 -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주요 관계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훈련·일자리 관련 기관, 지역인자위 네트워크 참여기관 등에도 폭넓게 제공될 예정임
 - 지자체, 교육기관, 산업계, 노동계, 지방노동관서, 전문가 등 다양한 유관단체가 정책 수립과 인사·노무관리(채용 등), 인력양성(직업능력개발 등), 지역 훈련사업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결과적으로 「기초 수요조사」는 전북지역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전환에 대응하는 수요 기반 훈련체계를 확립하고, 중앙 집중형 훈련시스템에서 지역 중심의 인력양성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을 제공함

〈그림 10〉 지역훈련수요조사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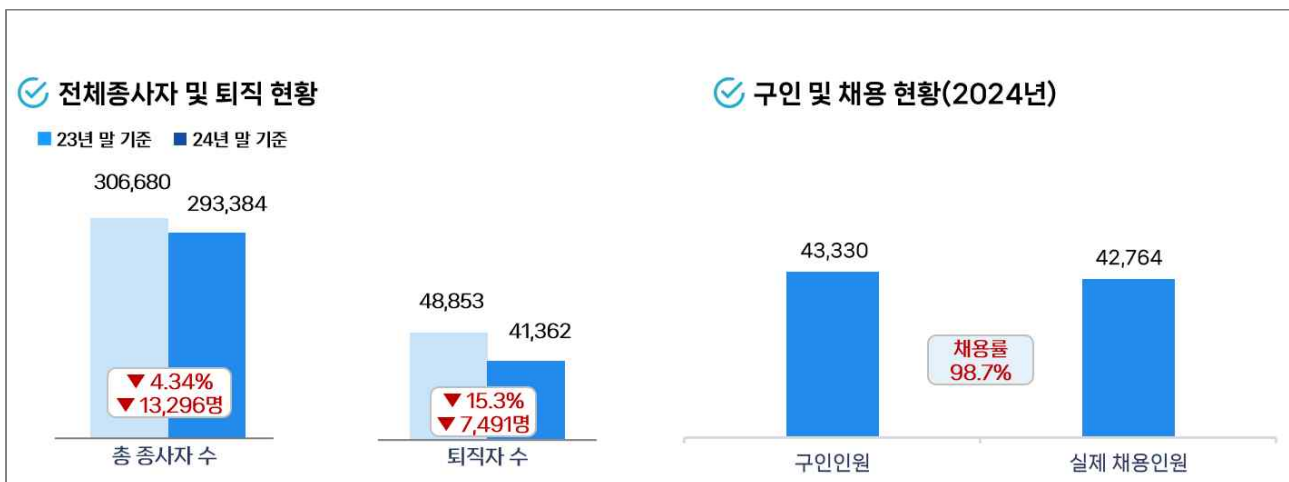
나. 전북특별자치도 기초 수요조사 분석 결과

1) 인력 현황

(1) 산업(업종)별 인력 현황

- 2024년 말(조사 기준 시점) 기준 전북지역 5인 이상 사업체 중 조사 대상 52개 중분류 산업의 종사자는 총 293,384명으로 나타남
 - 전년(306,680명) 대비 전체 종사자 수는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 1년 미만 신입인력 또한 전년(41,523명) 대비 16.6% 감소한 34,638명으로 나타남
 - 업종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가 58,3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업’, ‘종합 건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계층별로 살펴보면, 여성 종사자 수는 총 138,859명이며, 여성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식료품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총 8,974명이며,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의 2024년 전체 퇴직자 수는 41,362명이며,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중 퇴직자 수는 9,472명으로 나타남
 - 퇴직인력이 가장 많은 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업’, ‘종합 건설업’ 순으로 나타남. 해당 업종의 경우, 연간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종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많아 실제 퇴직인력이 모두 많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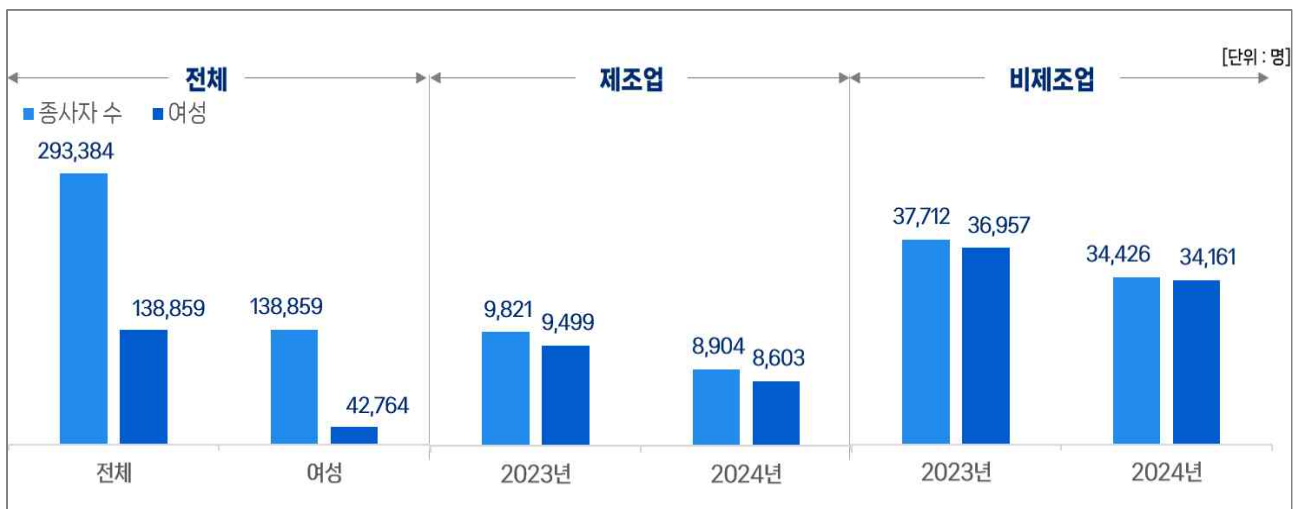
〈 그림 11 〉 2024년 전북지역 인력 현황



- 업종을 제조업/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87,909명으로 나타남
 - 업종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식료품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19,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계층별로 살펴보면 여성 종사자 수는 22,975명이며, 여성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며, ‘전자 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975명이며,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식료품제조업’이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에서 2024년 전체 퇴직자 수는 7,606명이며, 이 중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중 퇴직자 수는 1,558명으로 나타남
 - 제조업에서 퇴직인력이 가장 많은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그림 12 〉 2024년 기준 전북지역 인력 현황(제조업/비제조업)



〈 표 51 〉 2024년 전북지역 현원 및 퇴직인원 - 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전체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근속 1년 미만	퇴직자 수	퇴직자 중 근속1년 미만
전 체		293,384	138,859	8,974	34,638	41,362	9,472
제 조 업	제조업 전체	87,909	22,975	7,825	6,227	7,606	1,558
	10 식료품 제조업	19,622	9,863	2,192	1,501	2,131	508
	11 음료 제조업	605	171	15	25	34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579	975	309	162	178	46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6	1,050	22	60	82	5
	15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3	-	-	9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568	291	202	183	213	41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10	362	151	160	216	3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13	154	52	40	18	3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1,175	1,422	234	747	723	78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14	532	48	104	100	9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168	825	579	192	313	10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615	546	431	107	228	98
	24 1차 금속 제조업	1,926	162	251	211	288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8,534	1,167	738	503	451	191
	26 전자 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3,699	1,477	142	351	422	21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88	432	18	100	126	25
	28 전기장비 제조업	3,288	613	254	350	384	5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374	1,104	764	376	336	14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491	1,163	1,023	759	735	11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84	240	279	213	511	65
	32 가구 제조업	302	56	91	23	21	5
	33 기타 제품 제조업	931	365	32	61	87	12

비 제 조 업	비제조업 전체	205,475	115,884	1,149	28,411	33,755	7,914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56	43	2	37	63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720	189	-	67	62	3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44	39	-	37	9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962	285	45	91	102	23
	41 종합 건설업	23,979	4,072	-	2,310	2,756	458
	42 전문직별 공사업	453	41	-	127	127	90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857	90	-	68	95	2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6,639	2,155	149	553	747	61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0,929	4,432	3	1,136	1,614	154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8,795	603	-	1,283	1,992	423
	50 수상 운송업	158	24	-	28	30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971	440	8	202	191	-
	55 숙박업	1,763	700	23	306	303	73
	56 음식점 및 주점업	10,866	7,406	341	2,112	2,315	613
	58 출판업	1,765	553	4	76	209	52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95	160	4	20	53	10
	60 방송업	183	60	-	3	-	-
	61 우편 및 통신업	328	40	-	16	25	6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344	109	2	17	77	-
	63 정보서비스업	168	70	-	38	20	6
	71 전문 서비스업	3,337	1,877	2	398	518	48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160	1,314	-	498	559	67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3	536	-	126	42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9,240	6,168	28	1,163	1,530	258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9,262	4,403	262	2,066	1,760	477
	86 보건업	35,804	27,555	32	3,910	4,550	1,111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58,353	50,347	244	10,918	13,066	3,5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3	694	-	203	212	93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319	1,192	-	399	492	214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933	287	-	205	237	81

(2) 직종(직업)별 인력 현황

-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종사자 인원을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이 45,6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의료직’,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사회복지·종교직’ 순으로 나타남
 - 직종별 종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의 신규인력 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돌봄 서비스직’, ‘보건·의료직’, ‘경영·행정·사무직’ 순임
 - 종사자 계층별로 살펴보면 여성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보건·의료직’, ‘경영·행정·사무직’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제조단순직’, ‘식품 가공·생산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순으로 나타남
-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 퇴직자 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돌봄 서비스직’, ‘보건·의료직’, ‘경영·행정·사무직’ 순으로 나타남
 - 근속 1년 미만자의 퇴직자 수가 가장 많은 직종 또한 ‘돌봄 서비스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료직’ 순으로 나타남
- ‘돌봄 서비스직’, ‘보건·의료직’, ‘경영·행정·사무직’ 등은 인력의 진입과 이탈이 모두 활발한 직종군으로, 해당 분야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인력 순환이 빈번하게 발생함
 - 해당 직군의 경우, 단기적 수요에 따라 인력이 쉽게 유입되지만 근속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근속 유도형 훈련체계 구축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정착 지원이 필요함

〈 표 52 〉 2024년 전북지역 현원 및 퇴직인원 - 직종별

(단위 : 명)

구 분	전체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근속 1년 미만	퇴직자 수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수
전 체	293,384	138,859	8,974	34,638	41,362	9,472
01 관리직(임원·부서장)	13,841	5,052	118	327	217	86
02 경영·행정·사무직	45,623	23,367	227	3,292	3,706	1,021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12	38	-	1	1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96	380	6	62	262	23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813	1,082	-	1,263	1,169	26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825	695	56	591	654	56
21 교육직	262	260	-	38	-	-
22 법률직	915	352	-	124	112	-
23 사회복지·종교직	21,659	18,152	82	2,240	2,414	577
30 보건·의료직	31,205	24,520	-	3,454	4,057	1,008
41 예술·디자인·방송직	1,652	799	2	201	209	22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30	105	-	142	172	105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318	303	-	88	88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171	415	-	236	252	6
53 음식 서비스직	13,436	10,060	339	1,863	2,037	393
54 경호·경비직	1,919	44	2	188	329	12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6,901	24,982	190	8,015	9,524	2,401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0,855	7,627	87	1,522	1,980	351
61 영업·판매직	8,219	3,231	5	1,365	1,970	546
62 운전·운송직	14,525	420	22	1,621	2,333	409
70 건설·채굴직	11,682	428	511	1,209	1,639	462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1,936	1,126	1,234	1,337	1,652	321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6,085	158	833	561	673	152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5,331	480	82	379	584	11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067	-	-	129	106	6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903	362	609	452	583	162
86 섬유·의복 생산직	3,019	944	55	102	122	29
87 식품 가공·생산직	12,168	6,052	1,362	1,243	1,618	627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41	1,609	389	610	584	321
89 제조 단순직	18,590	5,743	2,762	1,950	2,232	310
90 농림어업직	485	73	-	32	8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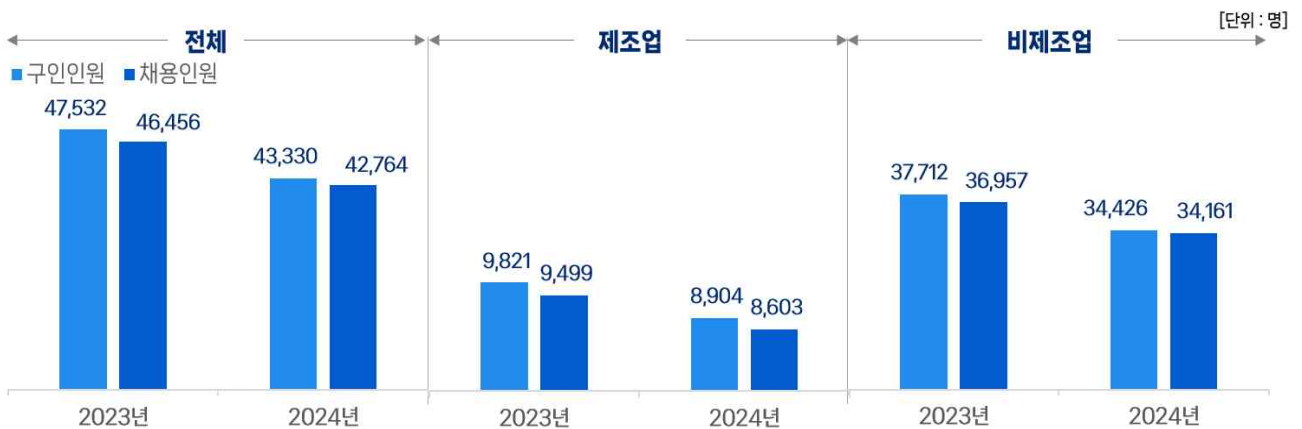
2) 구인구직 현황

(1) 산업(업종)별 인력 수급 현황

- 2024년 말(조사 기준 시점) 기준 전북지역 5인 이상 사업체 중 조사 대상 52개 산업의 전체 구인인원은 43,33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2,764명을 실제 채용하여 채용률은 98.7%로 파악됨
- 업종별 구인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구인인원이 13,0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업’, ‘종합 건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구인인원의 약 30% 이상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식품품 제조업’의 구인인원이 2,031명으로 가장 많음
- 전체 구인인원 중 신입직의 채용 희망인원은 26,110명이며, 경력직 채용 희망 인원은 17,020명으로 집계됨
- 실제 채용인원(42,764명) 기준으로 보면, 신입직의 채용인원은 25,468명(충원율 97.5%), 경력직 채용인원은 17,295명(충원율 100.4%)으로 경력직은 구인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며, 다음으로 ‘보건업’, ‘종합 건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순임
 - 신입직 채용인원(25,468명) 중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순으로 나타남.
이 중 직업계고 채용인원은 177명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에서 가장 많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경력직 채용인원(17,295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합 건설업’,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순으로 나타남
- 구인인원 대비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으로 충원율은 115.8%(구인인원 165명, 채용인원 192명)로 나타남
 -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기타 제품 제조업’이며, 다음으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순으로 조사됨

- 업종을 제조/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조업의 구인인원은 8,904명으로 이 중 8,603명을 실제 채용하여, 충원율은 96.6%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구인인원 34,426명, 실제 채용인원은 34,161명으로 충원율은 99.2% 수준으로 파악됨
 - 구인인원의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전체의 20.5%, 비제조업은 79.5%를 차지하여, 비제조업 중심의 고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구인·채용인원 모두 감소하였으나, 비제조업 부분에서 구인인원 대비 채용인원의 격차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3 〉 구인인원, 채용인원 변화(2023년, 2024년)



〈 표 53 〉 2024년 전북지역 구인인원, 채용인원 현황 - 산업(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구인 인원 (A)	신입직	경력직	채용 인원 (B)	신입직	경력직	미충원 인원 (A-B)
전 체		43,330	26,110	17,220	42,764	25,468	17,295	566
제 조 업	제조업 전체	8,867	6,495	2,372	8,566	6,204	2,362	302
	10 식료품 제조업	2,031	1,829	202	1,945	1,730	215	86
	11 음료 제조업	33	12	21	33	12	21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66	104	61	166	106	59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7	57	-	60	53	7	-
	15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5	-	5	5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88	153	35	197	167	30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4	153	42	165	126	39	2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6	43	3	42	36	7	4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626	1,037	589	1,624	1,035	589	2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4	86	38	112	80	32	12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44	229	115	340	225	115	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7	244	34	250	217	34	27
	24 1차 금속 제조업	324	145	179	286	104	182	37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614	440	174	614	420	193	-
	26 전자 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434	357	77	419	333	86	15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1	118	3	118	110	8	3
	28 전기장비 제조업	416	271	145	398	266	133	1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23	261	262	514	257	257	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12	685	227	941	681	259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8	180	68	228	154	73	20
	32 가구 제조업	28	26	2	28	26	2	-
	33 기타 제품 제조업	158	62	96	82	62	20	76
	비제조업 전체	34,463	19,614	14,848	34,198	19,264	14,934	265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7	17	20	37	17	20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7	52	16	67	46	22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3	11	31	43	11	31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65	123	43	192	123	69	-
	41 종합 건설업	3,443	1,056	2,387	3,425	1,211	2,214	18
비 제 조 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131	91	40	140	91	49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87	57	30	87	57	30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24	777	447	1,190	653	538	33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431	1,108	323	1,573	1,053	520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44	467	877	1,336	497	839	7
	50 수상 운송업	28	6	22	28	6	22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15	164	51	213	155	59	1
	55 숙박업	358	202	156	362	213	149	-
	56 음식점 및 주점업	2,236	1,918	318	2,238	1,847	391	-
	58 출판업	207	75	133	183	55	129	24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4	34	-	34	34	-	-
60 방송업	13	12	1	15	12	3	-
61 우편 및 통신업	17	11	6	17	11	6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67	55	12	72	60	12	-
63 정보서비스업	38	36	2	38	36	2	-
71 전문 서비스업	522	231	291	522	231	291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34	331	203	512	302	210	22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0	108	52	126	116	10	34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469	924	545	1,443	913	531	26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2,197	2,120	77	2,187	2,110	77	10
86 보건업	4,430	2,516	1,913	4,286	2,394	1,892	144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3,050	6,586	6,464	12,907	6,503	6,404	144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7	78	129	203	60	143	4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43	367	76	456	367	89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67	83	184	267	83	184	-

(2) 직종(직업)별 인력 수급 현황

- 직종별 구인 현황을 보면,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의 구인인원이 9,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의료직’, ‘경영·행정·사무직’, ‘사회복지·종교직’ 순으로 나타남
 - 신입직에 대한 구인인원은 ‘돌봄 서비스직’, ‘경영·행정·사무직’ 순으로 많았으며, 경력직 구인인원은 ‘돌봄 서비스직’, ‘보건·의료직’, ‘사회복지·종교직’ 순으로 나타남
- 구인인원 대비 채용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직(임원·부서장)’으로 채용률은 114.5%(구인인원 536명, 채용인원 613명)으로 나타남
 - 반면, 채용률이 가장 낮은 직종은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으로 채용률은 91.9%로 조사됨

〈 표 54 〉 2024년 전북지역 구인인원, 채용인원 현황 - 직종별

(단위 : 명)

구 분	구인 인원 (A)			채용 인원 (B)			미충원 인원 (A-B)
		신입직	경력직		신입직	경력직	
전 체	43,330	26,110	17,220	42,764	25,468	17,295	566
01 관리직(임원·부서장)	536	352	184	613	360	253	-
02 경영·행정·사무직	4,003	3,250	753	3,852	3,118	734	150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	1	-	1	1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14	96	118	214	93	121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22	262	1,061	1,300	333	967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64	315	349	660	298	362	4
21 교육직	38	32	6	38	32	6	-
22 법률직	124	49	76	124	49	76	-
23 사회복지·종교직	2,848	1,052	1,796	3,083	1,109	1,974	-
30 보건·의료직	4,075	2,176	1,900	3,901	2,074	1,827	174
41 예술·디자인·방송직	208	137	71	215	129	86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50	142	9	150	142	9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8	-	88	88	-	88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51	226	25	251	226	25	-
53 음식 서비스직	2,009	1,599	410	2,021	1,519	502	-
54 경호·경비직	270	120	150	270	120	150	-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9,241	4,747	4,493	8,968	4,587	4,381	273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808	1,419	389	1,805	1,419	386	3
61 영업·판매직	1,820	1,552	268	1,800	1,480	320	20
62 운전·운송직	1,984	844	1,141	1,998	863	1,135	-
70 건설·채굴직	2,204	894	1,311	2,186	942	1,244	18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630	1,131	499	1,626	1,092	534	4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888	528	360	816	476	340	72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668	192	476	664	192	472	4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29	84	45	129	84	45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717	537	180	699	513	186	18
86 섬유·의복 생산직	828	327	501	832	329	503	-
87 식품 가공·생산직	1,785	1,622	163	1,691	1,518	173	94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704	620	84	664	592	73	40
89 제조 단순직	2,058	1,774	284	2,041	1,747	294	17
90 농림어업직	64	32	32	64	32	32	-

3) 퇴직인원 - 채용인원 비교

- 퇴직인원과 채용인원을 비교하는 것은 인력 수요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채용인원 - 퇴직인원) > 0 ➡ 인력 초과 유입(over-inflow)
- (채용인원 - 퇴직인원) < 0 ➡ 인력 초과 유출(over-outflow)
- 채용인원이 퇴직인원에 비해 많을 경우, 산업(또는 직종)은 인력수요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대로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적다면 인력 규모를 줄이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음

(1) 산업(업종)별 현황

-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많아 인력이 초과 유입된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합 건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의 경우, 2024년 조사에서 -1,931명의 인력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인력 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건설업 관련 정책 지원 효과, 공공부문 투자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적어 인력의 초과 유출이 나타난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보건업’ 순으로 나타남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도 조사에서는 인력 유입 업종이었으나, 올해는 인력 유출 업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식료품 제조업’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인력 유출이 발생한 업종으로, 인력 확보 및 근속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종사자 규모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내 주요 고용 산업으로서의 비중은 높은 수준임

〈 표 55 〉 인력 유입, 유출 현황 - 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퇴직자 수 (A)	구인인원	채용인원 (B)	채용인원 - 퇴직인원 (B-A)	비 고
전 체		41,362	43,330	42,764	1,402	
제 조 업	제조업 전체	7,606	8,867	8,566	959	
	10 식료품 제조업	2,131	2,031	1,945	-186	유 출
	11 음료 제조업	34	33	33	-1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8	166	166	-12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2	57	60	-22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	5	5	-5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13	188	197	-16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6	194	165	-51	유 출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46	42	24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723	1,626	1,624	901	유 입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0	124	112	12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13	344	340	2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8	277	250	22	
	24 1차 금속 제조업	288	324	286	-2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451	614	614	162	유 입
	26 전자 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422	434	419	-3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6	121	118	-8	
	28 전기장비 제조업	384	416	398	1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6	523	514	178	유 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35	912	941	206	유 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11	248	228	-284	유 출
	32 가구 제조업	21	28	28	8	
	33 기타 제품 제조업	87	158	82	- 6	

비 제 조 업	비제조업 전체	33,755	34,463	34,198	443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3	37	37	-26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2	67	67	6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9	43	43	34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02	165	192	90	
	41 종합 건설업	2,756	3,443	3,425	669	유 입
	42 전문직별 공사업	127	131	140	13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95	87	87	-8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747	1,224	1,190	444	유 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614	1,431	1,573	-41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992	1,344	1,336	-656	유 출
	50 수상 운송업	30	28	28	-2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91	215	213	22	
	55 숙박업	303	358	362	59	
	56 음식점 및 주점업	2,315	2,236	2,238	-77	유 출
	58 출판업	209	207	183	-26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3	34	34	-19	
	60 방송업	-	13	15	15	
	61 우편 및 통신업	25	17	17	-8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77	67	72	-5	
	63 정보서비스업	20	38	38	18	
	71 전문 서비스업	518	522	522	4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59	534	512	-47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	160	126	84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530	1,469	1,443	-87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1,760	2,197	2,187	427	유 입
	86 보건업	4,550	4,430	4,286	-264	유 출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3,066	13,050	12,907	-159	유 출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2	207	203	-9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92	443	456	-36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37	267	267	31	

(2) 직종(직업)별 현황

-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많아 인력이 초과 유입된 직종은 ‘섬유·의복 생산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 ‘건설·채굴직’ 순으로 나타남
 - ‘섬유·의복 생산직’, ‘건설·채굴직’, ‘식품가공 생산직’은 전년도에는 인력 유출 직종이었으나, 올해는 인력 유입 직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적어 인력의 초과 유출이 발생한 직종은 ‘돌봄 서비스(간병·육아)’, ‘운전·운송직’, ‘제조 단순직’ 순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직’,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은 전년도에는 인력 유입 업종이었으나, 올해는 인력 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업·판매직’과 ‘운전·운송직’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인력 유출이 발생한 직종으로, 근속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 표 56 〉 2024년 전북지역 구인인원, 채용인원 현황 - 직종별

(단위 : 명)

구 분	퇴직자 수 (A)	구인인원	채용인원 (B)	채용인원 - 퇴직인원 (B-A)	비 고
전 체	41,362	43,330	42,764	1,402	
01 관리직(임원·부서장)	217	536	613	396	유 입
02 경영·행정·사무직	3,706	4,003	3,852	146	유 입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	1	1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62	214	214	-48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169	1,322	1,300	131	유 입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54	664	660	6	
21 교육직	0	38	38	38	
22 법률직	112	124	124	12	
23 사회복지·종교직	2,414	2,848	3,083	668	유 입
30 보건·의료직	4,057	4,075	3,901	-157	유 출
41 예술·디자인·방송직	209	208	215	6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72	150	150	-22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8	88	88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52	251	251	-2	
53 음식 서비스직	2,037	2,009	2,021	-16	
54 경호·경비직	329	270	270	-58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9,524	9,241	8,968	-556	유 출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980	1,808	1,805	-175	유 출
61 영업·판매직	1,970	1,820	1,800	-170	유 출
62 운전·운송직	2,333	1,984	1,998	-335	유 출
70 건설·채굴직	1,639	2,204	2,186	547	유 입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652	1,630	1,626	-26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673	888	816	143	유 입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584	668	664	80	유 입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06	129	129	23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583	717	699	116	유 입
86 섬유·의복 생산직	122	828	832	709	유 입
87 식품 가공·생산직	1,618	1,785	1,691	74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584	704	664	80	유 입
89 제조 단순직	2,232	2,058	2,041	-191	유 출
90 농림어업직	83	64	6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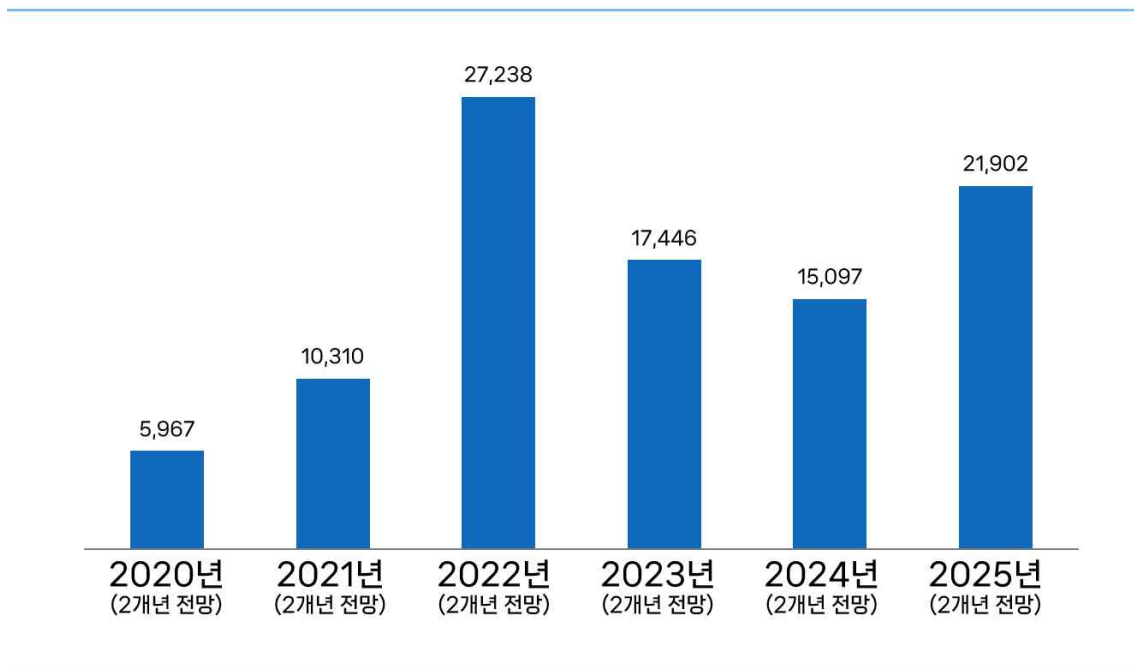
4) 채용 계획

(1) 산업(업종)별 채용 계획

- 전북지역의 2025년 채용예정인원은 16,005명이며, 2026년 채용예정인원은 5,897명으로 2025-2026년 2개년 채용예정인원은 21,902명 수준으로 나타남
 - 2024년 조사결과(15,097명) 대비 6,8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4 〉 채용예정인원 변화

(단위:명)



- 업종별 2개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료품 제조업’, ‘보건업’, ‘음식점 및 주점업’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에서는 ‘식료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순으로 채용수요가 높았으며, 비제조업 중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점 및 주점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채용예정인원 변동 현황을 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며, 다음으로 ‘식료품 제조업’, ‘음식점 및 주점업’, ‘종합 건설업’ 순으로 나타남
반면, 채용예정인원의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문직별 공사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표 57 〉 채용예정인원 - 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2025년 채용예정 인원	신입직	경력직	외국인	2026년 채용예정 인원
전 체		16,005	11,127	4,878	110	5,897
제 조 업	제조업 전체	3,114	2,619	495	85	1,268
	10 식료품 제조업	1,342	1,243	99	29	792
	11 음료 제조업	29	29	-	4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52	52	-	-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6	66	20	-	18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5	-	-	3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2	22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1	73	8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	7	-	-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47	146	1	-	11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0	35	5	-	11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7	61	37	24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0	60	-	-	-
	24 1차 금속 제조업	34	34	-	-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13	74	39	-	20
	26 전자 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171	66	106	-	38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36	36	-	3	-
	28 전기장비 제조업	72	72	-	-	8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3	152	42	21	3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32	308	124	-	221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4	66	8	4	27
	32 가구 제조업	5	5	-	-	2
	33 기타 제품 제조업	16	8	8	-	8

비 제 조 업	비제조업 전체	12,891	8,508	4,382	25	4,629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5	8	8	-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4	33	11	-	34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6	12	4	-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72	50	22	-	-
	41 종합 건설업	756	160	596	-	83
	42 전문직별 공사업	30	20	10	-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38	30	-	60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37	70	267	-	6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85	458	27	13	13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28	540	188	-	201
	50 수상 운송업	20	20	-	-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	65	10	-	-
	55 숙박업	181	158	23	-	-
	56 음식점 및 주점업	919	795	125	-	106
	58 출판업	60	26	34	12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6	12	4	-	-
	60 방송업	10	9	1	-	-
	61 우편 및 통신업	11	7	4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20	20	-	-	11
	63 정보서비스업	18	18	-	-	-
	71 전문 서비스업	245	62	184	-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61	249	112	-	111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5	2	-	5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08	184	124	-	60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84	784	-	-	87
	86 보건업	942	491	450	-	132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5,932	3,956	1,976	-	3,526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1	61	80	-	73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04	183	21	-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88	16	71	-	2

(2) 직종(직업)별 채용 계획

- 직종별 2개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 ‘제조 단순직’, ‘식품 가공·생산직’ 순으로 나타남
 - 2025년도 기준으로 신입직의 채용수요는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 ‘제조 단순직’, ‘식품 가공·생산직’ 순으로 나타남
 - 2025년도 기준으로 경력직의 채용수요는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순으로 나타남

〈 표 58 〉 채용예정인원 - 직종별

(단위 : 명)

구 분	2025년 채용예정 인원	신입직	경력직	외국인	2026년 채용예정 인원
전 체	16,005	11,127	4,878	110	5,897
01 관리직(임원·부서장)	342	243	99	-	37
02 경영·행정·사무직	1,262	1,090	172	-	61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	-	-	3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4	44	30	12	11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39	158	381	-	42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85	122	164	-	103
21 교육직	32	32	-	-	-
22 법률직	62	-	62	-	-
23 사회복지·종교직	1,944	927	1,018	-	591
30 보건·의료직	814	455	358	-	188
41 예술·디자인·방송직	60	47	13	-	13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66	66	-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	-	-	-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60	160	-	-	4

구 분	2025년 채용예정 인원	신입직	경력직	외국인	2026년 채용예정 인원
전 체	16,005	11,127	4,878	110	5,897
53 음식 서비스직	647	469	178	-	8
54 경호·경비직	53	35	18	-	-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3,297	2,213	1,084	-	2,887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19	435	84	-	26
61 영업·판매직	858	828	30	13	259
62 운전·운송직	843	613	230	-	169
70 건설·채굴직	164	32	132	-	70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779	550	229	25	425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75	62	13	-	2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411	103	307	-	83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75	39	36	-	11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244	182	62	24	36
86 섬유·의복 생산직	103	84	18	-	18
87 식품 가공·생산직	1,026	930	96	33	342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44	120	25	-	2
89 제조 단순직	1,112	1,073	39	3	508
90 농림어업직	16	16	-	-	-

5) 신규채용자 양성훈련 수요

(1) 양성훈련 수요 추정 절차 및 방법

- 양성훈련이란 사업체 단위 채용인원 중 직업훈련교육 필요인원을 의미함
- 양성훈련수요 추정을 위해 「2025년 지역훈련수요조사」의 실제 채용인력 중 직업교육 훈련 필요인원 항목을 이용하며, 양성훈련 수요 추정 대상은 신입직, 경력직으로 구분함
- 양성훈련수요에 대한 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와 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 기준이며, 중기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기반으로 2025년~2027년(3개년)까지 도출함
- 양성훈련 수요추정 방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제시한 훈련 수요량 추정방식을 활용하여 산출함
 - (1단계) 산업별, 직업별 신규인력 규모 전망 실시. 신규 인력 전망 기간은 '25~'27년이며, 산업별, 직업별로 각각 전망 실시
 - (2단계) 산업별, 직업별 신규인력에 대해 신입직 및 경력직으로 구분하여 규모를 각각 전망하며, 전망 기간은 2025년~2027년으로 함
 - (3단계) 전망한 신입직 및 경력직 신규인력 규모에 2024년 말(조사 기준 시점) 신입직 및 경력직 직업교육훈련 필요 인원 비중을 곱하여 2025년 ~2027년 양성훈련 수요 전망치 도출

〈 그림 15 〉 양성훈련 수요 추정 절차



(2)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 업종(산업)별

- 양성훈련 수요 추정 1단계로서 전북 소재 52개 산업,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력을 추정(전망)한 결과 매년 1~2%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5년) 50,098명 → ('26년) 51,090명 → ('27년) 51,608명
- 경력 유무별로 보면, 2025년 기준 신입직 인력 수요는 32,851명, 경력직 인력수요는 17,247명으로 추정됨
 - 신규인력 수요 중 경력유무별 비중 변화를 보면, 2025년~2027년 모두 신입직 비중이 6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입직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 경력직 비중은 같은 기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신입직 비중 ('25년) 65.6% → ('26년) 65.6% → ('27년) 65.2%
 - * 경력직 비중 ('25년) 34.4% → ('26년) 34.5% → ('27년) 34.8%
- 업종별 신규인력 수요량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종합건설업' 순으로 추정됨
 - 2025년~2027년 기간 동안 업종별 신규인력 수요 변화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종합건설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에서 인력 수요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인력 수요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입직과 경력직 간 수요 상위 업종이 유사한 경향을 보임
 - 한편, '식품제조업'은 신입직 중심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으로, '종합 건설업'은 경력직 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나타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신입직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2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36.2%로 나타남.
반면, 경력직은 '제조업' 비중이 11.2%로 낮은 수준인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52.1%로 높게 나타남.
이는 경력직 수요가 돌봄·복지 등 서비스 중심 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 표 59 〉 업종별 경력 유무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단위: 명)

구 분		전체			신입직			경력직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50,098	51,090	51,608	32,851	33,450	33,652	17,247	17,640	17,955
제조업	제조업 전체	9,212	9,199	9,095	7,283	7,263	7,110	1,929	1,936	1,985
	10 식료품 제조업	2,065	2,133	2,092	1,843	1,901	1,869	222	232	224
	11 음료 제조업	52	49	48	34	30	28	18	19	20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03	203	185	149	144	130	54	59	55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5	125	104	121	122	102	4	3	2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	8	8	4	5	5	4	3	3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28	230	229	197	199	196	31	30	3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6	175	182	138	148	151	28	27	3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19	20	17	18	18	1	1	1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533	1,510	1,517	1,118	1,087	1,076	415	423	441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6	101	104	78	81	82	18	20	22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70	367	326	263	260	229	107	107	9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2	316	313	281	278	275	41	38	38
	24 1차 금속 제조업	227	243	250	155	160	158	72	83	92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637	559	551	523	453	439	115	106	111
	26 전자 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352	406	425	287	331	347	65	75	78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1	146	151	139	137	141	12	9	9
	28 전기장비 제조업	478	484	478	368	369	357	110	114	12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46	592	591	394	354	346	252	238	24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88	1,052	1,049	831	817	806	257	234	243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8	342	335	245	273	263	62	69	72
	32 가구 제조업	24	23	24	22	22	22	1	1	1
	33 기타 제품 제조업	115	117	114	76	73	69	39	43	46

비 제 조 업	비제조업 전체	40,886	41,891	42,513	25,567	26,187	26,543	15,319	15,704	15,970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6	70	69	46	45	44	20	24	2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7	81	83	69	66	66	18	15	16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0	19	18	10	9	8	10	10	10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52	148	147	121	120	116	31	28	30
	41 종합 건설업	3,495	3,366	3,234	975	944	920	2,520	2,421	2,314
	42 전문직별 공사업	152	160	153	61	71	73	91	88	81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8	84	87	46	51	53	32	33	34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127	1,144	1,143	833	823	813	294	321	329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462	1,446	1,451	1,157	1,148	1,146	305	298	305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404	1,489	1,495	572	587	585	832	902	911
	50 수상 운송업	25	27	28	8	9	9	17	18	19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57	257	253	179	181	180	78	76	73
	55 숙박업	260	261	278	174	174	181	85	87	97
	56 음식점 및 주점업	2,273	2,263	2,178	1,774	1,816	1,752	498	447	426
	58 출판업	309	298	292	159	146	139	150	152	153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74	70	70	72	68	69	2	2	1
	60 방송업	20	21	22	15	16	18	5	5	5
	61 우편 및 통신업	24	24	25	18	18	19	6	6	7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61	60	65	51	52	55	10	9	10
	63 정보서비스업	21	21	22	19	20	20	2	2	2
	71 전문 서비스업	480	483	508	294	273	285	187	210	223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24	634	627	324	342	343	300	292	285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	46	46	33	33	32	14	13	14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537	1,533	1,477	1,137	1,138	1,067	399	395	409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5,263	5,611	5,902	4,897	5,372	5,626	367	239	276
	86 보건업	4,451	4,341	4,459	2,553	2,486	2,552	1,898	1,855	1,907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6,147	16,960	17,392	9,344	9,543	9,742	6,803	7,417	7,650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	205	212	108	114	110	92	91	102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12	521	521	437	445	443	75	76	78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59	247	254	82	74	78	178	173	176

(3)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 직종(직업)별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신규인력 수요 비중은 ‘돌봄 서비스직’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 ‘보건·의료직’, ‘경영·행정·사무직’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5년~2027년 기간 동안 직종별 신규인력 수요 변화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사회복지·종교직’,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 등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음식 서비스직’, ‘제조 단순직’, ‘관리직(임원·부장)’ 등에서 인력 수요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력 유무별로 보면,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신입직에 인력 수요가 더 많은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 ‘제조 단순직’, ‘영업·판매직’, ‘식품 가공·생산직’이며, 경력직에 인력 수요가 더 많은 직종은 ‘건설·채굴직’,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운전·운송직’으로 예상됨

〈 표 60 〉 직종별 경력 유무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단위 : 명)

구 분	전체			신입직			경력직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50,098	51,090	51,608	32,851	33,450	33,652	17,247	17,640	17,955
01 관리직(임원·부서장)	570	533	485	251	253	239	319	280	246
02 경영·행정·사무직	4,027	4,004	4,026	3,437	3,425	3,423	590	579	603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4	3	3	2	2	2	1	1	1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89	282	287	145	144	142	145	138	145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14	1,389	1,387	237	245	246	1,177	1,144	1,140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50	759	752	385	385	371	366	374	381
21 교육직	42	38	34	42	39	35	-1	-1	-1
22 법률직	85	92	96	60	60	60	25	32	36
23 사회복지·종교직	6,855	7,265	7,470	4,483	4,817	4,984	2,372	2,448	2,486

30 보건·의료직	4,062	4,079	4,121	2,308	2,337	2,328	1,754	1,743	1,793
41 예술·디자인·방송직	251	249	247	158	161	158	93	88	89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17	131	137	106	122	127	11	9	10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46	53	57	8	5	6	39	48	51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79	267	277	258	247	256	21	20	21
53 음식 서비스직	2,693	2,659	2,555	1,997	2,000	1,912	696	659	644
54 경호·경비직	307	274	298	216	186	193	91	89	105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9,094	9,630	9,939	5,478	5,624	5,765	3,616	4,007	4,174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3,555	3,741	3,946	2,651	2,799	2,910	905	942	1,036
61 영업·판매직	1,827	1,893	1,931	1,621	1,696	1,717	206	198	214
62 운전·운송직	2,225	2,312	2,266	1,169	1,186	1,135	1,056	1,126	1,131
70 건설·채굴직	2,161	2,157	2,088	685	691	710	1,477	1,466	1,378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790	1,779	1,757	1,362	1,369	1,335	428	410	421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774	737	741	531	501	496	243	237	245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42	790	789	251	220	222	591	569	566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09	212	197	171	171	155	38	41	42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16	613	615	496	493	490	120	120	125
86 섬유·의복 생산직	875	858	809	567	519	475	308	338	334
87 식품 가공·생산직	1,686	1,744	1,743	1,405	1,471	1,486	281	272	257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553	555	563	490	503	505	63	53	58
89 제조 단순직	2,051	1,940	1,935	1,860	1,758	1,745	191	182	190
90 농림어업직	47	52	56	21	22	24	26	30	32

- 인력 수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 기준으로 인력 수요를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식당 서비스원’ 순으로 추정됨
- 경력 유무별로 보면,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신입직에 인력 수요가 더 많은 직종은 ‘제조 단순 종사자’,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식품 가공 기능원’이며, 경력직에 인력 수요가 더 많은 직종은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로 예상됨
 - 신입직은 식품 가공 분야, 경력직은 건설분야 중심의 직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훈련 연계 강화가 필요함

〈 표 61 〉 직종별 경력 유무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KECO 소분류)

(단위 : 명)

구 분	전체			신입직			경력직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50,098	51,090	51,608	32,851	33,450	33,652	17,247	17,640	17,955
011 국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15	15	13	-	-	-	15	15	13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71	67	70	32	31	29	39	36	40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56	44	45	7	6	7	49	37	38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8	9	10	-	-	-	8	9	10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90	91	88	61	66	66	29	26	22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330	307	261	152	150	137	178	157	124
022 경영·인사 전문가	8	7	8	2	2	3	6	5	5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41	47	51	14	19	22	27	28	29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23	23	22	7	7	5	16	16	16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7	7	6	4	3	2	3	4	4
026 경영지원 사무원	1,766	1,734	1,700	1,511	1,491	1,446	255	244	254
027 회계·경리 사무원	311	278	277	210	184	181	101	94	96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607	609	605	486	487	478	121	123	127
029 안내·고객상담·통계· 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1,264	1,298	1,359	1,203	1,232	1,286	60	65	73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4	3	3	2	2	2	1	1	1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 공학 기술자	47	47	43	36	40	36	11	7	7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28	33	36	10	14	16	18	19	20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204	194	200	97	90	89	107	104	112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0	8	8	2	1	1	8	7	7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14	1,389	1,387	237	245	246	1,177	1,144	1,140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14	107	114	76	75	79	38	31	36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	9	10	2	3	3	6	6	6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6	440	437	144	142	135	273	299	302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7	39	37	25	28	25	12	11	11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3	68	59	63	63	54	10	6	6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	5	5	5	5	5	1	-	-
158 소방·방재·산업안전· 비파괴 기술자	93	88	87	69	68	69	24	20	18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	3	3	2	2	2	2	1	1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42	38	34	42	39	35	-1	-1	-1
221 법률 전문가	2	2	2	-	-	-	2	2	2
222 법률 사무원	84	91	95	60	60	60	24	30	34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1,371	1,391	1,375	871	888	860	500	503	515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5,483	5,874	6,095	3,611	3,929	4,124	1,872	1,945	1,971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1	78	76	11	9	8	70	69	68
303 약사 및 한약사	1	1	1	1	1	1	-	-	-
304 간호사	1,452	1,483	1,498	762	801	797	690	682	701
305 영양사	11	7	8	-	-	-	11	7	8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907	897	916	550	555	568	356	343	348
307 보건·의료 종사자	1,609	1,612	1,621	983	971	954	626	642	667

411 작가·통번역가	1	1	1	-	-	-	1	1	1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18	18	17	12	12	12	7	6	5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16	18	19	7	8	9	10	10	9
415 디자이너	66	68	70	41	41	43	25	26	27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141	135	132	99	100	94	42	36	37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9	9	-	-	-	8	9	9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17	131	137	106	122	127	11	9	10
511 미용 서비스원	45	52	56	8	4	6	37	48	50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1	1	1	-	-	-	1	1	1
521 여행 서비스원	10	9	9	3	3	3	6	6	6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19	19	20	16	15	15	4	5	5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50	238	248	239	229	238	11	9	10
531 주방장 및 조리사	467	409	398	326	294	284	141	115	113
532 식당 서비스원	2,225	2,250	2,157	1,671	1,706	1,627	554	544	530
542 경비원	307	274	297	216	185	193	91	89	104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9,094	9,630	9,939	5,478	5,624	5,765	3,616	4,007	4,174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3,022	3,154	3,321	2,349	2,490	2,571	673	664	750
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533	587	625	302	308	339	232	278	286
612 영업원 및 상품증개인	479	499	505	372	387	389	107	113	116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3	2	2	1	1	1	1	1	1
615 판매 종사자	582	610	617	524	567	569	58	43	48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352	350	368	346	349	365	6	1	3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411	432	439	378	392	394	33	39	45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1	1	1	-	-	-	1	1	1
622 자동차 운전원	1,644	1,728	1,723	621	618	611	1,022	1,110	1,112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27	26	26	18	19	18	9	7	8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553	556	516	529	549	507	24	7	9
701 건설구조 기능원	287	267	248	30	23	23	257	244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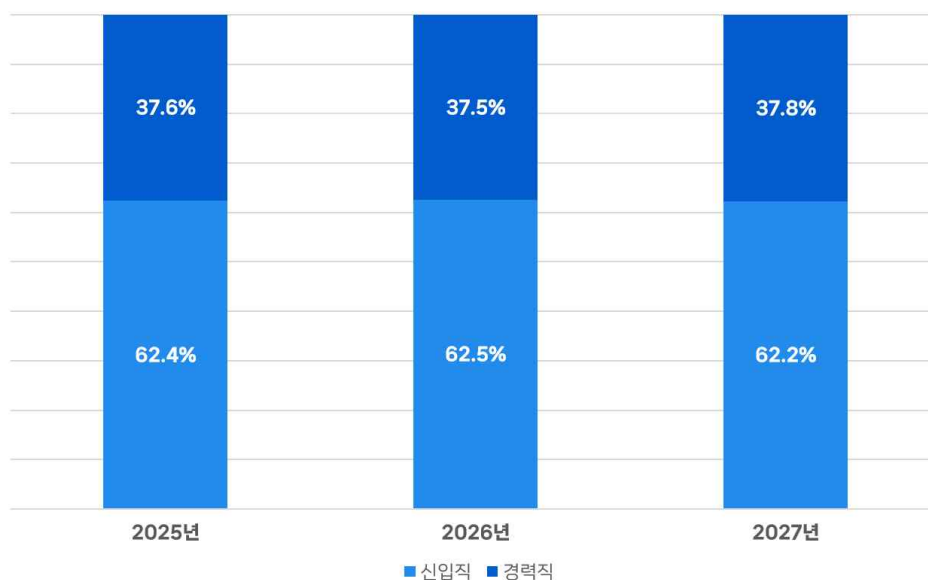
702 건축마감 기능원	140	117	113	54	48	48	86	69	65
703 배관공	12	10	11	6	6	7	6	4	4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58	59	63	2	1	1	56	59	62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408	421	419	177	185	195	231	236	225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1,256	1,281	1,234	416	428	435	841	854	799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140	142	145	103	108	107	37	34	38
812 운송장비 정비원	268	261	256	114	110	110	154	151	146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254	261	233	189	197	171	66	64	61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5	6	6	3	3	4	2	2	2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 로봇 조작원	2	2	2	-	-	-	2	2	2
816 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제외)	109	110	111	107	109	110	2	1	1
817 운송장비 조립원	1,012	999	1,004	847	841	834	165	157	171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129	117	117	91	79	76	38	38	41
822 판금원 및 제관원	13	15	16	6	8	9	7	7	7
823 단조원 및 주조원	13	12	12	12	12	12	1	-	-
824 용접원	161	157	154	52	51	42	109	106	112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99	176	178	143	121	121	56	55	56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59	260	265	226	230	236	32	30	29
831 전기공	567	542	539	110	95	102	457	446	437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61	57	54	53	49	48	9	8	6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103	85	88	20	16	14	83	69	74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7	75	79	44	39	39	33	36	39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34	32	29	24	22	19	10	10	10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33	32	28	29	28	24	3	4	4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176	180	169	142	143	130	35	37	38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48	146	139	117	116	108	31	29	31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443	443	454	361	359	366	82	84	87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24	22	18	18	16	7	6	6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용	697	685	644	437	399	359	260	287	285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78	74	67	39	31	25	39	43	42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66	65	66	68	66	67	-2	-2	-2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33	33	32	23	23	24	10	10	8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	1	1	1	1	-	1	1	1
872 식품 가공 기능원	759	781	786	595	638	657	164	143	129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용	926	961	956	809	833	829	117	128	128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용	4	4	4	3	3	3	2	1	1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용	164	166	173	128	132	134	36	34	39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62	57	58	57	53	54	5	4	5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41	40	34	29	28	23	12	12	11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282	288	293	274	286	291	8	1	2
890 제조 단순 종사자	2,051	1,940	1,935	1,860	1,758	1,745	191	182	190
901 작물재배 종사자	35	40	43	21	22	24	14	18	19
902 낙농·사육 종사자	2	1	1	-	-	-	2	1	1
903 임업 종사자	10	12	12	-	-	-	10	12	12

(4) 업종(산업)별 양성훈련 수요 추정 결과

- 전북지역 신규채용자 양성훈련 수요는 2025년 10,849명으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5년) 10,849명 → ('26년) 10,954명 → ('27년) 11,093명
- 경력 유무별로 보면 신입직의 양성훈련 수요는 2025년 6,775명, 경력직은 4,074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두 직군 모두 향후 양성훈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신입직 양성훈련 수요 ('25년) 6,775명 → ('26년) 6,843명 → ('27년) 6,904명
 - * 경력직 양성훈련 수요 ('25년) 4,074명 → ('26년) 4,111명 → ('27년) 4,189명
- 업종별 양성훈련 수요량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보건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종합 건설업'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25년~2027년 3개년 합계 기준으로 전체 양성 훈련 수요의 51.8%를 차지함
 - 2025년~2027년 기간 동안 업종별 양성훈련 수요 변화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양성훈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에 대한 양성훈련 수요량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입직과 경력직 간 수요 상위 업종이 유사한 경향을 보임. 다만, 신입직이 경력직보다 제조업에서 양성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16 〉 경력 유무별 양성훈련수요 비중 변화



〈 표 62 〉 업종별 경력 유무별 양성훈련 수요 전망 결과

(단위: 명)

구 분		전체			신입직			경력직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10,849	10,954	11,093	6,775	6,843	6,904	4,074	4,111	4,189
제 조 업	제조업 전체	1,862	1,874	1,836	1,545	1,555	1,514	317	319	323
	10 식료품 제조업	446	460	452	390	403	395	55	57	57
	11 음료 제조업	1	1	1	1	1	1	-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	12	10	10	9	8	3	3	3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	14	11	13	14	11	-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2	13	12	11	12	11	1	1	1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8	7	6	8	7	-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1	1	1	1	1	-	-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13	329	315	226	232	223	87	97	92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4	15	14	10	11	11	3	4	4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8	66	59	64	63	56	4	3	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8	7	7	8	7	-	-	-
	24 1차 금속 제조업	24	21	21	20	18	17	4	4	4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55	47	42	54	47	41	1	-	-
	26 전자 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109	118	128	81	88	95	28	30	33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36	34	36	35	33	35	1	1	1
	28 전기장비 제조업	90	92	90	81	82	80	10	10	1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5	96	90	94	87	81	11	9	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61	447	450	364	362	358	97	86	9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5	71	70	55	58	58	10	13	12
	32 가구 제조업	7	7	7	7	7	7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15	14	13	13	13	12	2	1	1

	비제조업 전체	8,987	9,080	9,256	5,230	5,288	5,390	3,757	3,792	3,866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4	14	14	14	14	14	-	-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9	37	38	38	36	38	-	-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	1	1	1	1	1	-	-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3	14	13	12	13	12	1	1	1
	41 종합 건설업	422	414	387	110	110	103	312	304	284
	42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	-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4	45	49	20	21	23	24	24	26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81	83	74	61	67	59	20	16	16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32	141	130	116	125	113	17	15	16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33	339	352	175	171	175	158	168	177
	50 수상 운송업	2	1	1	-	-	-	2	1	1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8	39	35	27	27	24	11	12	10
	55 숙박업	105	103	110	105	103	109	-	-	-
비 제 조 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157	175	159	139	155	143	18	19	16
	58 출판업	30	31	29	16	16	13	15	16	16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	3	3	3	3	3	-	-	-
	60 방송업	2	2	2	2	2	2	-	-	-
	61 우편 및 통신업	1	-	-	-	-	-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6	6	6	6	6	6	-	-	-
	63 정보서비스업	2	2	1	1	2	1	-	-	-
	71 전문 서비스업	107	102	103	72	67	68	34	34	35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9	114	105	23	23	21	85	90	84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2	2	2	2	2	-	-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16	117	108	64	57	54	52	61	55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116	91	95	107	86	90	9	4	5
	86 보건업	1,510	1,462	1,503	1,032	1,004	1,029	478	458	473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5,526	5,657	5,859	3,034	3,122	3,239	2,491	2,536	2,620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13	12	6	7	6	5	6	6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9	46	40	31	36	32	8	9	8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7	26	26	10	10	9	17	16	16

(5) 직종(직업)별 양성훈련 수요 추정 결과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신규채용자 양성훈련 수요는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 ‘보건·의료직’,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 순으로 추정됨
- 경력 유무별로 보면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사회복지 종교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보건·의료직’에서 양성훈련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신입직에 양성훈련 수요가 더 많은 직종은 ‘제조 단순직’, ‘영업·판매직’이며, 경력직에 양성훈련 수요가 더 많은 직종은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으로 나타남

〈 표 63 〉 직종별 경력 유무별 양성훈련 수요 전망 결과

(단위 : 명)

구 분	전체			신입직			경력직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10,849	10,954	11,093	6,775	6,843	6,904	4,074	4,111	4,189
01 관리직(임원·부서장)	38	29	26	21	15	14	16	14	12
02 경영·행정·사무직	322	321	303	246	252	234	75	69	70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	-	-	-	-	-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6	25	23	13	12	11	13	12	12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64	265	250	59	59	57	205	206	193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57	266	270	88	86	88	169	180	182
21 교육직	1	1	1	1	1	1	-	-	-
22 법률직	13	13	14	10	9	10	3	3	4
23 사회복지·종교직	1,610	1,661	1,706	605	631	662	1,005	1,030	1,043
30 보건·의료직	1,469	1,425	1,445	986	969	976	483	457	469
41 예술·디자인·방송직	9	9	8	9	8	8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5	15	14	14	14	14	1	1	1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	-	-	1	-	-	-	-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23	116	125	121	115	123	2	2	2
53 음식 서비스직	552	550	533	321	330	315	231	220	218
54 경호·경비직	5	3	3	5	3	3	-	-	-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298	2,432	2,449	1,634	1,720	1,726	664	712	722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516	1,569	1,693	900	917	990	616	652	703
61 영업·판매직	188	200	194	180	194	188	8	6	7
62 운전·운송직	371	370	374	190	182	181	181	189	192
70 건설·채굴직	96	86	79	48	53	48	47	33	31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568	544	539	430	421	410	138	124	129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7	35	31	27	26	22	10	9	9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96	84	89	51	43	46	45	41	42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	3	3	3	2	2	1	1	1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56	162	155	117	122	116	39	40	39
86 섬유·의복 생산직	77	64	53	73	61	50	4	3	3
87 식품 가공·생산직	317	323	325	226	240	244	91	83	81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6	14	14	15	13	13	1	1	1
89 제조 단순직	396	360	366	375	340	345	22	19	21
90 농림어업직	7	9	9	4	5	5	3	4	4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 기준으로 양성훈련 수요를 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9,0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제조 단순 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 경력 유무별로 보면, 신입직에 양성훈련 수요가 더 많은 직종은 ‘제조 단순 종사자’, ‘오락시설 서비스원’이며, 경력직에 양성훈련 수요가 더 많은 직종은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회계·경리 사무원’으로 예상됨

〈 표 64 〉 직종별 경력 유무별 양성훈련 수요 전망 결과(KECO 소분류)

(단위 : 명)

구 분	전체			신입직			경력직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10,848	10,953	11,092	6,774	6,842	6,903	4,074	4,111	4,189
011 국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1	1	1	-	-	-	1	1	1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10	9	8	-	-	-	10	9	8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9	6	6	6	4	4	3	2	2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17	12	11	15	11	10	2	2	1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5	6	7	5	6	7	-	-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 기획 전문가	1	1	1	1	1	1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98	93	86	90	87	79	9	7	7
027 회계·경리 사무원	66	62	61	14	14	12	52	48	49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77	78	73	64	66	61	12	12	12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75	81	76	73	79	74	2	2	2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20	20	18	13	12	11	7	8	7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6	5	5	-	-	-	6	5	5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64	265	250	59	59	57	205	206	193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7	55	59	47	46	50	10	9	9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	-	-	-	-	-	1	-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90	201	202	33	31	31	157	169	171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	1	1	1	1	1	-	-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	-	-	1	-	-	-	-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	1	1	1	1	1	-	-	-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6	7	6	5	6	5	1	1	1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1	1	1	1	1	1	-	-	-
222 법률 사무원	13	13	14	10	9	10	3	3	4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26	209	214	76	63	61	150	146	153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1,383	1,452	1,492	529	567	601	854	885	891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19	18	17	2	2	1	17	16	16
304 간호사	741	736	749	464	471	479	277	265	271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86	81	75	63	64	59	23	16	16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591	603	458	432	437	166	159	166
415 디자이너	1	-	-	1	-	-	-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9	8	7	9	8	7	-	-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	15	14	14	14	14	1	1	1
511 미용 서비스원	1	-	-	1	-	-	-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2	1	1	2	1	1	-	-	-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121	115	124	120	113	122	2	2	2
531 주방장 및 조리사	21	19	16	9	7	7	12	11	9
532 식당 서비스원	531	531	517	312	323	309	219	208	208
542 경비원	5	3	3	5	3	3	-	-	-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298	2,432	2,449	1,634	1,720	1,726	664	712	722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098	1,114	1,206	700	724	770	398	390	436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418	455	487	200	193	220	218	262	267
612 영업원 및 상품증개인	40	43	38	38	41	37	2	2	2
615 판매 종사자	119	129	129	117	128	128	2	2	2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15	18	16	15	18	16	-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14	10	10	10	7	7	4	3	3
622 자동차 운전원	358	356	361	178	168	170	180	188	191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4	4	4	4	4	4	1	1	1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9	10	8	8	10	8	1	-	-
702 건축마감 기능원	6	6	5	6	6	5	-	-	-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16	14	13	5	6	6	11	8	8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73	66	60	37	41	37	37	25	23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10	10	11	9	9	10	1	1	1
812 운송장비 정비원	76	72	71	34	32	32	42	40	39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99	97	85	75	76	65	24	21	21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2	2	3	2	2	3	-	-	-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33	31	33	31	31	32	2	-	1
817 운송장비 조립원	347	332	335	278	270	268	69	62	67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13	12	11	8	7	6	5	5	5
823 단조원 및 주조원	1	-	-	1	-	-	-	-	-
824 용접원	7	6	6	3	3	2	4	3	4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6	15	14	16	15	14	-	-	-
831 전기공	78	68	73	41	34	38	37	34	35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3	3	3	1	1	1	2	2	2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2	11	12	7	6	6	5	5	5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3	2	2	2	1	1	1	1	1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	3	3	3	2	2	1	1	1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4	13	13	5	5	4	9	9	9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36	144	137	107	113	108	30	31	30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5	5	4	5	5	4	-	-	-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71	60	49	71	60	49	-	-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6	4	4	1	1	1	4	3	3
872 식품 가공 기능원	178	174	182	127	132	143	51	42	40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40	149	143	100	108	101	40	41	42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5	5	5	4	5	5	-	-	-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5	4	4	5	4	4	-	-	-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	1	1	-	-	-	1	1	1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6	4	4	6	4	4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396	360	366	375	340	345	22	19	21
901 작물재배 종사자	7	9	9	4	5	5	3	4	4

6) 재직자 향상훈련 수요

(1) 향상훈련 수요 추정 절차 및 방법

- 향상훈련이란 사업체 단위로 재직자 대상 향후 1년 동안 직업훈련 필요 인원을 의미함
- 향상훈련수요 추정을 위해 「2025년 지역훈련수요조사」의 재직자 훈련수요 항목을 이용함
- 향상훈련수요에 대한 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와 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 기준이며, 중기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활용하여 2025년~2027년(3개년) 까지 도출함
- 향상훈련 수요추정 방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제시한 훈련 수요량 추정방식을 활용하여 산출함
 - (1단계) 산업별, 직업별 재직자 수 규모 전망 실시. 재직자 수의 전망 기간은 '25~'27년이며, 산업별, 직업별로 각각 전망 실시
 - (2단계) 산업별, 직업별 재직자 수에 대해 종사자 수 중 향후 1년 동안 직업교육훈련 필요인원 비중을 각각 곱하여 향상훈련 전망치 도출

〈 그림 17 〉 향상훈련 수요 추정 절차



(2) 재직자 수 전망 결과 - 업종(산업)별

- 재직자 향상훈련 수요 추정 1단계로서 전복 소재 52개 산업,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직자 수를 추정(전망)할 결과 3개년 종사자 수는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5년) 300,555명 → ('26년) 306,921명 → ('27년) 310,255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를 기준으로 재직자 수 전망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재직자 수가 전체 종사자의 2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보건업', '종합 건설업', '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종사자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임
- 종사자 수 증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종사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종사자 증감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65 〉 업종별 종사자 수 전망 결과

(단위: 명)

구 분		전체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303,555	306,921	310,255
제 조 업	제조업 전체	88,564	89,439	90,264
	10 식료품 제조업	19,815	20,045	20,263
	11 음료 제조업	608	612	615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581	2,589	2,596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11	1,519	1,526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20	2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569	1,575	1,580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13	2,523	2,532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14	516	518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1,242	11,335	11,423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30	1,249	1,266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201	4,244	4,28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637	4,669	4,700
	24 1차 금속 제조업	1,934	1,946	1,957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8,559	8,605	8,647
	26 전자 부품,통신장비 제조업	3,740	3,826	3,905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04	1,223	1,241
	28 전기장비 제조업	3,312	3,343	3,37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438	6,516	6,59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596	9,719	9,835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97	2,113	2,129
	32 가구 제조업	304	306	308
	33 기타 제품 제조업	938	947	955
	비제조업 전체	214,991	217,481	219,991
비 제 조 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60	464	468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737	1,753	1,769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48	352	355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982	2,000	2,018
	41 종합 건설업	24,051	24,110	24,175
	42 전문직별 공사업	456	458	461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869	880	891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6,709	6,771	6,834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1,031	11,120	11,213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8,869	8,935	9,003
	50 수상 운송업	161	164	167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000	3,026	3,053
	55 숙박업	1,794	1,823	1,851
	56 음식점 및 주점업	11,000	11,123	11,246

58 출판업	1,778	1,790	1,802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00	404	408
60 방송업	186	189	191
61 우편 및 통신업	333	337	341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349	353	357
63 정보서비스업	171	174	177
71 전문 서비스업	3,398	3,453	3,509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194	7,222	7,253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5	996	998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9,307	9,361	9,417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13,066	13,445	13,819
86 보건업	36,181	36,523	36,876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62,856	63,893	64,925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22	1,039	1,056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342	3,363	3,384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947	1,960	1,972

(3) 재직자 수 전망 결과 - 직종(직업)별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종사자 수 비중은 ‘경영·행정·사무직’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직’,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사회복지·종교직’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종사자 수 증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종교직’의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 ‘경영·행정·사무직’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표 66 〉 직종별 종사자 수 전망 결과 - KECO 중분류

(단위: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303,555	306,921	310,255
01 관리직(임원·부서장)	13,935	14,018	14,101
02 경영·행정·사무직	45,900	46,179	46,462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13	113	114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715	1,735	1,754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914	9,013	9,110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877	9,932	9,988
21 교육직	267	272	277
22 법률직	928	940	952
23 사회복지·종교직	26,628	27,346	28,048
30 보건·의료직	31,370	31,540	31,717
41 예술·디자인·방송직	1,668	1,684	1,700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39	448	456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319	321	323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195	1,217	1,240
53 음식 서비스직	14,272	14,456	14,636
54 경호·경비직	1,934	1,948	1,962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7,404	27,896	28,376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051	13,365	13,671
61 영업·판매직	8,351	8,480	8,605
62 운전·운송직	14,667	14,809	14,949
70 건설·채굴직	11,758	11,831	11,903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2,039	12,141	12,243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6,096	6,109	6,124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5,385	5,439	5,493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078	1,090	1,101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930	4,957	4,984
86 섬유·의복 생산직	3,035	3,051	3,068
87 식품 가공·생산직	12,303	12,436	12,569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62	4,784	4,807
89 제조 단순직	18,736	18,882	19,028
90 농림어업직	488	491	494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 기준으로 종사자 수 전망을 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경영지원 사무원’, ‘제조 단순 종사자’,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 표 67 〉 직종별 종사자 수 전망 결과 - KECO 소분류

(단위 :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303,555	306,921	310,255
011 국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238	239	240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3,264	3,283	3,302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3,160	3,185	3,210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379	381	382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1,935	1,952	1,969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4,958	4,979	5,000
022 경영·인사 전문가	109	110	111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708	711	715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429	437	444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71	72	72
026 경영지원 사무원	21,742	21,848	21,957
027 회계·경리 사무원	6,475	6,501	6,528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8,022	8,057	8,093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8,343	8,444	8,542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13	113	114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360	362	364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58	160	163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063	1,076	1,089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27	128	130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8	8	8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14	9,013	9,110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867	1,878	1,889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36	338	339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357	3,378	3,400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2	583	585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166	1,169	1,171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	6	6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69	270	271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2,071	2,084	2,098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24	227	229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30	30	30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37	242	247
221 법률 전문가	218	219	221
222 법률 사무원	710	721	731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12,847	13,009	13,165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13,781	14,337	14,883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618	3,629	3,643
302 수의사	160	161	161
303 약사 및 한약사	357	358	359
304 간호사	12,105	12,156	12,211
305 영양사	679	680	682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5,568	5,600	5,634
307 보건·의료 종사자	8,884	8,955	9,027
411 작가·통번역가	32	32	32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235	237	239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12	12	13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230	232	234
415 디자이너	588	594	600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530	535	541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0	41	41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439	448	456
511 미용 서비스원	269	271	273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0	50	50
521 여행 서비스원	18	18	18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186	188	190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991	1,011	1,031
531 주방장 및 조리사	6,438	6,485	6,532
532 식당 서비스원	7,834	7,971	8,104
541 경호·보안 종사자	71	71	72
542 경비원	1,863	1,877	1,890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7,404	27,896	28,376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2,094	12,365	12,628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957	1,000	1,043
612 영업원 및 상품증개인	3,359	3,400	3,440
613 텔레마케터	1	1	1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8	88	89
615 판매 종사자	2,319	2,361	2,402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1,060	1,070	1,079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1,524	1,560	1,595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36	36	36
622 자동차 운전원	10,467	10,580	10,693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547	550	552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3,618	3,643	3,668
701 건설구조 기능원	4,275	4,294	4,313
702 건축마감 기능원	1,878	1,890	1,902
703 배관공	309	312	316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356	356	357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1,332	1,337	1,342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3,608	3,642	3,673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1,172	1,186	1,199
812 운송장비 정비원	1,979	2,006	2,031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3,087	3,101	3,116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44	44	45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178	179	180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665	668	672
817 운송장비 조립원	4,913	4,956	4,999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1,318	1,319	1,320
822 판금원 및 제관원	111	112	112
823 단조원 및 주조원	223	224	224
824 용접원	1,636	1,640	1,645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101	1,105	1,109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705	1,710	1,715
831 전기공	3,137	3,180	3,223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262	263	264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1,087	1,093	1,099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643	646	649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56	257	259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167	168	169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911	922	932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용	1,300	1,306	1,311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3,376	3,396	3,417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용	254	255	256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용	2,053	2,058	2,063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401	409	417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415	418	420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165	166	168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36	36	36
872 식품 가공 기능원	7,480	7,534	7,589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용	4,788	4,867	4,944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용	170	171	171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용	1,938	1,949	1,959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522	524	526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45	146	147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1,988	1,996	2,004
890 제조 단순 종사자	18,736	18,882	19,028
901 작물재배 종사자	179	181	183
902 낙농·사육 종사자	58	58	58
903 임업 종사자	251	252	253

(4) 업종(산업)별 향상훈련 수요 추정 결과

- 전북지역 재직자 향상훈련 수요는 2025년 31,389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5년) 31,389명 → ('26년) 32,890명 → ('27년) 33,243명
- 업종별 향상훈련 수요량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업', '종합 건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3개년 누적 훈련 수요량은 전체 훈련 수요의 42.7%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2027년 기간 동안 업종별 향상훈련 수요 변화 패턴을 보면 '보건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식료품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향상훈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훈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분야에서는 '식료품 제조업'의 향상훈련 수요가 2025년 대비 2027년에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는 향상훈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주요 훈련 수요 업종으로 분류됨

〈 표 68 〉 업종별 향상훈련 수요 전망 결과

(단위: 명)

구 분		전체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31,389	32,890	33,243
제 조 업	제조업 전체	6,068	6,098	6,086
	10 식료품 제조업	327	647	662
	11 음료 제조업	-	4	3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55	126	123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3	9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15	11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	27	2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4	3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60	1,692	1,700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0	124	134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59	447	43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99	98
	24 1차 금속 제조업	27	58	53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7	182	186
	26 전자 부품,통신장비 제조업	971	895	899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8	59	54
	28 전기장비 제조업	102	125	11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1	300	29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02	1,178	1,169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9	69	64
	32 가구 제조업	-	12	12
	33 기타 제품 제조업	8	23	20
비 제 조 업	비제조업 전체	25,320	26,793	27,157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	1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76	263	260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5	10	8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1	16	13
	41 종합 건설업	2,496	2,619	2,639
	42 전문직별 공사업	-	7	5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14	14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9	347	366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89	261	276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27	649	628

50 수상 운송업	2	3	3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	201	197
55 숙박업	-	103	115
56 음식점 및 주점업	183	269	292
58 출판업	175	178	179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	18	15
60 방송업	-	1	1
61 우편 및 통신업	-	1	1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	5	3
63 정보서비스업	2	5	4
71 전문 서비스업	304	282	277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9	1,116	1,173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0	7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03	582	595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410	669	680
86 보건업	4,468	5,139	5,152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4,319	13,567	13,7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4	3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65	157	162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52	297	296

(5) 직종(직업)별 향상훈련 수요 추정 결과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향상훈련 수요는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 ‘보건·의료직’,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 ‘제조 단순직’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2025년~2027년 기간 동안 직종별 향상훈련 수요 변화 패턴을 보면,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료직’, ‘사회복지·종교직’, ‘건설·채굴직’의 훈련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제조 단순직’,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의 훈련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 가공·생산직’은 2025년 74명으로 예상되었으며, 2027년 향상훈련 수요는 179명으로 예상되어 지역 식품산업 성장과 연계한 훈련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표 69 〉 직종별 향상훈련 수요 전망 결과 - KECO 중분류

(단위: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31,389	32,890	33,243
01 관리직(임원·부서장)	239	332	335
02 경영·행정·사무직	933	1,583	1,572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4	4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14	217	212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58	1,639	1,655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68	1,430	1,484
21 교육직	-	11	12
22 법률직	49	35	35
23 사회복지·종교직	4,519	4,851	5,099
30 보건·의료직	4,278	4,886	4,873
41 예술·디자인·방송직	6	31	26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6	24	25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	17	14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	9	9
53 음식 서비스직	959	883	903
54 경호·경비직	107	114	112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7,253	6,705	6,737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2,486	2,376	2,447
61 영업·판매직	245	362	377

62 운전·운송직	633	865	876
70 건설·채굴직	314	616	623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401	1,360	1,317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66	222	205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541	602	621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71	189	200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005	910	904
86 섬유·의복 생산직	179	148	141
87 식품 가공·생산직	74	164	179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10	123	113
89 제조 단순직	2,457	2,170	2,127
90 농림어업직	-	10	8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 기준으로 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훈련 수요가 20,6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간호사’, ‘제조 단순 종사자’,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순으로 나타남
- 2025년~2027년 기간 동안 직종 소분류별 수요 변화 패턴을 보면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경영지원 사무원’,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는 2025년 훈련 수요가 8명이었으나, 2026년 224명, 2027년 228명으로 훈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제조 단순 종사자’는 훈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여전히 훈련 수요량에 큰 비중을 차지함

〈 표 70 〉 직종별 향상훈련 전망 결과 - KECO 소분류

(단위 :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전 체	31,389	32,890	33,243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	2	3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8	10	11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64	133	142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	67	60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167	120	119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6	18	18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1	1
025 정부·공공 행정 공무원	-	1	1
026 경영지원 공무원	407	789	803
027 회계·경리 공무원	38	86	86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공무원	430	523	515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공무원	32	165	147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4	4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23	111	109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4	47	45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7	59	58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58	1,639	1,655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8	96	100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0	69	70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839	874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	11	10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49	59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0	0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3	14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403	353	357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11	12
222 법률 공무원	49	35	35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763	941	942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3,756	3,910	4,156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66	316	320
303 약사 및 한약사	8	6	6
304 간호사	2,619	2,749	2,753
305 영양사	18	39	40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	329	315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37	1,447	1,439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2	1	1
415 디자이너	4	12	11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15	12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	1	1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6	24	25
511 미용 서비스원	8	17	14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	6	6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	2	3
531 주방장 및 조리사	256	276	279
532 식당 서비스원	703	606	625
541 경호·보안 종사자	56	52	54
542 경비원	51	62	58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7,253	6,705	6,737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978	1,903	1,974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509	473	474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177	188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4	3	3
615 판매 종사자	134	151	162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	5	5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27	19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	1	1
622 자동차 운전원	606	794	798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27	22	21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48	56
701 건설구조 기능원	-	91	97
702 건축마감 기능원	-	3	2
703 배관공	-	5	4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289	214	210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17	79	82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	224	228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78	99	104
812 운송장비 정비원	198	210	210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1	158	142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0	61	60
817 운송장비 조립원	893	833	801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19	42	38
822 판금원 및 제관원	28	20	19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5	4
824 용접원	92	84	78
825 도장원 및 도금원	28	35	35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36	30
831 전기공	395	415	430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67	62	62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0	118	122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7	6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9	6	6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162	183	194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435	329	324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570	578	578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3	2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179	140	135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8	6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4	4
872 식품 가공 기능원	25	81	94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49	80	81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2	2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110	91	88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7	15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2	2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0	7
890 제조 단순 종사자	2,457	2,170	2,127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0	8

다. 기초 수요조사 결과 시사점

1) 산업 구조 변화와 인력 수요 불균형

- 전북지역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24년 기준 293,384명으로 전년(306,680명)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역 산업 전반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근속 1년 미만 신입 인력 또한 전년 대비 16.6% 감소(41,523명→34,638명)하여 인력 순환이 위축된 것으로 보임
- 반면, 신규인력의 수요 전망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신규인력 수요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 전반의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직·퇴직 등 인력 이탈에 따른 대체 충원 수요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종합 건설업’ 순으로 종사자 규모가 크며, 복지·보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전통 제조업 분야는 신규인력 수요가 완만히 감소하여 제조업 관련 인력 유입 둔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전북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총량 지표의 안정성에 비해 임금 수준, 고용 형태, 연령 구조 등 질적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생태의 영세화와 직무 미스매치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적 인력양성 전략이 필요함

2) 복지·보건 분야의 인력 집중과 질적 과제

- 산업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이 전체 종사자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고용 구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 고령화 심화와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전북의 산업·고용 구조가 점차 복지·보건 중심의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

- 특히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이 모두 복지·보건 관련 분야로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식료품 제조업’이 여성근로자 수 상위 3개 업종으로 나타남. 전북의 인력 구조가 여성·연령별 편중이 큰 노동시장 특성을 보임
- 직종별 인력 이동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종교직’은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많아 인력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간병·육아)’ 직종은 퇴직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많아 초과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돌봄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 여건과 임금 수준 등 질적 요인으로 인한 인력 이탈이 발생함
 - 인력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직무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가 미흡하여 직무 미스매치와 이직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직무 단위별 전문화·차별화된 훈련 체계 구축,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임금·고용 안정성 제고 등이 필요함

3) 제조업 인력의 유출과 신입인력 유입 둔화

- 제조업 부문은 산업 전반의 고용 감소세 속에서 신입인력 유입 둔화와 숙련인력 유출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를 보임
 - 인력 수요 전망을 보면, 제조업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인력 증가세를 예상하였으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에서 인력 수요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제조업이 여전히 산업생산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인력 확보가 어렵고 충원 수요가 정체되고 있음
- 직종별 인력 이동 현황을 보면, ‘제조 단순직’은 퇴직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많은 초과 유출 직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기계 설치·정비·생산직’과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조 직종에서 인력 유입보다 유출이 많거나 정체된 양상을 보임
 -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 인력의 이탈이 지속되고, 신규 채용 인력이 장기 근속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인력 순환 불균형이 발생함
- 전북의 제조업은 생산기반은 유지되고 있으나 청년층 진입 저조, 숙련 인력 고령화, 단기근속 확산으로 인해 산업 내 인력 재생산 구조가 약화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기반 재직자 훈련 및 전환 훈련 강화, 청년층 대상 채용약정형·산학연계형 훈련 확대, 숙련인력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직무경력경로 설계 등이 필요함

4) 인력 이동성과 고용 질의 이중구조

- 전북지역 노동시장은 산업별·직종별 인력 이동에서 양적 고용 안정성과 질적 고용 격차가 병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임
 - 인력 유입·유출 현황에 따르면, ‘섬유·의복 생산직’, ‘사회복지·종교직’, ‘건설·채굴직’ 등은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많아 인력 유입이 발생한 반면, ‘돌봄 서비스(간병·육아)’, ‘운전·운송직’, ‘제조 단순직’은 퇴직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많아 초과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산업 전반의 고용량은 유지되는 가운데, 인력 순환 속도와 고용 안정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력 부족률에 따르면, 전북의 전체 인력 부족률은 2.2%로 전국평균(2.5%)보다 낮으나, 부족인원이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료직’에 집중되어 있음. 부족률이 높은 직종은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으로 나타나 단기 근속과 계절형 고용이 반복되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불안정 구조가 나타남
- 전북지역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확대 중심을 넘어 직무 지속성·근속 유인·임금 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고용 체계 강화로의 전환이 필요함. 업종별 이직률·근속기간·임금 수준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 기반 고용 품질 개선형 훈련을 연계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함

5) 외국인 인력의 산업별 집중과 관리 필요성

-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총 8,974명으로 나타남.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비숙련,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제조업 내 국내 인력의 이탈과 충원난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비숙련직의 비중이 높고, 기술직이나 관리직 등 숙련인력 비중이 낮아 장기적으로는 현장 안전관리, 의사소통, 기술 전수 미흡 등 관리상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인 인력 정책은 산업별 특성에 맞춘 한국어·안전·직무교육 강화가 요구되며, 숙련 외국인에 대한 기능인력 양성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2. 심층 수요조사 분석 결과

가. 심층 수요조사 개요

1) 심층 수요조사 목적

- 심층 수요조사는 기초 수요조사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전북지역 내 기업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산업계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심층 수요조사를 실시함
- 기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반적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전제로 특정 업종·지역·사업체 규모에서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임
- 기초 수요조사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는 세부 영역 조사, 지역 고용·노동 이슈 조사 등을 통해 기초 수요조사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함

2) 심층 수요조사 추진 체계

〈 그림 18 〉 심층 수요조사 추진 체계



- 심층 수요조사는 전북지역 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확인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한 훈련과정 개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히, 전북인자위는 심층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나. 심층 수요조사 결과

1) 2025년도 심층 수요조사 추진 현황

〈 표 71 〉 2025년도 심층 수요조사 추진 현황

순	조사대상	주요내용	비고
1	농생명	- 일시 : (1차) 25. 4. 9. (2차) 25. 7. 29. - 대상 : 농식품산업 관련 기업 6 개사 및 훈련공급기관 - 내용 : 산업동향, 인력 및 채용동향, 교육훈련 동향 등 - 방법 : 문헌조사, 설문조사, FGI 등	- 훈련과정 개발 (산대특 사업 연계)
2	새만금-이차전지	- 일시 : (1차) 25. 4. 14. (2차) 25. 7. 29 - 대상 : 이차전지 관련 기업 6개 사 및 유관기관 - 내용 : 산업동향, 인력 및 채용동향, 교육훈련 동향 등 - 방법 : 문헌조사, FGI 등	- 훈련과정 개발
3	고령화 사회	- 일시 : (1차) 25. 4. 11. (2차) 25. 7. 31. - 대상 : 중장년·노일 일자리 관련 기관 담당자 - 내용 : 인구동향, 일자리동향, 교육훈련 동향 등 - 방법 : 문헌조사, FGI 등	- 전북자치도 인구구조 관련 자료 활용
4	건설업	- 일시 : (1차) 25. 3. 31. (2차) 25. 7. 24 - 대상 : 건설업 관련 기업 6개사 및 유관기관 - 내용 : 산업동향, 인력 및 채용동향, 교육훈련 동향 등 - 방법 : 문헌조사, FGI 등	-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 수립
5	자동차부품	- 일시 : 25. 9. 11. - 대상 : 자동차 관련 기업 4개 사 - 내용 : 산업동향, 인력 및 채용동향, 교육훈련 동향 등 - 방법 : 문헌조사, FGI 등	- 훈련과정 개발
6	주축산업	- 기간 : 25. 9. 1. ~ 10. 30 - 대상 : 전북지역 주축산업 기업 - 내용 : 인력현황, 핵심 직무 요구역량, 훈련수요 등 - 방법 : 설문조사, FGI 등	
7	외국인 고용기업	- 기간 : 25. 9. 1. ~ 10. 30 - 대상 : 전북지역 주축산업 기업 중 외국인 고용 기업 - 내용 : 인력현황, 핵심 직무 요구역량, 훈련수요 등 - 방법 : 설문조사	

다. 심층 수요조사 결과 시사점

1) 농생명(농식품) 산업 교육체계 강화 필요

(1) 전북지역 내 농생명 산업 동향

-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농식품) 산업은 지역 경제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대비 농식품 중심의 산업 편중이 뚜렷하게 나타남
- 2023년 기준 전북의 실질 GRDP는 약 59조 원으로 전국의 2.6% 수준이며, 이 중 농림어업이 5.6%, 음식료품 제조업이 4.4%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보다 1.5~2배 높은 비중을 보여줌

〈 표 72 〉 전국 및 전북지역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단위: 십억 원)

구 분	전 국			전 북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총부가가치	2,155,993	2,214,911	2,246,567	58,224	58,989	58,846
농업, 임업 및 어업	33,681	33,950	33,106	3,396	3,547	3,290
제조업	563,679	577,609	587,423	12,447	12,543	12,104
↳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28,682	32,070	31,582	2,371	2,702	2,610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 -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당해년도)

- 전북 내 제조업체 약 8,700개 중 1,500개(18%)가 10인 미만의 소규모·영세기업이며, 이 중 90% 이상이 농식품 업종에 속해 있음. 이러한 영세 구조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설비 고도화, 전문인력 채용 등 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제약으로 작용함
-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전북 식품가공·제조업은 매출액(65.3%), 종사자 수(40.2%), 사업체 수(29.3%)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세를 이어옴. 이는 농생명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보여줌

(2) 전북지역 내 농생명 산업 동향

- 전북 농생명(농식품) 산업은 기업 구조의 영세성으로 인해 인력 확보와 채용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북 내 다수의 농식품 제조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연구개발(R&D) 투자, 설비 확충, 전문인력 채용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현장 인력 부족과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 인력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청년층과 국내 인력은 농식품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고용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낮은 임금 수준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
- 특히, 식품 기업 내 기술직(기계·자동화 관련), 생산직 인력 확보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고학력자나 기계 전공자의 경우 식품 분야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수도권 및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유인책 때문임
-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도심과 떨어진 농촌 지역의 기업은 출퇴근 문제까지 더해져 채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

시사점	인력 및 채용 동향은 ① 영세 구조에 따른 성장 기반 취약, ②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 기피에 따른 인력 부족 ③ 낮은 임금 경쟁력과 접근성 문제로 인한 인력 유출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

(3) 전북지역 내 농생명 산업 동향

-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는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수요와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ERP,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실무교육이지만, 현재 운영되는 집체교육 중심, 장기 과정 위주의 방식은 기업의 생산 현장 여건과 잘 맞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남. 따라서 기업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방문형 교육 방식 도입이 강하게 요구됨
-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간 직원들을 집체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짧고 유연한 온라인 과정에 대한 선호가 높음
 - 특히 신규 입사자나 재직자의 경우 온라인 사전학습을 통해 기본 역량을 확보한 뒤, 현

장에서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의 훈련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됨

- 단순 이론 강의보다는 **실습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됨
- 더 나아가 교육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산업계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현장 실무 경험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은 실질적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산업계가 직접 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여 현장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도내 대학·연구기관·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중복 교육을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요구됨

시사점	교육·훈련은 ① 현장 맞춤형·방문형 프로그램 확대 ② 온라인·단기 교육 과정 보급 ③ 산업계 주도형 협력 인프라 강화가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됨
-----	--

(4) 종합 결과

산업 측면		농생명(농식품) 산업의 GRDP 비중이 전국 대비 1.5~2배 높으며 주축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소규모 기업 중심 구조로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단계
인력 측면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의 기피로 생산 인력 부족 심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확대로 구조적 한계 존재
교육·훈련 측면		현장 수요와 기존 훈련 방식 간 괴리로 참여율이 낮아, 온라인·단기·산업계 참여형(맞춤형) 교육체계 강화 필요

결론적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안정적 인력 확보,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산업·인력·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인재양성 전략으로 발전해야 함

2) 새만금-이차전지 산업 교육훈련 접근성 강화 필요

(1) 전북지역 내 이차전지 산업 동향

-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산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전기차 캐즘(Chasm) 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이 침체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신규 설비 투자 및 양산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함.
*캐즘(Chasm): 초기시장과 주류시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
- 전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후 이차전지 관련 투자 유치 성과를 일부 거두었으나, 실질적인 기업 입주와 생산 가동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설비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계획을 보류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제조단가가 불안정해졌으며, 배터리 단가 하락 압력까지 겹치면서 중소 부품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인력 및 채용 동향

- 전북지역 이차전지 관련 직업별 인력수요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표 73 〉 전북지역 이차전지 관련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치

(단위: 명)

구분 (한국고용직업분류)		2024년	2025년	2026년
전북지역		310,990	314,419	317,835
2차 배터리 산업	합계	8,098	8,157	8,219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167	3,190	3,215
	831. 전기공	1,683	1,693	1,703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63	63	64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23	23	23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54	860	866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19	825	832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1,490	1,503	1,516

출처 :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4년 기초조사

- 그러나 산업 구조 측면에서 보면, 전북은 여전히 이차전지 산업의 지역 내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제조업 중 이차전지 관련 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0.13%, 전체 산업에서는 0.01%에 불과하며,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도와 기술 역량이 미흡한 상황임.
- 이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의 장기 근속 유지가 어려운 구조를 보임. 특히 연구개발 및 생산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신규 채용 이후 단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 미흡은 인력 확보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교통·숙소·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의 이직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주 여건 개선 및 근로자 정착 지원을 병행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외국인 근로자 채용 또한 비자, 숙소, 교통 등 행정·생활 인프라 미비로 어려움이 지속됨.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 파견 인력 또는 자동화 설비 확충을 검토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인력 수요조사 체계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별 세부 역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직무 기반 정밀 수요조사 체계 구축 및 직업별 역량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시사점	인력 및 채용 동향은 ① 전문·숙련 인력 확보 기반 확충, ② 대기업 중심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 유지·보상체계 강화, ③ 인프라 개선과 외국인 인력 유입 활성화 지원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됨
-----	---

(3) 교육·훈련 동향

- 전북지역의 이차전지 관련 교육·훈련 인프라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차전지 관련 장비를 단일 기관에서 모두 확보하기 어려워, 대학·유관기관·공동훈련센터 간 장비 공유 및 교육과정 연계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교육자원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실습 중심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또한 재직자 교육 참여율이 낮은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교육 참여 시 급여 감소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교육장이 주로 전주권에 집중되어 군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산권 중심의 교육 거점 조성 또는 온라인·순회형 교육 체계 도입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전북지역의 이차전지 관련 **향상훈련** 수요는 전체 훈련 수요의 약 5% 수준으로 매년 20~30명씩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산업 확산에 비해 훈련 참여 인원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향후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 표 74 〉 전북지역 이차전지 관련 직업별 향상훈련수요 전망치

(단위: 명)

구분 (한국고용직업분류)		2024년	2025년	2026년
전북지역		34,958	35,505	35,957
2차 배터리 산업	합계	1,691	1,712	1,726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037	1,049	1,059
	831. 전기공	267	270	272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40	41	41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78	282	284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69	70	70

출처 :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4년 기초조사

- 현장에서는 **입사 전 공통 역량 교육**, 특히 **기초화학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기업들은 생산공정 전반에서 화학물질의 반응, 안전관리, 품질 유지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근로자들이 화학 기초지식이 부족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 아울러 단기 취업 중심의 현행 교육만으로는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됨. 이에 따라 **학생·청년층 대상 장기적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산학 연계형 장기 교육과정**, **지역 특화 직무교육**, **단계별 경력개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함.

시사점	교육·훈련은 ① 기관 간 장비 공유 및 교육 연계 체계 구축, ② 군산권 중심의 지역 거점 및 온라인·순회형 교육 확대, ③ 기초화학 등 공통 역량 교육 운영을 통한 실무기반 역량 제고가 요구됨
-----	--

(4) 종합 결과

- 전북 이차전지 산업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수요 둔화와 투자 지연 등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 국면에 있음. 일부 기업은 설비투자를 축소하거나 합작투자를 보류하는 등 보수적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중소 부품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산업 측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시장 불확실성과 투자 지연으로 인해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본격적인 산업 활성화 전 단계에 있음
인력 측면		인력 수요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정주 인프라 부족과 보상체계 미비, 직무 표준 부재 등으로 인해 숙련인력 확보와 장기 근속 유지가 어려운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음
교육·훈련 측면		군산권 중심의 교육 거점 조성, 온라인·순회형 교육 도입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기초화학 등 공통 역량 교육과 산학 연계형 장기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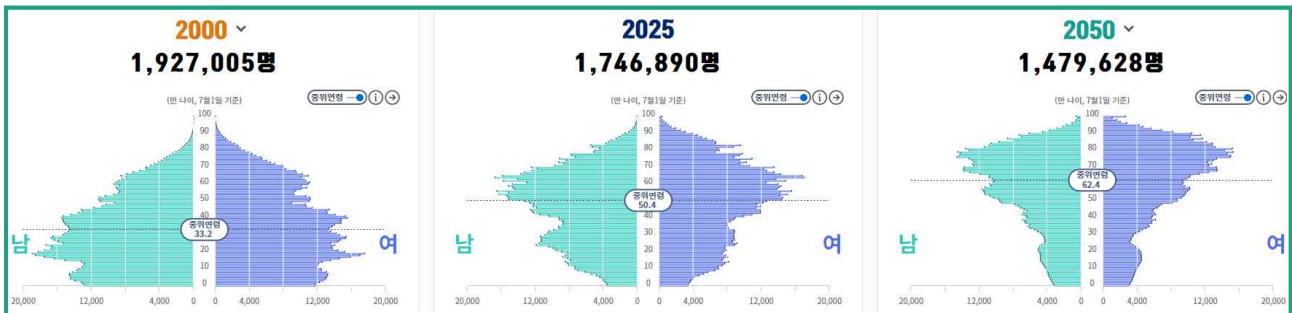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은 성장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산업·인력·교육 전반의 여건이 기반 조성 단계에 있으며, 향후 산업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기반 확충,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도출됨

3) 고령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 전략 필요

(1) 전북지역 인구 동향

-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65세 이상 인구 20.4%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 2월 기준 25.5%(442,141명)으로 전국 4위 수준을 기록함
 - 통계청(2025): 전국 20.2%(전남27.4%→경북26.3%→강원25.7%→전북25.5% 순)
- 또한 베이버부머세대 은퇴로 인해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 되며, 이에 따라 인구피라미드가 2050년에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피라미드형 → 2025년 종형 → 2050년 역피라미드형(고령인구 46.4%)

〈 그림 19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피라미드(2000~2050)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전북 인구상황판)

(2) 일자리 동향

- 2024년 기준 전북의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55.1%**로 전국 평균인 47.5%를 크게 상회하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60.4%)·제주(57.9%)·경북(56.7%)에 이어 전북과 충남이 각각 55.1%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전북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함을 보여줌.
- 전국적으로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12.8%), 농림어업(12.4%), 제조업(12.4%)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돌봄 및 복지 서비스 분야가 중요한 일자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전북은 고령층 취업이 제한된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남성은 경비, 여성은 미화·요양보호사 직종이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은 90% 이상이 재정 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가 제도적 일자리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고령층이 희망하는 직무와 실제 수요 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상황임. 고령층은 기존 업무 연장이나 사무직을 선호하나, 기업의 채용 수요 부족으로 취업이 제한되어 전북 내 채용 가능한 기업이 많지 않아 노인일자리사업 쏠림 현상이 발생함.
- 그렇기에 새로운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매칭 기반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며, 고령자 친화 기업 인증 기준 상향과 기업 유치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고령층 고용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시사점	전북 고령층 일자리는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① 직종의 다양성이 제한적이며, ② 제도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③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

(3) 교육·훈련 동향

- HRD-Net 기준 전북 60세 이상 고령층의 훈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자 양성 과정**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44%(1,88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정보통신(24%, 1,024명), 음식서비스(8%, 361명) 등이 잇고 있음
- **재직자 직무 향상 과정**에서는 **보건의료** 분야가 55%(9,408명)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복지(17%, 2,888명), 정보통신(7%, 1,123명) 순으로 나타나, 돌봄과 보건·복지 분야가 고령층의 주요 취업 및 훈련 참여 영역임을 보여줌. 향후 전북의 빠른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돌봄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돌봄 분야 종사자의 상당수는 단기·저임금·고강도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장기적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재 운영되는 교육훈련 과정도 기초 역량 중심으로 세분화된 직무 수요(치매·장애 돌봄, 방문 돌봄, ICT 활용 역량)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자기계발 의지가 높은 **新고령층**을 고려할 때, 단순 돌봄 중심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화·심화 과정과 비돌봄 분야로의 교육훈련 다변화가 필요함
- 고령층 맞춤형 안전 교육 시범 운영이 제안됨. 안전보건 교육 수요자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안전모니터링단·안전관리사 과정을 신설하여 일정 규모(예: 40~60명)로 시범 운영한 뒤 확산함으로써, 돌봄·복지 일자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고령층 역할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아울러 창업 연계 패키지형 과정 설계 필요성도 강조됨.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자 등록, 마케팅·판매 역량,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여 훈련-취업-창업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 마지막으로, 새만금 타운 조성 등 지역 산업 변화에 맞춘 기업 맞춤형 훈련 도입 시 고령층이 단순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지역 산업 수요 기반 직무와 연계되어, 취업 효과성과 노동시장 지속성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시사점	교육·훈련은 ① 치매·장애·방문 돌봄 등 세분화된 전문 훈련 과정 강화 ② 新고령층 특성을 반영한 자기계발형·비돌봄 분야 훈련 확대 ③ 지역 맞춤형·다변화된 훈련 전략 마련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됨
-----	---

(4) 종합 결과

- 전북 고령층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직무 선택 폭과 기업 채용 수요 간 불일치로 인해 일자리 집중과 편중 현상이 나타남

인구 측면		전북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와 고령층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정책·서비스 설계 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맞춤 전략 필요
일자리 측면		고령층 희망 직무와 실제 취업 수요 간 불일치가 존재하며, 기업 채용 부족으로 민간 고용이 제한되고, 제도적 일자리 의존도가 높음.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지자체-기업 연계 모델 필요
교육·훈련 측면		현재 교육훈련은 기초 과정 위주이며 돌봄·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전문성·직무 다양성 부족. 新고령층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창업 연계, 지역 맞춤형 훈련 등 연계 전략 필요

전북은 초고령화로 노동력 감소와 고령층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고령층 일자리는 제도 의존과 직종 집중,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를 안고 있음. 교육·훈련은 돌봄·보건 중심에 편중되어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며, 안전교육, 창업 연계, 지역 맞춤형 훈련 등 고령층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3. 인력 및 훈련 공급조사 분석 결과

가. 공급분석 자료 범위 및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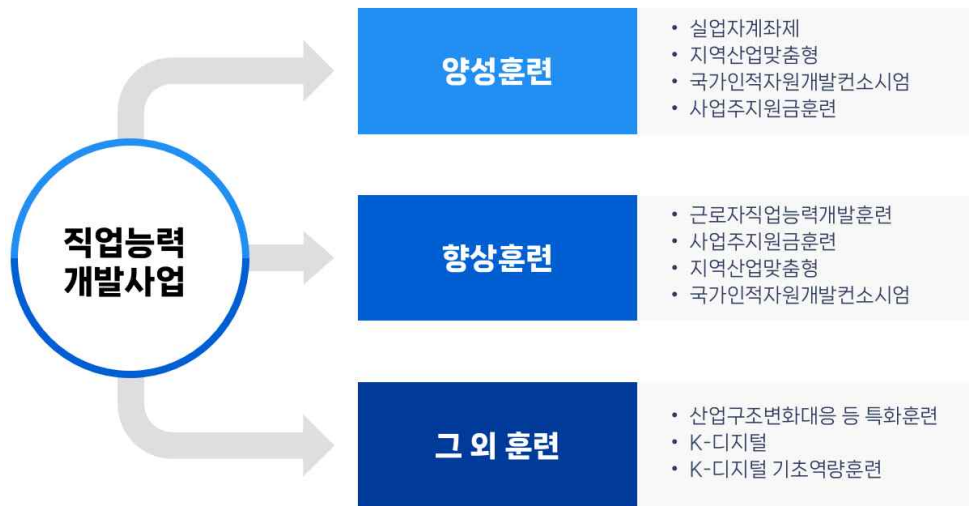
1) 분석 자료 및 방법

- 인력·훈련 공급분석의 목적은 전북지역에 필요한 직업(직종)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인력과 직업훈련의 종류 및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음.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 훈련이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한 훈련을 조종하여 효율적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과 훈련을 공급하기 위함임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전북지역 훈련과정의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 대상은 HRD-Net에 등록된 훈련과정으로 한정함. 분석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시자료(raw data)를 활용함
- HRD-Net 훈련과정을 KECO(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로 매칭하여 직업별로 다음 항목들을 중심으로 분석함
 - 직업(KECO) 단위 기준 :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등
 - 훈련과정 단위 기준 : 취업률 상·하위 과정, 훈련인원 증가·감소 추세 등

2) 전북지역 직업훈련 공급 체계

-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실업자훈련**과 **재직자훈련**으로 구분되며, 재직자훈련은 다시 근로자지원과 기업지원 형태로 구분됨
 - 실업자지원 훈련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실업자계좌제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지원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기업지원 훈련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등으로 구분됨.
 - HRD-Net data 기준으로는 실업자훈련의 대상은 ‘실업자’, 재직자훈련의 대상은 ‘근로자’ 및 ‘사업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외의 훈련은 양성과 향상 등으로 별도 구분되지 않음

〈 그림 20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도 체계



나. 전북지역 훈련 공급 기관 및 훈련 유형

1) 전북지역 교육훈련 기관 현황¹⁾

- 전북지역의 교육훈련기관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385개로 나타났으며, 세부 지역 별로는 전주시가 162개로 가장 많고, 군산시(68개), 익산시(63개) 순으로 분포함
 -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의 훈련기관 수는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훈련기관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밀집된 것으로 분석됨

〈 표 75 〉 최근 3개년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22	2023	2024
전주시	136	147	162
군산시	58	68	68
익산시	57	63	63
그 외 지역	68	88	92
합계	319	366	385

1) 전북지역 내 교육훈련기관 분석은 훈련기관소재지를 중심으로 ‘전북’ 지역에 소재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2) 훈련 유형별 훈련과정 현황

- HRD-Net에 등록된 전북지역 훈련유형별 훈련과정을 보면 2024년 2,070개 과정이 개설되었고, 2022년 이후 개설 과정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주요 훈련과정의 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지원금훈련이 1,04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계좌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훈련과정은 3개년 동안 증가하였으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찾아가는 직업훈련의 경우 3개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76 〉 최근 3개년 전북지역 훈련유형별 훈련과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22	2023	2024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378	488	463
사업주지원금훈련	492	747	1,04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68	80	8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30	97	98
실업자계좌제	298	298	286
지역산업맞춤형	67	54	68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36	37	22
K-디지털	2	2	3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	3
합계	1,471	1,803	2,070

※ 훈련과정 분석 시 동일과정에 대해 다회차 교육훈련이 개설된 경우에도 1개 훈련과정으로 분석하며, 훈련기관의 훈련개설 시 심사받은 훈련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함

- 2024년 NCS 대분류별 주요 훈련과정 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01. 경영·회계·사무’가 총 46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5. 기계(213개)’,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165개)’, ‘07. 사회복지·종교(14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개설된 ‘01. 경영·회계·사무’에서 가장 많이 개설된 주요 훈련과정은 사업주 지원금훈련(279개)으로 나타남,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114개), 실업자계좌제(58개) 순으로 나타남

〈 표 77 〉 2024년 NCS 대분류별 주요 훈련과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근로자 작업능력 개발훈련	사업주 지원금 훈련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국가기간 전문산업 직종훈련	실업자 계좌제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K다지털	K다지털 기초역량 훈련
01 사업관리	-	1	-	-	-	-	-	-	-
02 경영·회계·사무	114	279	2	7	58	4	3	-	-
03 금융·보험	-	3	-	-	-	-	-	-	-
04 교육·자연·사회과학	-	7	-	-	-	-	-	-	-
05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	6	-	-	-	-	-	-	-
06 보건·의료	39	62	-	-	40	-	-	-	-
07 사회복지·종교	3	142	-	-	3	-	-	-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23	-	-	19	7	1	3	1	-
09 운전·운송	6	126	-	-	-	5	-	-	-
10 영업판매	-	10	1	-	-	2	-	-	-
11 경비·청소	3	32	-	-	-	-	-	-	-
12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28	71	-	-	66	-	-	-	-
13 음식서비스	70	-	-	-	43	-	-	-	-
14 건설	27	21	-	12	18	9	2	-	-
15 기계	21	116	35	11	1	26	3	-	-
16 재료	18	26	27	7	2	4	2	-	-
17 화학	-	15	6	-	-	1	-	-	-
18 섬유·의복	7	1	-	-	7	1	-	-	-
19 전기·전자	16	52	-	20	2	8	3	-	2
20 정보통신	3	19	1	8	2	4	6	2	1
21 식품가공	46	7	13	-	25	1	-	-	-
22 인쇄·목재·가구·공예	13	-	-	11	2	-	-	-	-
23 환경·에너지·안전	1	30	1	3	1	2	-	-	-
24 농림어업	25	15	-	-	9	-	-	-	-

다. 지역 인력 및 훈련 공급조사 분석 결과

1) 전북지역 양성훈련 공급 현황

(1) 3개년 양성훈련 공급 현황(HRD-Net 3개년)

- 전북지역 양성훈련은 최근 3개년간 총 69,963명(실시인원 기준) 공급하였으며, 2023년 28,204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4년에는 19,047명으로 감소함
 - 훈련 실시인원 ('22) 22,712명 → ('23) 28,204명 → ('24) 19,047명
- 양성훈련 수료 후 취업률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 취업률 ('22년) 46.1% → ('23년) 42.0% → ('24년) 35.7%

〈 그림 21 〉 최근 3개년 양성훈련 실시 인원 및 취업률



- 주요 훈련과정별 최근 3개년 실시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K-디지털 훈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도에 훈련 공급량이 조정되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78 〉 최근 3개년 양성훈련 주요 훈련과정별 공급량(2022-2024년)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시인원	취업인원	실시인원	취업인원	실시인원	취업인원
전체	22,712	10,462	28,204	11,833	19,047	6,807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7,388	3,283	8,489	3,803	6,967	2,364
사업주지원금훈련	77	44	188	121	26	18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666	1,039	1,200	706	1,212	503
실업자계좌제	10,978	5,296	9,175	4,521	7,161	2,845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378	195	981	516	512	221
K-디지털	50	17	41	25	100	34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175	588	8,130	2,141	3,069	822

- 최근 3개년 양성훈련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직종은 정보통신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공학기술직(14,024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직(11,993명), 경영·행정·사무직(11,199명), 음식 서비스직(8,257명), 식품가공·생산직(4,585명) 순으로 나타남
 - 취업률의 경우, 3개년 평균 기준으로 보건·의료직(76.5%)이 가장 높았으며,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68.3%), 농림어업직(60.4%)이 뒤를 이음
 - 반면,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공학기술직(30.0%),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31.2%),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32.6%) 등은 평균 취업률이 30%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름

〈 표 79 〉 최근 3개년 직종별 양성훈련 공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취업률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취업률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취업률
전체	22,712	21,118	49.5%	28,204	26,725	44.3%	19,047	17,345	39.2%
02 경영·행정·사무직	3,564	3,229	56.1%	3,920	3,635	51.2%	3,715	3,406	37.5%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	2	50.0%	18	17	47.1%	10	5	20.0%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518	2,444	31.5%	8,457	8,323	27.7%	3,049	2,898	30.9%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42	389	60.4%	407	362	57.2%	395	357	45.1%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1	130	67.7%	136	118	58.5%	142	125	34.4%
21 교육직	12	12	25.0%	12	10	40.0%	9	9	33.3%
23 사회복지·종교직	107	103	36.9%	137	126	39.7%	39	36	27.8%
30 보건·의료직	865	779	79.6%	698	596	80.5%	547	474	69.4%
41 예술·디자인·방송직	1,128	994	57.9%	1,085	924	57.6%	945	801	41.8%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4	13	46.2%	14	14	42.9%	6	6	33.3%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171	1,049	57.2%	1,211	1,106	61.8%	1,272	1,094	43.6%
53 음식 서비스직	3,115	2,920	47.9%	2,812	2,653	49.3%	2,330	2,098	36.7%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5,038	4,917	44.3%	4,700	4,603	46.3%	2,255	2,199	46.2%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45	45	40.0%	127	118	39.8%	167	155	18.1%
62 운전·운송직	273	248	58.5%	263	257	63.8%	304	277	45.8%
70 건설·채굴직	721	625	53.1%	640	579	54.4%	573	490	38.2%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96	256	66.0%	357	334	55.4%	547	511	31.7%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08	180	73.3%	235	216	75.0%	245	216	56.5%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701	604	56.3%	770	676	53.6%	702	612	45.6%
86 섬유·의복 생산직	153	139	40.3%	180	156	47.4%	143	123	25.2%
87 식품가공·생산직	1,750	1,631	46.2%	1,544	1,440	47.0%	1,291	1,112	38.1%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22	298	39.3%	189	181	32.6%	213	203	21.7%
90 농림어업직	126	111	70.3%	292	281	50.9%	148	138	60.1%

- 제조업 관련 훈련 공급량을 보면, 식품가공·생산직(4,585명) 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173명),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200명),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724명),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688명), 섬유·의복 생산직(476명) 순으로 나타남
- 취업률의 경우, 3개년 평균 기준으로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68.3%)과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51.8%), 기계 설치·정비·생산직(51.0%)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 반면, 섬유·의복 생산직(37.6%), 식품가공·생산직(43.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31.2%)은 취업률이 낮은 직종으로 나타남

〈 표 80 〉 제조업 최근 3개년 양성훈련 공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취업률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취업률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취업률
전체	6,091	5,684	42.7%	11,886	11,461	34.1%	6,342	5,805	34.5%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	2	50.0%	18	17	47.1%	10	5	20.0%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518	2,444	31.5%	8,457	8,323	27.7%	3,049	2,898	30.9%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1	130	67.7%	136	118	58.5%	142	125	34.4%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96	256	66.0%	357	334	55.4%	547	511	31.7%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08	180	73.3%	235	216	75.0%	245	216	56.5%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701	604	56.3%	770	676	53.6%	702	612	45.6%
86 섬유·의복 생산직	153	139	40.3%	180	156	47.4%	143	123	25.2%
87 식품가공·생산직	1,750	1,631	46.2%	1,544	1,440	47.0%	1,291	1,112	38.1%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22	298	39.3%	189	181	32.6%	213	203	21.7%

(2) 2024년 기준 양성훈련 공급 현황

- 2024년 기준 양성훈련 공급량은 19,047명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훈련 실시인원 대비 수료률은 91.1% 수준임
 - 주요 훈련과정별 훈련 공급 현황을 보면 실업자계좌제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률은 사업주지원금 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81 〉 2024년 전북지역 양성훈련 공급량 전체

(단위: 명)

구 분	2024년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체	19,047	17,345	6,807	39.2%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6,967	6,439	2,364	36.7%
사업주지원금훈련	26	26	18	69.2%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1,212	940	503	53.5%
실업자계좌제	7,161	6,457	2,845	44.1%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512	439	221	50.3%
K-디지털	100	76	34	44.7%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3,069	2,968	822	27.7%

- 2024년 실시한 양성훈련 공급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이 3,7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음식 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남
- 취업률은 보건·의료직에서 69.4%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어업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순으로 나타남.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종은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임

〈 표 82 〉 2024년 전북지역 양성훈련 공급량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단위: 명, %)

구 분		2024년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체		19,047	17,345	6,807	39.2%
02	경영·행정·사무직	3,715	3,406	1,278	37.5%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0	5	1	20.0%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49	2,898	896	30.9%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95	357	161	45.1%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2	125	43	34.4%
21	교육직	9	9	3	33.3%
23	사회복지·종교직	39	36	10	27.8%
30	보건·의료직	547	474	329	69.4%
41	예술·디자인·방송직	945	801	335	41.8%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6	6	2	33.3%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272	1,094	477	43.6%
53	음식 서비스직	2,330	2,098	769	36.7%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255	2,199	1,016	46.2%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67	155	28	18.1%
62	운전·운송직	304	277	127	45.8%
70	건설·채굴직	573	490	187	38.2%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547	511	162	31.7%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45	216	122	56.5%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702	612	279	45.6%
86	섬유·의복 생산직	143	123	31	25.2%
87	식품가공·생산직	1,291	1,112	424	38.1%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13	203	44	21.7%
90	농림어업직	148	138	83	60.1%

- 직종 소분류 기준 2024년 훈련 공급량 상위 직종은 컴퓨터시스템 전문가(2,592명, 취업률 31.3%), 주방장 및 조리사(2,330명, 36.7%), 돌봄 서비스 종사자(2,255명, 46.2%) 순으로 나타남
 - 취업률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69.4%), 용접원(56.5%), 물품이동장비 조작원(48.0%)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6.7%),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18.1%),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21.1%) 등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표 83 〉 2024년 전북지역 양성훈련 공급량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 상위 20개
(단위: 명, %)

순위	구 분		2024년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취업 인원	취업률
전체			17,600	16,090	6,279	39.0%
1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2,592	2,510	786	31.3%
2	531	주방장 및 조리사	2,330	2,098	769	36.7%
3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255	2,199	1,016	46.2%
4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1,749	1,653	596	36.1%
5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291	1,112	424	38.1%
6	511	미용 서비스원	1,272	1,094	477	43.6%
7	026	경영지원 사무원	1,052	946	315	33.3%
8	415	디자이너	765	637	286	44.9%
9	027	회계·경리 사무원	715	652	294	45.1%
10	831	전기공	693	603	276	45.8%
11	307	보건·의료 종사자	547	474	329	69.4%
12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428	364	100	27.5%
13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95	357	161	45.1%
14	702	건축마감 기능원	290	263	85	32.3%
15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278	252	121	48.0%
16	824	용접원	245	216	122	56.5%
17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98	190	40	21.1%
18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186	178	12	6.7%
19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67	155	28	18.1%
20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152	137	42	30.7%

- NCS 기준 양성훈련 공급량 상위 50개를 살펴보면 정보기술전략·계획이 2,6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사무, 의료기술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84 〉 2024년 전북지역 양성훈련 공급량 - NCS 소분류 상위 50개

(단위: 명, %)

순위	구 분		2024년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취업 인원	취업률
전체			17,600	16,090	6,279	39.0%
1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605	2,519	793	31.5%
2	020203	일반사무	2,367	2,220	790	35.6%
3	060101	의료기술지원	2,147	2,091	964	46.1%
4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1,291	1,112	424	38.1%
5	130101	음식조리	1,192	1,051	390	37.1%
6	120101	이·미용서비스	1,147	983	447	45.5%
7	130102	식음료서비스	1,138	1,047	379	36.2%
8	190107	전기공사	693	603	276	45.8%
9	020302	회계	657	602	271	45.0%
10	060204	임상지원	547	474	329	69.4%
11	020201	총무	471	408	141	34.6%
12	080201	디자인	433	378	174	46.0%
13	200102	정보기술개발	428	364	100	27.5%
14	140302	건축시공	398	338	113	33.4%
15	140704	적재기계운전	278	252	121	48.0%
16	150502	냉동공조설비	254	231	109	47.2%
17	140301	건축설계·감리	251	217	107	49.3%
18	160105	용접	245	216	122	56.5%
19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227	191	79	41.4%
20	240104	화훼장식	191	180	39	21.7%
21	190311	3D프린터개발	186	178	12	6.7%

22	140501	조경	178	167	63	37.7%
23	110201	청소	167	155	28	18.1%
24	220101	출판	149	106	53	50.0%
25	180202	패션제품생산	143	123	31	25.2%
26	140701	토공기계운전	130	112	54	48.2%
27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127	118	33	28.0%
28	240201	축산자원개발	125	111	30	27.0%
29	020403	무역·유통관리	121	95	44	46.3%
30	070301	보육	108	108	52	48.1%
31	150603	자동차정비	107	102	41	40.2%
32	240301	산림자원조성	79	79	54	68.4%
33	150102	기계설계	60	51	27	52.9%
34	190315	스마트팜개발	60	57	3	5.3%
35	240302	산림관리	45	40	22	55.0%
36	020102	홍보·광고	43	39	11	28.2%
37	080304	영상제작	43	36	12	33.3%
38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39	36	10	27.8%
39	230502	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35	32	14	43.8%
40	200204	실감형콘텐츠제작	30	22	4	18.2%
41	220201	공예	30	28	7	25.0%
42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22	17	13	76.5%
43	200106	정보보호	14	14	3	21.4%
44	020202	인사·조직	10	10	3	30.0%
45	140303	건축설비설계·시공	10	8	6	75.0%
46	190103	송배전 설비	9	9	3	33.3%
47	220202	귀금속·보석	8	7	4	57.1%
48	230601	산업안전관리	6	6	2	33.3%
49	200201	유선통신구축	2	1	-	0.0%
50	240303	임산물생산·가공	1	1	-	0.0%

(3) 훈련생 특성별 양성훈련 참여 현황

- 성별을 기준으로 2024년 양성훈련 참여자를 보면, 여성이 13,132명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며, 남성이 5,915명으로 전체의 약 31.1%를 차지함
 - 남성 비중이 높은 직종은 운전·운송직(288명, 취업률 46.6%) 건설·채굴직(454명, 42.0%) 기계 설치·정비·생산직(399명, 41.0%) 등이 있음
 - 여성 비중이 높은 직종은 돌봄 서비스직(1,831명, 취업률 40.8%) 미용·예식 서비스직(1,156명, 44.8%) 음식 서비스직(1,725명, 36.6%) 경영·행정·사무직(2,834명, 31.9%) 등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직의 경우 여성 참여가 53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취업률은 57.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표 85 〉 2024년 성별에 따른 양성훈련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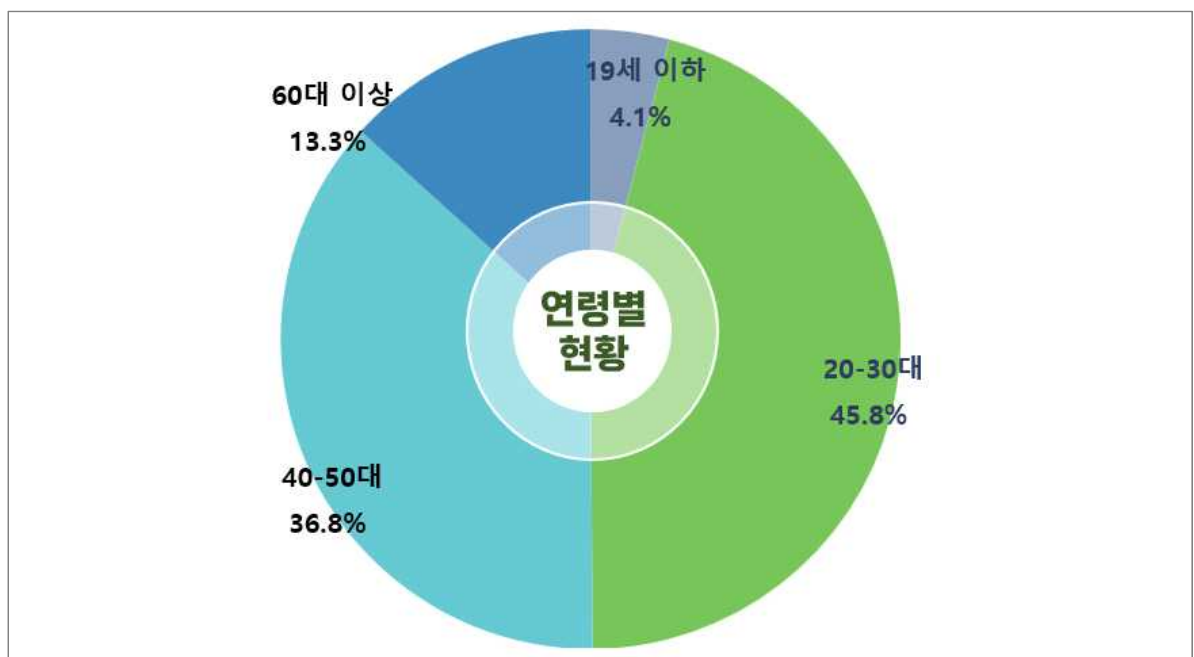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남성		여성	
	실시 인원	취업률	실시 인원	취업률
전체	5,915	40.5%	13,132	35.8%
02 경영·행정·사무직	881	31.9%	2,834	36.1%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4	0.0%	6	16.7%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81	36.1%	2,368	28.3%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3	46.2%	162	38.9%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3	46.8%	69	20.3%
21 교육직	1	100.0%	8	25.0%
23 사회복지·종교직	8	0.0%	31	32.3%
30 보건·의료직	16	57.1%	531	60.5%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04	39.4%	541	37.0%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6	33.3%	-	0.0%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16	44.8%	1,156	37.5%
53 음식 서비스직	605	36.6%	1,725	34.0%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424	40.8%	1,831	46.3%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0.0%	167	16.8%
62 운전·운송직	288	46.6%	16	31.3%
70 건설·채굴직	454	42.0%	119	22.7%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399	41.0%	148	8.1%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43	57.0%	2	0.0%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657	46.5%	45	28.9%
86 섬유·의복 생산직	8	25.0%	135	21.5%
87 식품가공·생산직	282	33.8%	1,009	34.6%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2	30.0%	181	19.3%
90 농림어업직	100	63.8%	48	47.9%

- 연령에 따른 2024년 양성훈련 참여자 현황을 보면, 20-30대(8,718명, 취업률 39.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50대(7,009명, 취업률 39.5%), 60대 이상(2,536명, 취업률 36.2%), 10대(784명, 취업률 40.2%) 순으로 나타남

〈 그림 22 〉 2024년 양성훈련 연령대별 훈련 참여 현황



- 청년층(20~30대) 훈련생 수는 8,718명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률은 39.9%임.
청년층의 교육훈련 참여가 가장 많은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2,415명)이며, 다음으로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200명) 순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보건·의료직(71.4%)이며, 다음으로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55.1%) 등이 뒤를 이음
- 중장년층(40~50대) 훈련생 수는 7,009명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률은 39.5% 수준임.
중장년층의 교육훈련 참여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507명)이며,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직(1,192명) 순으로 나타남
- 고령층(60세 이상) 훈련생 수는 2,53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취업률은 36.2% 수준임

〈 표 86 〉 연령층에 따른 양성훈련 참여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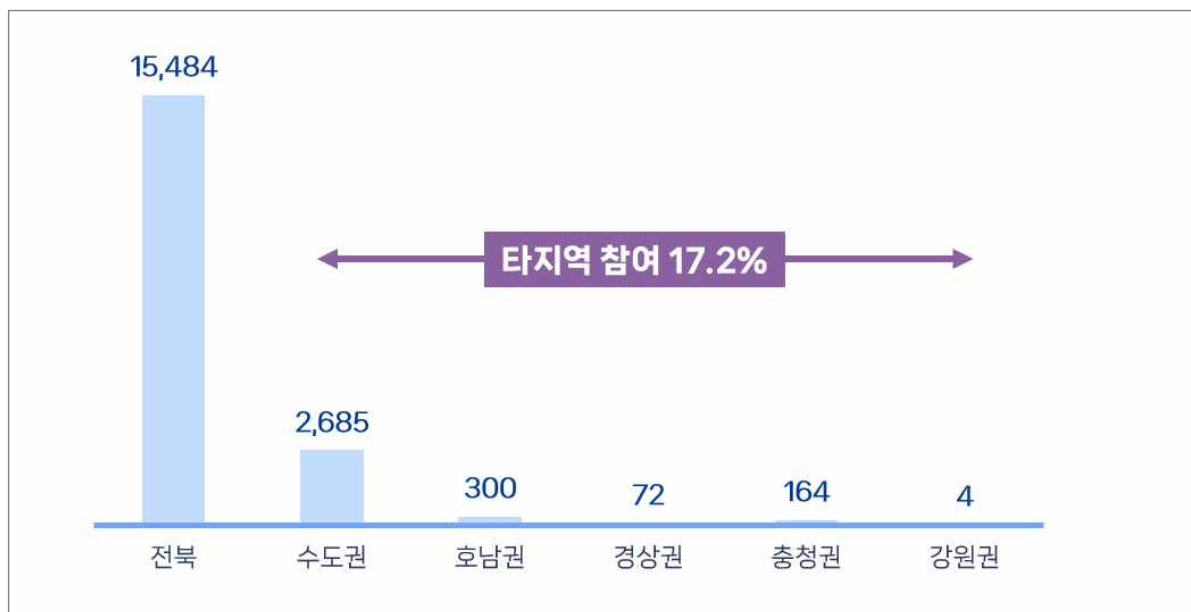
구 분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실시 인원	취업률	실시 인원	취업률	실시 인원	취업률	실시 인원	취업률
전체	784	40.2%	8,718	39.9%	7,009	39.5%	2,536	36.2%
02 경영·행정·사무직	78	26.5%	2,415	36.4%	1,031	42.0%	191	31.4%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	0.0%	4	0.0%	5	50.0%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3	16.7%	1,200	36.4%	1,507	29.8%	309	16.7%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	100.0%	213	47.0%	85	51.9%	94	34.4%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	0.0%	73	40.0%	45	23.1%	22	42.1%
21 교육직			2	50.0%	5	20.0%	2	50.0%
23 사회복지·종교직			19	27.8%	20	27.8%		
30 보건·의료직	23	66.7%	326	71.4%	194	67.6%	4	25.0%
41 예술·디자인·방송직	35	13.6%	723	43.3%	147	45.2%	40	22.2%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	25.0%	2	50.0%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63	43.8%	714	42.8%	349	45.0%	46	44.2%
53 음식 서비스직	232	44.4%	892	39.1%	923	36.7%	283	25.5%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	0.0%	138	34.6%	1,192	48.2%	924	45.4%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6	6.7%	110	24.0%	41	7.5%
62 운전·운송직	1	0.0%	177	48.7%	99	47.4%	27	24.0%

70 건설·채굴직	6	50.0%	249	39.7%	221	36.2%	97	38.3%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3	36.4%	279	34.6%	177	25.0%	78	36.4%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1	0.0%	113	55.1%	105	62.5%	26	38.1%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4	10.0%	354	38.7%	205	54.3%	129	54.4%
86 섬유·의복 생산직	1	0.0%	45	25.0%	75	22.6%	22	35.0%
87 식품가공·생산직	175	50.0%	650	40.5%	368	34.4%	98	26.6%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	0.0%	100	31.6%	101	12.4%	11	20.0%
90 농림어업직	2	100.0%	15	53.8%	44	61.9%	87	59.3%

(4) 양성훈련 참여자의 타 지역 교육훈련 이동 현황

- 2024년 기준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양성훈련 참여자는 18,709명이며, 이 중 타 지역에서 교육을 수행한 인원은 3,220명으로 전체 훈련생의 17.2% 수준임
- 지역별 유출 현황을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2,6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호남권이 300명, 충청권 164명, 경상권 72명, 강원권 4명 순으로 나타남

〈 그림 23 〉 2024년 양성훈련 참여자의 타 지역 교육참여 현황



- 연령별 전북 외 타 지역 이동 현황을 보면,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북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87 〉 2024년 연령별 양성훈련생의 타 지역 교육훈련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북거주 훈련생	전북 내 교육훈련 참여	전북 외 교육훈련 참여	훈련이동 (유출률)
전체	18,709	15,484	3,225	17.2%
19세 이하	887	764	123	13.9%
20대	6,681	4,967	1,714	25.7%
30대	2,885	2,342	543	18.8%
40대	2,942	2,551	391	13.3%
50대	3,053	2,752	301	9.9%
60대 이상	2,261	2,108	153	6.8%

- 직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과정에서 전북 내 훈련 참여률이 높은 가운데, 보건·의료직(95.4%), 경영·행정·사무직(88.0%),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85.5%) 등은 전북 내 훈련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교육직(9.6%),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1.1%),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6.0%) 등은 타 지역 훈련 참여 비중이 높아 전북 내 훈련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표 88 〉 2024년 직종별 양성훈련생의 타 지역 교육훈련 참여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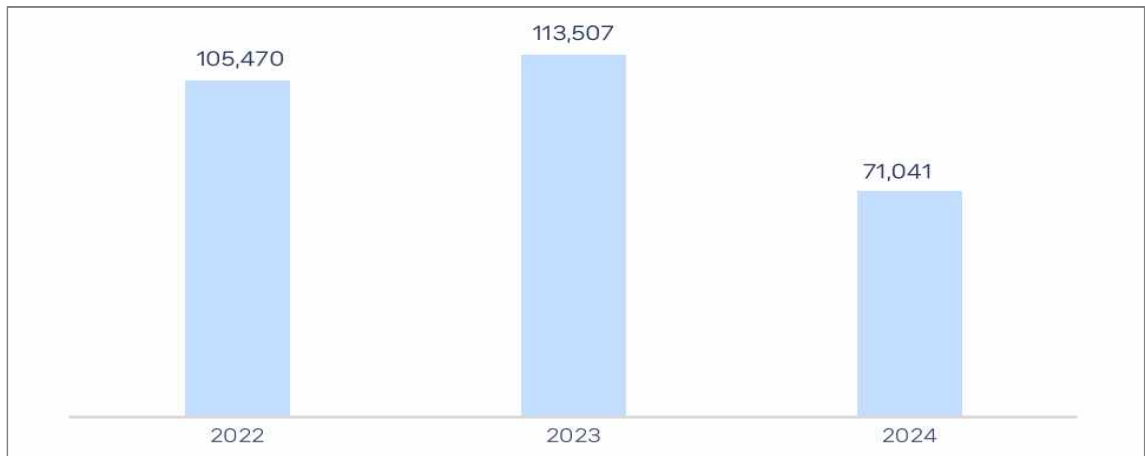
구 분	전북 거주 훈련생	전북 내 참여 훈련생	전북 외 타 지역에서 훈련 참여						
			비율	합계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강원권
전체	18,709	15,484	82.8	3,225	2,685	300	164	72	4
01 관리직(임원·부서장)	53	-	-	53	53	-	-	-	-
02 경영·행정·사무직	4,081	3,591	88	490	433	34	15	8	-
03 금융·보험직	25	-	-	25	25	-	-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0	9	45	11	4	-	6	1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36	425	26	1,211	1,170	24	8	9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14	354	86	60	53	3	1	3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75	79	21	296	271	14	4	7	-
21 교육직	83	8	10	75	75	-	-	-	-
22 법률직	27	-	-	27	27	-	-	-	-
23 사회복지·종교직	91	39	43	52	51	-	-	1	-
30 보건·의료직	562	536	95	26	14	7	4	1	-
41 예술·디자인·방송직	1,147	897	78	250	226	10	12	2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	2	100	-	-	-	-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299	1,222	94	77	20	36	16	5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5	-	-	15	14	1	-	-	-
53 음식 서비스직	2,367	2,258	95	109	41	47	8	13	-
54 경호·경비직	9	-	-	9	9	-	-	-	-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239	2,205	99	34	12	4	13	3	2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72	164	95	8	8	-	-	-	-
61 영업·판매직	16	-	-	16	13	3	-	-	-
62 운전·운송직	339	287	85	52	16	28	5	3	-
70 건설·채굴직	524	458	87	66	35	21	5	5	-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401	358	89	43	21	1	18	3	-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31	224	97	7	2	3	1	1	-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758	678	89	80	29	21	25	5	-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	-	1	1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3	-	-	3	3	-	-	-	-
86 섬유·의복 생산직	147	141	96	6	1	3	2	-	-
87 식품가공·생산직	1,317	1,243	94	74	29	31	12	1	1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39	208	87	31	15	9	5	1	1
90 농림어업직	116	98	85	18	14	-	4	-	-

2) 전북지역 향상훈련 공급 현황

(1) 3개년 재직자 향상훈련 공급 현황

- 전북지역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향상훈련은 3개년간 총 290,018명(실시인원 기준) 공급하였으며, 2023년 113,507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4년 71,041명으로 감소함
 - 훈련 실시인원 ('22) 105,470명 → ('23) 113,507명 → ('24) 71,041명

〈 그림 24 〉 최근 3개년 향상훈련 공급 현황



- 훈련과정별 최근 3개년 실시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K-디지털 훈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도에 훈련 공급량이 조정되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지원금 훈련의 경우 훈련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89 〉 최근 3개년 향상훈련 주요 훈련과정별 공급량(2022-2024년)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시인원	수료인원	실시인원	수료인원	실시인원	수료인원
전체	105,470	102,684	113,507	108,953	71,041	66,0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6,662	6,135	6,375	5,952	4,957	4,541
사업주지원금훈련	87,275	85,334	86,391	82,625	53,563	49,44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121	2,121	2,627	2,624	3,233	3,09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93	143	177	138	188	148
실업자계좌제	2,053	1,916	1,835	1,739	1,332	1,232
지역산업맞춤형	2,444	2,398	3,013	2,987	3,460	3,417
산대특	244	231	325	275	209	164
K-디지털	7	5	5	2	16	1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4,471	4,401	12,759	12,611	4,083	3,990

- 직종별로 보면 보건·의료직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023년에 단기간 급증 후 2024년에 급감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반면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교육직은 소폭 증가세가 나타남
 - 보건·의료직은 2022년 36,572명에서 2023년 48,941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24년 18,454명으로 크게 감소함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은 2023년 14,887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24년 4,831명으로 급감함
 - 경영·행정·사무직은 2022년 17,947명에서 2024년 11,466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임
 -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은 2023년 1,647명에서 2024년 2,037명으로 소폭 증가하여 다른 직종과 차별적인 흐름을 보임
 - 사회복지·종교직은 2022~2023년 9천명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7,746명으로 감소함
 - 교육직은 2022~2023년 20명 수준에서 2024년 145명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표 90 〉 최근 3개년 직종별 향상훈련 공급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전체	105,470	102,684	113,507	108,953	71,041	66,041
01 관리직(임원·부서장)	382	361	1,179	1,155	1,522	1,487
02 경영·행정·사무직	17,947	17,379	14,187	13,382	11,466	10,894
03 금융·보험직	114	105	63	58	71	63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0	10	16	16	32	23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2,471	12,032	14,887	14,491	4,831	4,709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36	1,291	1,212	1,173	530	498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823	1,752	1,647	1,562	2,037	1,973
21 교육직	22	21	21	21	145	115
23 사회복지·종교직	9,697	9,493	9,841	9,366	7,746	6,025

30	보건·의료직	36,572	36,030	48,941	47,047	18,454	18,052
41	예술·디자인·방송직	679	619	718	646	551	491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1	21	103	72	4	3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326	277	343	314	390	348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252	1,090
53	음식 서비스직	1,394	1,284	1,463	1,452	903	849
54	경호·경비직	3,826	3,652	1,144	1,068	2,901	2,799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9,070	8,975	3,042	2,927	631	611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1	48	1,968	1,935	1,707	1,472
61	영업·판매직	181	171	223	213	970	816
62	운전·운송직	242	232	97	96	2,176	2,011
70	건설·채굴직	491	457	1,171	1,161	507	407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958	2,879	432	386	5,121	4,587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311	291	4,387	4,221	721	683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53	3,245	826	781	3,494	3,393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	5	3,155	3,066	430	429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99	490	371	369	111	97
86	섬유·의복 생산직	93	83	224	208	577	500
87	식품가공·생산직	1,099	1,027	1,363	1,303	234	223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40	307	172	160	428	345
90	농림어업직	151	142	311	304	1,099	1,048
y	분류불능	6	5				

- 제조업 관련 직종의 향상훈련 공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8,016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향상훈련 공급량의 약 25.3%를 차지함. 전체 향상훈련의 공급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관련 직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 ('22) 22,962명(21.8%) → ('23) 27,480명(24.2%) → ('24) 18,016명(25.7%)
- 직종별 향상훈련 공급량을 보면,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공급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순으로 나타남
 - 기계 설치·정비·생산직과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의 공급량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식품가공·생산직은 2023년 공급량 증가 이후 2024년에 감소함
 - 섬유·의복 생산직은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의 경우 점진적 감소세를 보임

〈 표 91 〉 제조업 관련 최근 3개년 향상훈련 공급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공급량 전체	105,470	102,684	113,507	108,953	71,041	66,041
제조업 관련 전체	22,962	22,121	27,480	26,563	18,016	16,962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0	10	16	16	32	23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2,471	12,032	14,887	14,491	4,831	4,709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823	1,752	1,647	1,562	2,037	1,973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958	2,879	432	386	5,121	4,587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311	291	4,387	4,221	721	683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53	3,245	826	781	3,494	3,393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	5	3,155	3,066	430	429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99	490	371	369	111	97
86 섬유·의복 생산직	93	83	224	208	577	500
87 식품가공·생산직	1,099	1,027	1,363	1,303	234	223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40	307	172	160	428	345

(2) 2024년 기준 향상훈련 공급 현황

- 2024년 기준 향상훈련 공급량은 71,041명이며,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직’이 18,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 ‘사회복지·종교직’ 순으로 나타남
- 향상훈련 수료율은 평균 93.0%로 높은 편이나,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스포츠·레크레이션직’, ‘사회복지·종교직’, ‘교육직’의 수료율이 70% 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표 92 〉 2024년 전북지역 향상훈련 공급량 -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단위: 명, %)

구 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71,041	66,041	93.0%
01 관리직(임원·부서장)	1,522	1,487	98%
02 경영·행정·사무직	11,466	10,894	95%
03 금융·보험직	71	63	89%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2	23	72%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831	4,709	97%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30	498	94%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037	1,973	97%
21 교육직	145	115	79%
23 사회복지·종교직	7,746	6,025	78%
30 보건·의료직	18,454	18,052	98%
41 예술·디자인·방송직	551	491	89%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	3	75%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390	348	89%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252	1,090	87%
53 음식 서비스직	903	849	94%
54 경호·경비직	2,901	2,799	96%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631	611	97%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707	1,472	86%
61 영업·판매직	970	816	84%
62 운전·운송직	2,176	2,011	92%
70 건설·채굴직	507	407	80%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5,121	4,587	90%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721	683	95%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494	3,393	97%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430	429	100%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11	97	87%
86 섬유·의복 생산직	577	500	87%
87 식품가공·생산직	234	223	95%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28	345	81%
90 농림어업직	1,099	1,048	95%

- 직종 소분류 기준으로 보면, ‘보건·의료 종사자’가 16,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경영지원 사무원’ 순으로 나타남

〈 표 93 〉 2024년 전북지역 향상훈련 공급량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상위 20개)

(단위: 명, %)

구 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307 보건·의료 종사자	16,204	15,855	97.8%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5,377	3,859	71.8%
026 경영지원 사무원	4,226	3,951	93.5%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3,416	3,356	98.2%
541 경호·보안 종사자	2,838	2,742	96.6%
022 경영·인사 전문가	2,442	2,311	94.6%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69	2,166	91.4%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2,301	2,285	99.3%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1,981	1,803	91.0%
812 운송장비 정비원	1,750	1,595	91.1%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707	1,472	86.2%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1,600	1,555	97.2%
304 간호사	1,483	1,440	97.1%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1,237	1,075	86.9%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1,230	1,083	88.0%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1,188	1,188	100.0%
831 전기공	1,139	1,054	92.5%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1,089	1,076	98.8%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1,062	1,043	98.2%
531 주방장 및 조리사	902	848	94.0%

- NCS 기준 향상훈련 공급량 상위 50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가 8,9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사무’, ‘의료기술지원’, ‘경영기획’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94 〉 2024년 NCS기준 상위 50개 향상훈련 공급량

(단위: 명, %)

순위	NCS 코드	NCS명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1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9,321	8,904	95.5%
2	020203	일반사무	9,052	7,811	86.3%
3	060101	의료기술지원	6,438	6,297	97.8%
4	020101	경영기획	5,891	5,727	97.2%
5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3,906	3,838	98.3%
6	110101	경비·경호	3,040	2,924	96.2%
7	060102	보건지원	2,130	2,003	94.0%
8	150603	자동차정비	1,697	1,562	92.0%
9	060202	간호	1,694	1,658	97.9%
10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462	1,459	99.8%
11	020103	마케팅	1,428	1,401	98.1%
12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1,395	1,314	94.2%
13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1,315	1,167	88.7%
14	120301	여행서비스	1,237	1,075	86.9%
15	190107	전기공사	1,118	1,033	92.4%

16	020402	품질관리	1,097	1,040	94.8%
17	100202	부동산관리	996	985	98.9%
18	210101	식품가공	952	878	92.2%
19	230601	산업안전관리	709	608	85.8%
20	140704	적재기계운전	687	657	95.6%
21	200106	정보보호	674	674	100.0%
22	020401	생산관리	659	579	87.9%
23	050101	법무	640	124	19.4%
24	020202	인사·조직	616	579	94.0%
25	140501	조경	597	588	98.5%
26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572	496	86.7%
27	130101	음식조리	533	501	94.0%
28	110201	청소	517	374	72.3%
29	160202	전통세라믹제조	506	506	100.0%
30	160105	용접	503	481	95.6%
31	050202	방재	470	460	97.9%
32	150401	기계품질관리	428	355	82.9%
33	150301	기계조립	408	387	94.9%
34	200102	정보기술개발	382	361	94.5%
35	130102	식음료서비스	368	346	94.0%
36	150302	기계생산관리	352	309	87.8%
37	120101	이·미용서비스	337	304	90.2%
38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333	331	99.4%
39	190311	3D프린터개발	327	314	96.0%
40	100101	일반·해외영업	282	228	80.9%
41	020302	회계	274	242	88.3%
42	090101	자동차운전·운송	271	271	100.0%
43	070301	보육	270	251	93.0%
44	040301	직업교육	258	246	95.3%
45	140302	건축시공	258	234	90.7%
46	240301	산림자원조성	255	252	98.8%
47	200107	인공지능	210	162	77.1%
48	140301	건축설계·감리	206	177	85.9%
49	240302	산림관리	201	191	95.0%
50	150502	냉동공조설비	187	181	96.8%

(3) 훈련생 특성별 향상훈련 참여 현황

- 성별을 기준으로 2024년 향상훈련 참여자를 보면, 여성이 40,197명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하며, 남성이 30,844명 43.4%를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참여 훈련 분야를 보면, 남성은 ‘경영·행정·사무직’ 참여 인원이 5,1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훈련 참여 직종은 ‘보건·의료직’이 15,8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 ‘사회복지·종교직’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서비스·사무 중심 직종, 남성의 경우 제조·기술 중심 직종에서 훈련 참여가 활발한 경향을 보임. 향후 성별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 설계 및 참여 확대 전략이 필요하며, 여성은 보건의료직·사무직 중심, 남성은 제조·기술직 중심으로 훈련 수요가 구분되는 양상을 보임

〈 표 95 〉 2024년 성별에 따른 향상훈련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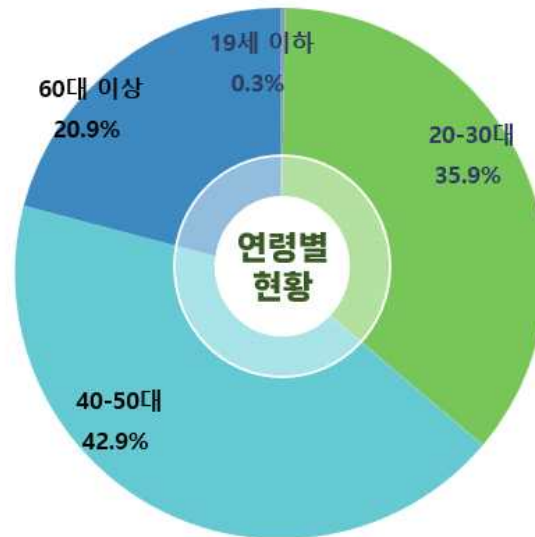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남성		여성	
	실시인원	수료인원	실시인원	수료인원
전 체	30,844	28,488	40,197	37,553
01 관리직(임원·부서장)	1,077	1,052	445	435
02 경영·행정·사무직	5,102	4,800	6,364	6,094
03 금융·보험직	52	48	19	15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1	22	1	1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21	1,481	3,310	3,228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30	308	200	190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297	1,257	740	716
21 교육직	19	13	126	102
23 사회복지·종교직	2,055	1,503	5,691	4,522
30 보건·의료직	2,633	2,536	15,821	15,516
41 예술·디자인·방송직	269	245	282	246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	3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22	19	368	329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51	225	1,001	865
53 음식 서비스직	204	187	699	662
54 경호·경비직	2,217	2,132	684	667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22	118	509	493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621	549	1,086	923
61 영업·판매직	385	284	585	532
62 운전·운송직	2,100	1,941	76	70
70 건설·채굴직	424	327	83	80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4,518	4,092	603	495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695	660	26	23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241	3,145	253	248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17	416	13	13
86 섬유·의복 생산직	28	21	83	76
87 식품가공·생산직	104	86	473	414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4	32	200	191
89 제조 단순직	269	221	159	124
90 농림어업직	802	765	297	283

- 연령에 따른 2024년 향상훈련 참여자 현황을 보면, 40-50대가 30,4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30대(25,483명), 60대 이상(14,853명) 순으로 나타남

〈 그림 25 〉 2024년 향상훈련 연령대 훈련 참여 현황



- 청년층(20-30대) 훈련생 수는 25,483명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교육훈련 참여가 가장 많은 직종은 '보건·의료직'이며,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순으로 나타남
- 중장년층(40-50대) 훈련생 수는 30,476명으로 청년층보다 다소 많았으며, 주요 참여 직종은 청년층과 유사하게 '보건·의료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 '사회복지·종교직',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순으로 조사됨

〈 표 96 〉 2024년 연령에 따른 향상훈련 참여 현황

(단위: 명)

구 분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 체	229	25,483	30,476	14,853
01 관리직(임원·부서장)	6	208	825	483
02 경영·행정·사무직	26	4,914	4,159	2,367
03 금융·보험직	-	71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13	16	3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	1,739	2,752	333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	276	194	59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	1,141	759	130
21 교육직	4	34	100	7
23 사회복지·종교직	-	1,238	2,796	3,712
30 보건·의료직	16	5,835	8,141	4,462
41 예술·디자인·방송직	6	293	208	44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2	2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9	202	162	17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	1,190	62	-
53 음식 서비스직	10	282	493	118
54 경호·경비직	-	1,052	1,444	405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	39	379	213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37	312	1,358
61 영업·판매직	-	365	538	67
62 운전·운송직	-	950	1,056	170

70 건설·채굴직	-	138	317	52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20	2,624	2,134	243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292	361	68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4	1,563	1,796	131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2	206	195	27
86 섬유·의복 생산직	-	32	65	14
87 식품가공·생산직	8	266	274	29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	78	143	13
89 제조 단순직	3	239	174	12
90 농림어업직	-	164	619	316

- 학력수준에 따른 향상훈련 실시인원을 보면, 학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류불능을 제외하고 고졸자가 17,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년제 졸업자가 8,277명, 전문대 졸업자라 2,641명 순으로 나타남
 - 고졸 이하, 4년제 졸업의 경우 ‘경영·행정·사무직’의 실시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자, 대학원 이상의 경우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실시인원이 가장 많았음

〈 표 97 〉 2024년 학력 수준에 따른 향상훈련 실시 현황

(단위: 명)

구 분	고졸	전문대졸	4년제 졸	대학원 이상	분류불능
전 체	17,104	2,641	8,277	759	42,260
01 관리직(임원·부서장)	91	-	-	-	1,431
02 경영·행정·사무직	3,249	275	2,690	57	5,195
03 금융·보험직	-	-	30	-	41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	-	2	1	26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18	844	1,624	316	1,129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21	65	274	28	42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0	34	66	13	1,784
21 교육직	2	4	112	-	27
23 사회복지·종교직	2,176	77	451	50	4,992
30 보건·의료직	608	228	171	2	17,445

41 예술·디자인·방송직	126	63	170	35	157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	-	2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85	88	100	17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231	-	-	-	21
53 음식 서비스직	333	194	318	56	2
54 경호·경비직	-	-	-	-	2,901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332	115	157	24	3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272	33	52	8	342
61 영업·판매직	46	-	153	-	771
62 운전·운송직	1,512	27	45	6	586
70 건설·채굴직	123	62	137	12	173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30	150	726	35	2,680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81	53	171	11	205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426	129	214	35	690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	-	430
86 섬유·의복 생산직	32	12	36	5	26
87 식품가공·생산직	188	115	231	29	14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67	48	101	17	1
89 제조 단순직	28	4	12	-	384
90 농림어업직	82	21	232	2	762

(4) 향상훈련 참여자의 타 지역 교육훈련 이동 현황

- 2024년 기준 전북지역 거주 근로자 지원 향상훈련생은 총 59,27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타 지역에서 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31,941명으로 전체 향상훈련생의 53.8%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23,3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권(3,397명), 경상권(3,300명) 순으로 나타남
- 직종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의 타 지역 훈련 참여가 9,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 ‘보건·의료직’, ‘금융·보험직’, ‘정보통신 연구 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순으로 나타남

〈 표 98 〉 2024년 전북 거주자의 훈련 참여 지역

(단위: 명)

구 분	주소지 전북	훈련참여 전북	타 지역 훈련 참여					
			전북 외 합계	수도권	광주전남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전 체	59,275	27,335	31,940	23,393	1,181	3,300	3,397	669
01 관리직(임원·부서장)	1,598	824	774	680	31	61	2	-
02 경영·행정·사무직	14,087	4,896	9,191	6,804	171	793	815	608
03 금융·보험직	2,708	32	2,676	1,830	285	203	358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23	39	23	-	1	13	2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969	609	2,360	2,092	24	105	136	3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056	270	786	328	2	17	439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666	903	1,763	1,109	88	190	374	2
21 교육직	193	88	105	105	-	-	-	-
22 법률직	216	0	216	206	-	3	7	-
23 사회복지·종교직	9,492	5,998	3,494	3,019	41	363	71	-
24 경찰·소방·교도직	19	0	19	-	-	19	-	-
30 보건·의료직	6,531	3,521	3,010	1,960	164	683	193	10
41 예술·디자인·방송직	931	503	428	359	3	43	21	2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7	0	17	7	3	1	6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441	368	73	34	9	4	26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16	23	193	130	25	23	2	13
53 음식 서비스직	1,106	865	241	211	15	3	12	-
54 경호·경비직	535	68	467	432	-	7	28	-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642	623	19	10	2	2	4	1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938	888	50	46	2	1	1	-
61 영업·판매직	2,811	721	2,090	1,868	40	55	125	2
62 운전·운송직	1,024	592	432	140	39	114	139	-
70 건설·채굴직	580	387	193	135	16	21	21	-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752	1,769	983	467	49	335	131	1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697	524	173	41	54	46	22	10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610	1,135	1,475	1,071	96	109	198	1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83	0	183	10	-	-	160	13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42	54	88	45	-	21	21	1
86 섬유·의복 생산직	114	100	14	5	1	7	1	-
87 식품가공·생산직	754	546	208	125	13	2	68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52	223	29	15	8	3	3	-
89 제조 단순직	182	182	-	-	-	-	-	-
90 농림어업직	740	600	140	76	-	64	-	-
y 분류불능	11	0	11	10	-	1	-	-

라. 훈련 공급분석 시사점

1) 훈련 공급 규모의 변동성과 구조적 불균형

- 최근 3개년간 전북지역의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모두 공급 규모가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양성훈련의 취업률 성과도 동반 하락세를 보임
- 훈련 공급은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는 반면, 제조업 분야의 훈련 성과는 낮은 수준임. 특히 식품가공, 섬유, 기계 관련 직종의 취업률이 30~40%대에 그치며 산업별 수요에 비해 공급의 질적 불균형이 존재함
- 재직자 훈련 또한 보건·의료직, 경영·행정·사무직 등 일부 분야로 편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및 기술직 중심의 현장 맞춤형 훈련 확대가 필요함

2) 단기 유행형 훈련과정의 변동성 확대

- 훈련 유형별 공급 추이를 보면, K-디지털 및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이 2023년에 급격히 확대되었다가 2024년에 감소하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단기적 공급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 이러한 급격한 변동은 지역 내 훈련기관이 단기적 수요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과정 개설·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장기 산업 수요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훈련과정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정보통신·신기술 분야 과정의 단기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된 중장기형 기술 융합·신기술 기반 훈련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3) 성별·직종별 훈련 참여 구조의 분화

- 교육훈련 참여자의 여성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남성은 ‘경영·행정·사무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등 기술, 제조 중심 분야에서 훈련 참여가 집중된 반면, 여성은 ‘보건·의료직’, ‘사회복지·종교직’ 등 서비스, 사무 중심 분야에서 참여 비중이 높음
 - 특히 여성은 보건, 복지, 사무직 중심으로 훈련이 집중되어 있어 직무 다양성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며, 남성은 제조, 기술 분야 중심으로 참여가 편중됨
- 성별에 따라 분화된 훈련참여 구조를 완화하고, 여성의 기술·디지털 분야 진입, 남성의 서비스, 복지 분야 확장을 지원하는 포용적인 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함

4. 인력 및 훈련 수급분석 결과

가. 훈련 수급분석 체계

- 2026년도 전북지역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훈련 미스매칭 직종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훈련공급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함
- 교육훈련 우선분야 도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3단계 분석을 실시함

- (1단계) 교육훈련 정량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분야 선정
(교육훈련 필요성과 교육성과 정량 데이터 분석)

- 교육훈련 필요성이 높고, 교육 성과가 높은 직종일수록 교육훈련 개선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훈련분야를 도출
- 교육훈련 필요성은 교육훈련 수요 추정량과 교육훈련 수급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3개 집단으로 구분함

- (2단계) 구인/구직 통계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의 현황 분석

- 전북지역 내 구인 및 구직인원을 활용하여 구인배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함
- 노동시장현황에 대한 집단은 구인배수 기준으로 높음, 보통, 낮음의 3개 집단으로 구성함

- (3단계) 1단계에서 도출된 교육훈련 분야와 노동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우선직종 도출

- 1단계에서 도출된 교육 필요성 및 교육 성과에 대한 매트릭스와 노동시장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우선순위를 도출함
- 각 평가요소별 영역에 따라 교육확대 검토, 현수준 유지, 교육 축소 검토, 추가개설 보류로 구분함

〈 표 99 〉 훈련수급조정 판단 기준

구 분	세부 판단 기준
교육 확대 검토	훈련 수급조정 판단 기준이 2개 이상 높음
현수준 유지	훈련 수급조정 판단 기준이 1개이상 높음 또는 판단기준이 모두 보통
교육축소 검토	훈련수급조정 판단기준 중 높음이 없거나, 1개 이상 낮음에 해당
추가개설 보류	훈련수급조정 판단기준이 모두 낮음에 해당

나. 훈련 수급분석 결과

1) 양성훈련 수급 조정 결과

- 교육훈련 수요량 및 최근 3개년 훈련 공급량 평균, 교육성과 및 노동시장 현황을 통해 교육훈련 수급 조정의견을 제시함
- 양성과정의 훈련수급 조정(안)을 보면,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등 8개 직종에서 교육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직종으로 나타남
- 훈련 공급 축소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 ‘예술·디자인·방송직’, ‘음식서비스직’, ‘건설·채굴직’,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등 12개 직종으로 나타남

〈 표 100 〉 양성훈련 수급 조정(안)

구 분	수요 (A)	3개년 훈련공급 평균 (B)	수급차 (A-B)	교육 성과 (취업률)	노동 시장 현황	훈련수급조정 판단 기준			훈련 수급판단 (안)
						교육 필요성	교육 성과	노동 시장 현황	
01 관리직(임원·부서장)	38	-	38	0.0%	0.29	보통	보통	낮음	축소
02 경영·행정·사무직	322	3,733	-3,411	44.2%	0.37	낮음	보통	낮음	축소
03 금융·보험직	-	-	-	0.0%	0.22	보통	보통	낮음	축소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	-	0.0%	0.71	보통	보통	높음	유지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0	10	-10	33.3%	0.26	보통	낮음	낮음	축소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6	4,675	-4,648	28.3%	0.08	낮음	낮음	낮음	보류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64	415	-150	48.5%	0.52	낮음	높음	보통	유지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57	140	117	47.7%	0.39	높음	높음	낮음	확대
21 교육직	1	11	-10	30.3%	0.23	보통	낮음	낮음	축소
22 법률직	13	-	13	0.0%	0.16	보통	보통	낮음	축소
23 사회복지·종교직	1,610	94	1,515	34.6%	0.63	높음	낮음	보통	유지

24 경찰·소방·교도직	-	-	-	0.0%	0	보통	보통	-	-
25 군인	-	-	-	0.0%	0	보통	보통	-	-
30 보건·의료직	1,469	703	766	67.7%	0.37	높음	높음	낮음	확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9	1,053	-1,043	45.7%	0.16	낮음	보통	낮음	축소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5	11	4	41.2%	0.41	보통	보통	낮음	축소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	1,218	-1,217	48.2%	0.08	낮음	높음	낮음	유지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23	-	123	0.0%	0.44	높음	보통	보통	유지
53 음식 서비스직	552	2,752	-2,200	42.1%	0.48	낮음	보통	보통	축소
54 경호·경비직	5	-	5	0.0%	0.55	보통	보통	보통	유지
55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2,298	3,998	-1,700	44.4%	0.99	낮음	보통	높음	유지
56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	1,516	113	1,403	27.4%	0.52	높음	낮음	보통	유지
61 영업·판매직	188	-	188	0.0%	0.55	높음	보통	보통	유지
62 운전·운송직	371	280	91	51.9%	0.57	높음	높음	보통	확대
70 건설·채굴직	96	645	-549	43.1%	0.33	낮음	보통	낮음	축소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568	400	168	43.0%	0.82	높음	보통	높음	확대
82 금속·재료 설치·정비· 생산직(판금·단조· 주조·용접·도장 등)	37	229	-192	60.5%	1.49	낮음	높음	높음	확대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96	724	-629	45.1%	0.47	낮음	보통	보통	축소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	-	5	0.0%	0.67	보통	보통	높음	유지
85 화학·환경 설치·정비· 생산직	156	-	156	0.0%	1.53	높음	보통	높음	확대
86 섬유·의복 생산직	77	159	-82	33.8%	0.71	낮음	낮음	높음	유지
87 식품 가공·생산직	317	1,528	-1,211	40.4%	0.91	낮음	보통	높음	유지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6	241	-225	30.4%	0.55	낮음	낮음	보통	축소
89 제조 단순직	396	-	396	0.0%	0.95	높음	보통	높음	확대
90 농림어업직	7	189	-182	53.7%	1.34	낮음	높음	높음	확대

1) 향상훈련 수급 조정 결과

- 향상훈련 과정에 대해 교육훈련 필요성 및 교육성과(수료율),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하여 훈련수급조정을 검토함

※ 훈련수급조정 판단 기준은 양성과정과 동일함

- 향상과정의 훈련수급조정(안)을 보면, 훈련공급 확대 직종으로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의 직종으로 나타남
- 훈련 공급 축소 직종으로는 ‘경영·행정·사무직’,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사회 복지·종교직’ 등이 나타남

〈 표 101 〉 향상훈련 수급 조정(안)

구분	수요 (A)	3개년 훈련공급 평균 (B)	수급차 (A-B)	교육 성과 (수료율)	노동 시장 현황	훈련수급조정 판단 기준			훈련 수급판단 (안)
						교육 필요성	교육 성과	노동 시장 현황	
01 관리직(임원·부서장)	239	1028	-788	97.4%	0.29	낮음	높음	낮음	유지
02 경영·행정·사무직	933	14533	-13601	95.5%	0.37	낮음	보통	낮음	축소
03 금융·보험직	-	83	-83	91.1%	0.22	낮음	보통	낮음	축소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0	-	-	0.71	보통	보통	높음	유지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19	-19	84.5%	0.26	보통	낮음	낮음	축소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14	10730	-10516	97.0%	0.08	낮음	높음	낮음	유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58	1026	632	96.2%	0.52	높음	보통	보통	유지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68	1836	-468	96.0%	0.39	낮음	보통	낮음	축소
21 교육직	-	63	-63	83.5%	0.23	낮음	낮음	낮음	축소
22 법률직	49	0	49	-	0.16	보통	보통	낮음	축소
23 사회복지·종교직	4,519	9095	-4,575	91.2%	0.63	낮음	보통	보통	축소
24 경찰·소방·교도직	-	0	-	-	0	보통	보통	낮음	축소

25 군인	-	0	-	-	0	보통	보통	낮음	축소
30 보건·의료직	4,278	34656	-30378	97.3%	0.37	낮음	높음	낮음	유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6	649	-643	90.1%	0.16	낮음	보통	낮음	축소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6	43	-27	75.0%	0.41	보통	낮음	낮음	축소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	353	-345	88.7%	0.08	낮음	보통	낮음	축소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	905	-905	93.6%	0.44	낮음	보통	보통	축소
53 음식 서비스직	959	1147	-188	93.0%	0.48	낮음	보통	보통	축소
54 경호·경비직	107	3256	-3,149	96.0%	0.55	낮음	보통	보통	축소
55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7,253	3890	3,363	98.7%	0.99	높음	높음	높음	확대
56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	2,486	660	1,826	87.5%	0.52	높음	보통	보통	유지
61 영업·판매직	245	416	-171	86.8%	0.55	낮음	보통	보통	축소
62 운전·운송직	633	1196	-563	94.8%	0.57	낮음	보통	보통	축소
70 건설·채굴직	314	477	-163	87.4%	0.33	낮음	보통	낮음	축소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401	4155	-2,755	93.8%	0.82	낮음	보통	높음	유지
82 금속·재료 설치·정비· 생산직(판금·단조· 주조·용접·도장 등)	166	619	-453	94.5%	1.49	낮음	보통	높음	유지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541	3334	-2,793	97.0%	0.47	낮음	높음	보통	유지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71	2	169	100.0%	0.67	높음	높음	높음	확대
85 화학·환경 설치·정비· 생산직	1,005	433	572	99.1%	1.53	높음	높음	높음	확대
86 섬유·의복 생산직	179	143	36	90.7%	0.71	보통	보통	높음	유지
87 식품 가공·생산직	74	1013	-940	93.1%	0.91	낮음	보통	높음	유지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10	249	-138	92.5%	0.55	낮음	보통	보통	축소
89 제조 단순직	2,457	143	2,314	80.6%	0.95	높음	낮음	높음	확대
90 농림어업직	-	520	-520	95.7%	1.34	낮음	보통	높음	유지

가. 주축·신산업 전환에 대응한 직무기반 전문인력 강화

- 전북의 주축·신산업은 지능화·전동화·고부가가치화·신시장 확장이라는 명확한 방향으로 구조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 반면, 해당 산업을 뒷받침할 직무 기반 전문기술 인력의 최신 기술 이해·실습 기반 역량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히 고기능 소재 공정, 리튬이온전지 제조 등 신산업 필수 직무는 기존 훈련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고난도·고속련 분야임
- 산업의 기술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양성체계는 여전히 기존 직종분류·기초 기능 중심에 머물고 있어 ‘숙련 격차(Skilled Gap)’가 확대될 위험이 높음
- 주축·신산업의 전환 속도에 맞춰 신규·고급 직무 기반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산업별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훈련교과 재편의 요구됨
- 또한 산업별 종사자 규모·부가가치 비중을 고려하여 핵심 산업 직무군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무기반 고급·전문 인력양성체계 구축 필요

나. 고령화 및 청년 유출 심화에 대응한 지역 노동력 확보 및 정착기반 확충 필요

- 전북은 대규모 청년 순유출(-6,908명, 20대), 지속적인 30대 순유출(-662명) 등 생산 가능인구 중심의 외부 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유입은 50대·60세 이상 등 고령층 중심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 심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0년간 128만 → 112만 명으로 감소, 65세 이상 증가, 고령화 속도 가속 등으로 인해 지역 노동력 기반이 총량적으로 축소되고 질적으로도 약화되고 있음

- 청년 실업률(전북 8.6%, 전국 5.9%)이 높아 청년층의 취업·정착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청년층의 대규모 순유출(20대 -6,908명, 30대 -662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10년간 -16만 명)는 지역 산업의 인력 기반 약화로 직결되므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전략이 반드시 필요함
-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전북 8.6% vs 전국 5.9%)임을 고려할 때, 채용약정형·산학연계형 훈련 등 취업 직결형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 고령층 순유입 증가 및 장년층 비중 확대는 중장년 전직·전환훈련 강화, 장기근속 연계형 재직자 훈련 확대가 필요함
-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되는 만큼, ‘청년-중장년-고령층’ 연령계층별 맞춤형 인력 전략과 지역 정착유인 강화가 필수적임
-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등 구인난 산업과 연계한 정착형 패키지(훈련-취업-정주 지원) 구축이 요구됨

▶ 청년 인력의 지역 이탈을 억제하고 생산가능인구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정착형·계층별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요구

다. 산업·직종별 인력 및 훈련 수요 양극화 심화에 대응한 수요 기반 공급 재편

- 업종·직종별 재직자 수와 향상훈련 수요를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종합 건설업’, ‘식료품 제조업’ 등은 재직자 규모와 향상훈련 수요가 모두 큰 산업으로 나타나는 반면, 직종별 훈련 성과를 보면 식품가공·섬유·기계 관련 직종의 취업률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수요 대비 훈련성과가 낮은 직종이 존재함
- 최근 3개년 훈련 공급이 202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일부 직종·산업에 대한 공급 편중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훈련 수요 증가 산업/직종 vs 훈련 공급·성과 저조 직종” 간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양상이 확인됨
- 재직자 훈련은 보건·의료·사무직 등 직무로 쏠려 있고, 제조·기술직, 특히 현장기반 직무를 위한 전문·심화형 훈련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제조업 기반 지역 산업구조를 지탱할 숙련 인력 재생산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직종별 재직자 전망과 향상훈련 수요, 훈련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훈련 수요가 크거나 증가세인 산업·직종(예: 보건업, 식료품 제조업, 일부 제조·기술직 등)을 ‘중점 공급군’으로 설정하고, 해당 분야 훈련 공급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함

- 사회복지·보건·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기존 훈련공급 구조를 조정하여, 제조업·기술직 중심의 현장 맞춤형·고숙련 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적 재편이 요구됨
- 특히 취업률이 30~40% 수준에 머무르는 식품가공·섬유·기계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교과 개편, 기업연계형 실습 강화, 자격·직무 연계성 제고 등을 통해 '질 중심'의 훈련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재직자 향상훈련은 보건·사무 중심에서 벗어나, 자동차·화학·식료품 제조업 등 향상훈련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직무특화형 재직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전북은 산업·직종별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수요가 큰 산업·직종 중심의 중점 공급군 설정'과 '제조·기술직 중심 현장훈련 강화'를 축으로 하는 수요 기반 훈련 공급 재편 필요

라. 지역 간 훈련역량 격차 해소 및 고품질 실습 기반 확충 필요

- 전북은 디지털·신산업·정보통신 분야의 실습·장비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외 훈련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 유출 심화 및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확인됨
- 특히 지역 내 실습인프라 부족과 이동 비용 증가는 직업훈련 접근성을 낮추어 현장 인력의 유지·정착에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동화장비, CNC, 전기·전자 실습장비 등 고비용 장비는 개별 기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권역 단위의 공동 구축·공동 활용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제기됨
- 이러한 인프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 커리큘럼 개발, 공동 강사 운영,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확대 등 교육기관 간 협력 기반의 공공훈련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 장비·시설 확보를 넘어서는 교육 품질·역량 강화 과제임
- 또한 디지털 전환, AI, 스마트팩토리, 식품 자동화 등 신산업 분야는 전문성과 장비 인프라 모두 미흡하여, 광주·대구 등과의 지역 간 공동훈련 모델 도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됨
- 지역 외 훈련 유출이 큰 직종(디지털·신산업·정보통신 등)은 지역 내 실습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장비 확보를 통한 공급 기반 강화가 필수적임

▣ 전북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권역균형·기관협력·고급장비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 인프라·역량 격차 해소 필요

마.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교차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필요

- 전북은 계층 간 노동시장 참여 구조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청년은 외부이탈·전문직 선호, 고령층은 돌봄·보건 편중, 여성은 경력단절, 외국인은 제조·기능직 집중이라는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남
- 특히 외국인은 전북 제조·식품·농생명 산업 등에서 이미 사실상 필수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언어·안전·직무적응 문제로 훈련 공백이 가장 큰 계층임
- 직종별 훈련 접근성을 보면 청년층 선호 직종에서 전북 내 훈련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고, 고령층은 돌봄·보건 편중으로 직종 다변화가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별 인력수요 패턴을 반영해 청년-중장년-고령층-여성-외국인 전체를 포괄하는 계층별-직무별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전북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청년 유출·고령층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교차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생산가능인구 -1.5%, 고령층 +3.1%)
- 또한 청년층의 타 지역 훈련 유출률(25.7%)이 가장 높고, 지역 내 신산업·디지털 직종 훈련 기반이 취약하므로 청년 대상 신산업 기반 장기·심층 기술훈련과 지역정착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고령층은 돌봄·보건 분야 편중(44%·55%)으로 직종 다양성과 고용 안정성이 낮으므로 전문화·심화과정·비돌봄 분야 전환훈련 확대가 요구됨
- 여성은 경력단절 및 돌봄 부담에 따른 재취업 제약이 있으므로 디지털·사무·기술융합형 전환훈련과 경력회복 중심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 외국인 인력은 전북 산업 현장의 ‘현재·미래 노동력’으로, 언어·안전·기초작업 역량이 취약하여 직무적응 격차가 가장 큰 계층임
이에 따라 한국어·안전·기초작업 중심의 외국인 기초훈련 도입, 제조·식품·농생명 분야 중심의 기능·기초기술 훈련, 사업장 적응·정착 지원 연계 등 외국인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수적임

▶ **청년-중장년-고령층-여성-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계층별·직무별 교차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필요**